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총론, 재량 활동

교 육 과 학 기 술 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목 차

- 총 론 -

I. 교육과정의 이해	3
1. 교육과정의 개념	3
가. 교육과정의 의미	3
나.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	8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18
가. 대한민국 헌법	19
나. 교육기본법	21
다. 초·중등교육법	22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
 II.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36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1945~1946)	36
2. 교수 요목의 시기(1946~1954)	38
3.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40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40
나.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41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42
4.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43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44
나.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45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46
라. 부분 개정	47
5.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1)	49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49
나.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50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52

6.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54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54
나. 구성 방향 및 목표상의 특징	55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57
7.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59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59
나. 기본 방향 및 목표상의 특징	61
다.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63
8.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66
가. 개정의 경과	67
나. 구성 방침	68
다.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70
라. 부분 개정	73
9.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	75
가. 개정의 배경	75
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77
다. 구성 방침	78
라.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80
마. 수시 개정 체제에 의한 부분 개정	85
10.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85

III.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90

1. 개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90
2. 추구하는 인간상	97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98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99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100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100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101
3. 초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육 목표	102
가. 초등학교 교육의 성격	102
나.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	105
4.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과 구성 방침	107

가. 개정 중점	107
나. 구성 방침	111
IV.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117
1. 편제	117
2. 시간 배당 기준	119
V.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122
1. 기본 지침	122
가.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의 확보	123
나.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	123
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25
라.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26
2.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127
가. 시·도 교육청	128
나. 시·군·구의 지역 교육청	136
3.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40
가.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141
나.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142
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절차	143
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원	171
4.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174
가. 국가 수준에서 시행하는 평가 활동	174
나. 국가 수준의 평가 지원 활동	175
다.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평가 활동	176
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에 대한 지침	177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80
 [부록 1] 총론의 주요 개정 사항 비교	182
[부록 2] 교육적 인간상의 변천	185
[부록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187
[부록 4]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위탁 연구 과제 및 발간 도서	210

- 재량 활동 -

I. 재량 활동 개정의 배경	217
II. 재량 활동의 의의와 내용	219
1. 재량 활동의 의의	219
2. 재량 활동의 내용	220
III.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221
1.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지침	221
2.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223
IV.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안 예시	233
1. 범교과 학습 중심형	233
2.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형	235
3. 범교과·자기 주도적 학습 통합형	237
V. 재량 활동의 평가	239
1. 재량 활동 평가의 기본 방향	239
2. 학생 평가	240
3.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243
참 고 문 헌	247

총론

금 용 한 (교 육 과 학 기 술 부)
김 진 규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박 순 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광 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 영 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 진 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 용 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허 경 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 만 곤 (양 지 초 등 학 교)
이 원 희 (대 구 교 육 대 학 교)
박 줄 (경 상 남 도 교 육 청)
이 영 섭 (강 원 도 춘 천 교 육 청)

- I. 교육과정의 이해
- II.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 III.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 IV.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 V.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I. 교육과정의 이해

1. 교육과정의 개념

가.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교육과정을 넓게 생각하느냐, 좁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전제와 중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누가,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준거와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

‘쿠레레(currere)’라는 어원으로부터 출발한 ‘교육과정(curriculum)’이라는 용어는 경기 코스, 트랙, 나아가 수행해야 할 교수요목(course of study)을 의미한다. 옛날부터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왔다. 학생들에게 그 ‘무엇’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교육’으로 본다면, 그 ‘무엇’이 교육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의도적인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놓은 공통적인 기준을 ‘교육과정’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규정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보는 시각, 인간과 사회를 보는 시각, 즉 사물을 보는 철학적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 우리는 ‘교육한다’는 말의 핵심이 되는 요소로 우선 교육의 대상(학생), 교육의 내용(교육과정), 교육하는 사람(교사)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것만을 교육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교육과정의 개념 규정은 오히려 단순하고 쉬울 것이다. 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사와 무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느냐’에 대한 선택과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처럼,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모호하고 사람마다 자신의 철학적 배경 또는 견해나 필요에 따라 제각기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¹⁾ 어

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대백과 사전 ①, (서울 : 하우동설, 1998), pp. 544~545.

허친스(Hutchins, R. M., 1936)와 같은 항존주의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불변하는 지식에 관한 내용의 계열적, 체계적인 조직’을 교육과정으로 보고 있으나, 카스웰과 캠벨(Caswell & Campbell, 1935)은 코스나 계열로 보지 않고 ‘학교나 교사들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모든 경험’으로 넓게 정의하

떤 사람은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의 주제나 개념을 열거한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의 지도 아래 계획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경험이라고도 한다. 또한,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과목의 모음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과와 교과 외의 활동, 상담 지도, 대인 관계 등을 포함하는 학교 내의 모든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등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쓰인다.

교육과정은 내용(content)으로서의 교육과정, 경험(experience)으로서의 교육과정, 계획(plan)으로서의 교육과정, 결과(outcome)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기도 하고,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으로 나눌 수도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를 지배적인 관점이나 기능에 비추어 종합 정리한 태너와 태너(D. Tanner & L. N. Tanner, 1980)에 따르면, 교육과정이란 ① 지식의 축적 및 조직, ② 사고의 양식, ③ 공동체 경험, ④ 안내된 경험, ⑤ 계획된 학습 환경, ⑥ 인지적, 정의적 내용과 절차, ⑦ 수업 계획, ⑧ 수업 목표, ⑨ 공학적 생산 체제, ⑩ 지식과 경험 등 대략 10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²⁾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른 교육과정 사조와 관련하여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등으로 그 내용의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³⁾

고 있다. 세일러와 알렉산더(Saylor & Alexander, 1935)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광범위한 교육 목표들과 이와 관련되는 상세한 교육 목표들의 성취를 위하여 일련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바(Taba H., 1992)는 “교육과정은 학습을 위한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보통 교육 목표와 교육 목적의 진술을 포함한다. 이는 어떤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수반하고, 교육 목표나 내용의 조직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학습과 교수를 의미하거나 나타내 주며, 학습 결과의 평가 계획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2) Tanner, D. & Tanner, L. N.,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into practi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0. pp. 3-43.

3) 이귀윤은 교육과정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이귀윤, 교육과정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6, pp. 169~170).

첫째,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는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이 배우는 모든 교과와 교재를 말한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철학적 관점을 분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전통주의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지식이나 학문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내용 선정의 원천 중 지식을 분류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둘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는 지식이나 학문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식이나 학문의 구조는 학습의 전이를 높이며, 기억을 오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고등 지식과 기초 지식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도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관

이처럼 교육과정의 개념 체계는 지식, 인간, 사회, 자연, 환경, 문화 등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의도적·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형식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인적자원부⁴⁾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동법 제23조 제2항),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1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고시(공포)함으로써 시행되어 왔다. 이 문서화된 계획이 제정, 고시 또는 공포된 순서에 따라 제1차 교육과정, 혹은 제7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왔으며, 2007년 2월 28일에 개정 고시한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교육과정으로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였다.

우리나라의 법규 문서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문교부령 제35호(1954. 4. 20.)로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시간 배당 기준령’으로,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장

접에서의 분류에서는 전통주의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내용 선정의 분류 기준에서 보면 지식에 비중을 두고 있다.

셋째, 인지 과정 중심 교육과정은 탐구 결과로서의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문제 해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사고의 방식이나 학습하는 방법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유형이다. 이 유형의 교육과정은 인지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구조로 보면 교수 계획과 교육과정을 일원적인 것으로, 그리고 내용 선정 기준으로는 지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의 수단과 목적이 하나의 과정, 즉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철학적 관점에서 진보적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교육의 목적에서 보면 개인과 사회를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 또한, 내용 선정의 원천에서 보면 문화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보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하고 있으며, 내용 선정의 원천으로 보면 생활 경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 제건 중심 교육과정은 학교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 중 사회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2008년 3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지만, 본 해설서 집필 시점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제반 법령이 개편되지 않은 관계로 본 해설서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 표기한다.

총칙의 제2조). 그 이후, 문교부령 제119호(1963.2.15.)로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제2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또한,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답신 보고서에서는⁵⁾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문서화된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제4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12.31.)부터는 어떠한 단일의 교육 사조나 이론의 지배를 탈피하여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인 조화와 복합적인 이론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87-9호, 1987.6.30.)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가가 정해 주는 계획은 어디까지나 개괄적이고 일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과정으로 고시되는 문서는 ‘교육과정 기준’, ‘교육과정 요강’ 혹은 ‘교육과정 지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것이 논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즉, 교육과정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마련된 계획’으로서 국가 수준의 계획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의 계획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국가 수준, 지역 수준, 단위 학교의 교사와 학생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기성 세대의 핵심적 문화 내용으로서의 지식, 사고의 양식, 경험을 재구성한 계획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⁶⁾ 이러한 논의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법제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밝혔다.⁷⁾ 즉,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따라 결정,

5) 한국교육개발원,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연구 보고 제110집, 1979.12., p. 1.

이 답신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밝혔다.

- 교육과정에는 학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하고,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 계획, 학습 지도, 학습 평가 등의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 철학, 국가·사회의 요구,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교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가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일정한 원리와 절차에 따라 선정·조직하여야 한다.

6)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 답신 보고서’, 1986. 6. 30., pp. 84~85.

7)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92. 9. 30, p. 1.

(가)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교육법 제93조) 및 교육 목표(교육법 제94조)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것이다.

(나) 이 교육과정은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1987. 6. 30.)을 개정한 것으로, 전국의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1995학년도부터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이며 일반적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핵심으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교육 구조적인 요인도 포함한다. 즉, 교육 내용은 지식과 그것을 조직하는 사고의 양식, 생활 경험, 공동체 경험을 포함하며, 방법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의미하므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둘러싼 제반 관련 요인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었다.

2000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은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 법규에 따라 고시한 국가 수준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③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④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⑤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격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 교육에 적합한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인 패러다임(paradigm)을 택하여 여러 가지 이론의 절충적, 종합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규정하였다.⁸⁾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면,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흔히 교육과정을 단순하게 해석하여 교육 내용, 심지어 교과서의 내용으로만 보는 잘못된 관점이 학교 교육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다. 즉, 교육과정은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단순하게 교육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육의 방법이나 운영 방식, 교육 평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8)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교육과정의 의미가 그대로 강조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의미 속에는 교육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이들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실정에 알맞게 조정, 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부가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획해 놓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연간, 월간, 주간)도 교육과정의 범주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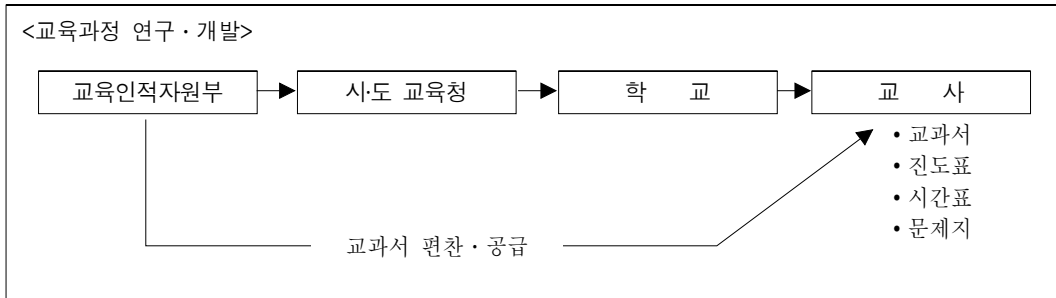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이라는 수동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각 학교에서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학생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준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기성세대가 기대하는 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며 ‘성장’하는 것이 새로운 관점에서의 교육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나.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문서화된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등 세 가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합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개선한 것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적인 개념 정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인적자원부가 법률에 따라 결정,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중점을 반영한 지역 수준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직접 학생을 교육하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조정한 학교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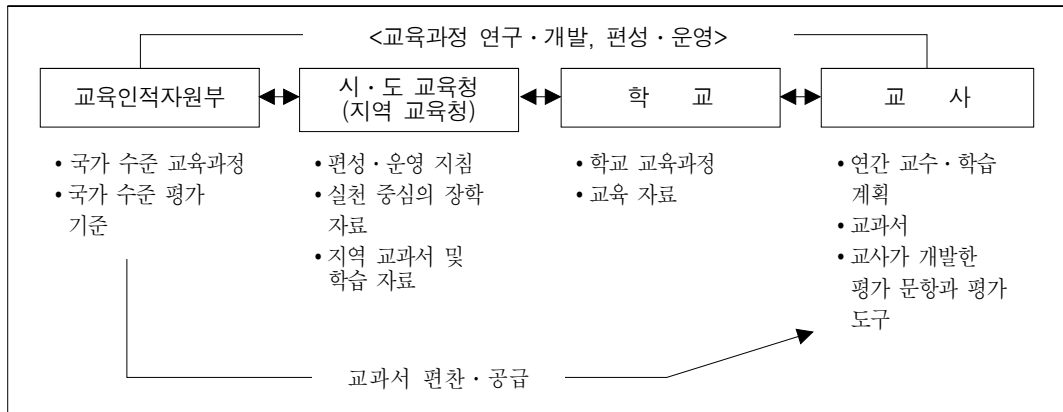
이는, 실제적으로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의도된 교육과 전개된 교육, 실현된 교육을 최대한으로 접근하고자 한 조치이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교육인적자원부 → 시·도 교육청 → 학교’의 획일적, 지시적, 일방적 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 시·도 교육청 ⇄ 교육인적자원부’의 상호 보완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학교, 교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할, 기능의 수준과 위상에서 국가가 의도하고 있는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을 분수령으로 한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도표로 나타내어 비교해 보면 [그림 I-1], [그림 I-2]와 같다.⁹⁾



[그림 I-1]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 모형

[그림 I-1]을 보면,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육 행정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 교육청을 거쳐 학교와 교사에 이르는 획일적, 일방적 지시와 전달 체제의 형태였으며, 교육과정 행정에서 교육과정 기준의 이념은 오직 교과서의 편찬·공급으로써 교사에게 전달되고 이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2]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모형

9)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p. 52. 및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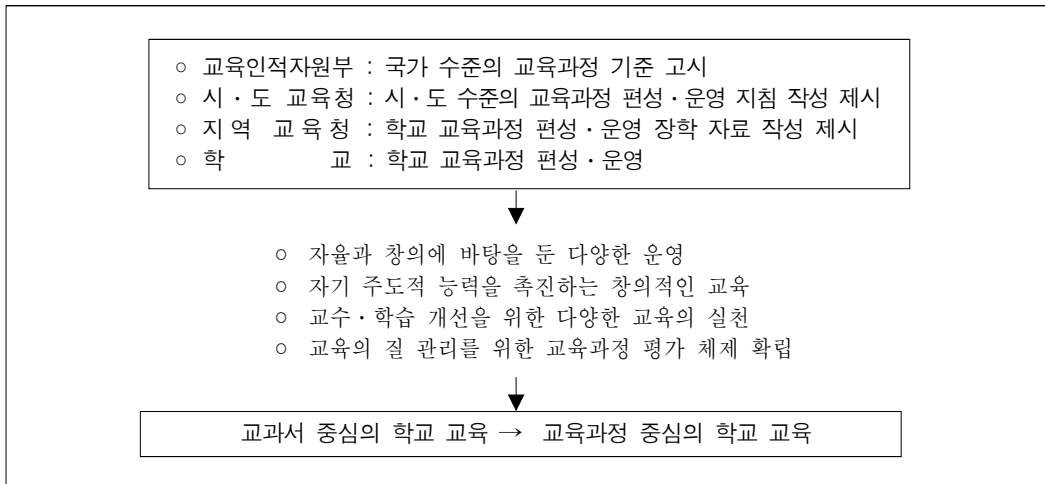
_____,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요령', 교육과정 연수 자료 3, 1993, pp. 14~21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요령', 교육과정 연수 자료 3, 1993, p. 21.

_____, '국민학교 교육과정 연수 자료', 교육과정 연수 자료 5, 1993, pp. 22~23 및 '중학교 교육과정 연수 자료', 교육과정 연수 자료 6, 1993, pp. 22~23.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 동아출판사, 1994), pp. 98~101.

함수곤, 교육과정의 편성,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pp. 94~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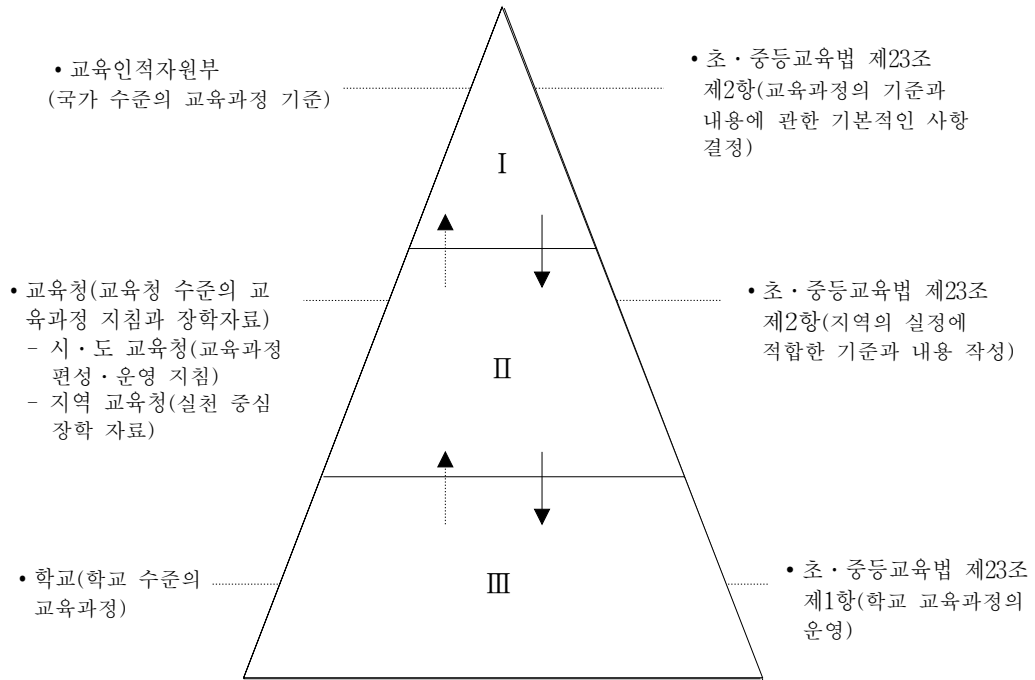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직접 지원하는 시·군·구 지역 교육청에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관내의 초·중학교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제시되었다.



[그림 I-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한 것은 교육의 질을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과 자율화를 촉진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국민 공통의 이익 추구를 위한 공교육을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아 국가 관리 체제로 수행하는 현대 국가들은 불가피하게 교육 내용과 질의 확보·보증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제시하는 것이 국가 수준의 교육 내용 기준이다. 국가 수준에서 계획한 교육과정 문서는 그 자체가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위 수준의 추상적, 공통적, 일반적, 기본적, 요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시 문서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학교 교육과정’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의 수많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알맞게 구성해 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 문서는 다만 교육 내용의 국가 기준이지, 그 자체가 각 학교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이 될 수는 없다.



[그림 I-4]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

[그림 I-4]를 살펴보면,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I)과 이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및 주민·학부모의 요구,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든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II)과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 각 학교의 실정, 학생 실태, 학교 환경, 교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학교 교육과정’(III) 이 세 가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특히, 위의 (I)과 (II)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수·학습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기준과 지침인 동시에 그 지원 관리 체제로 보아야 한다.

(1)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10)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문서로 결정, 고시한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

10)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165호, 1997. 12. 13. 제정·공포, 2007. 1. 3. 12차 개정)

제23조 제2항 :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적인 기준이 바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문서로 결정, 고시한 이 기준을 바로 ‘교육과정’ 그 자체로 잘못 인식해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이는 교육과정 문서의 명칭¹¹⁾에 따른 오해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 관리 기능인 교육 행정,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의 기능을 지니게 되며, 이 고시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교육과정의 결정이 국가, 시·도 교육청, 학교에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그 권한을 분권화하고,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편성·운영하도록 자율·재량권을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인데도, ‘국가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여 법령으로 또는 법령에 따른 고시의 형태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초·중등학교 교육은 보통 교육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국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거대한 공익사업이 되었고, 대부분 국가가 교육과정 개선 사업을 교육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생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이 자유방임적이고 무례도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표준을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수준 혹은 주 정부 수준에서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교육 내용에 관한 기준 설정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나 같은 수준과 질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면 전국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입학의 기회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국민이 전국의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 어떤 교원에 의해 교육을 받더라도, 또한, 어떤 교육 환경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통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에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타당한 교육 내용의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국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단계별 교육은 교육 내용의 영역, 범위, 수준, 학습량 등에서 계통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학년 또는 단계적인 체계 및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국가 수준의 기

11) 이 같은 교육과정 기준 문서의 명칭을 미국은 ‘Curriculum Guideline’, 혹은 ‘Curriculum Framework’, ‘Program Guide’, ‘Minimum Standards’ 등 주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학습 지도 요령’으로, 타이완은 ‘과정 표준(課程 標準)’, 프랑스는 ‘programmes et instructions’, 영국은 ‘National Curriculu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혼란이 생기면 단계별 학교 교육 간의 연계와 교육 이수 및 학습에 장애가 생기고, 위계적이고 계열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게 된다.

넷째,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공교육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질 관리가 되도록 교육의 일정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려면 국가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 국가의 교육 수준은 그 나라의 발전과 국력 수준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각국은 교육 수준을 향상,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사회적, 개인적, 학문적으로 적정한 교육 내용의 수준을 정하고 유지하는 일을 각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타당한 수준의 교육 내용 기준을 결정, 제시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에 가해질 우려가 있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편향된 교화, 선전 등을 방지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국가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¹²⁾ 공교육이 이러한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교육 외적 체제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압력, 편향된 교화, 선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과제로서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교육 내적 체제에서의 학교나 교원의 자의적인 독단과 전횡 또는 임의의 교육과정 운영, 편향, 선동 등을 막기 위한 기준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여섯째,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교육 관계법에 초·중등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 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이념·목표를 달성, 실현하는 일은 국민으로부터 교육 제도와 조직·운영을 위임받은 국가의 일차적인 책임이며, 국가의 교육 행정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¹³⁾ 이 기준은 현재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해 권력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나,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과 전문적인 지도 조언 등의 비 권력적인 관여가 조화롭게 병행되어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인 기준으로서 지역 및

12) 대한민국 헌법 제31 조에는, ①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5 조에는, ①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실시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고, 제6 조에는 ‘교육의 중립성’에 관해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13)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별책 1, 1997.12.30) 및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별책 1, 2007.2.28), p.iii.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운영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②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③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④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⑤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2)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 내용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획일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제함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을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교육 중점 등을 설정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준거로 삼게 하려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전국의 공통적, 일반적, 표준적, 대강적, 요강적인 교육 내용 기준이라면, 시·도 단위 혹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 특성과 실정, 필요, 요구 등이 반영된 국가 기준의 보완적이고 신장적인 의미가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각 시·도가 국가 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보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그 지역의 자연·사회·문화 환경이나 산업, 역사, 전통, 발전 전망, 주민 의식 등은 중요한 검토 관점이 될 수 있다. 즉,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며, 장학 자료, 교수·학습 자료 및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에 제시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군·구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이러한 근거는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전문적·기술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학의 핵심적인 업무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 의도와 교육 중점을 각 시·도의 지침에 제시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편성과 운영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지역이나 학교에 주어진 자율, 재량의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시키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는 바로 교사이다. 교사야말로 의도적인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 교육의 주체이고 실천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 기준을 잘 만들고 지역 지침을 세밀하게 마련해 주어도 교육 실천자가 명확한 교육 의도를 가지지 않고 교육 목표와 내용을 뚜렷하게 다루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의 실천자이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여 실천하고, 또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 학교에서 일련의 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기준과 지역 지침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기준과 지침을 자세히 분석하는 동시에 학교의 교원·학생 실태, 교육 실태, 교육 시설·자료 등의 교육 여건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및 실태에 알맞게 학교별로 마련한 ‘의도적인 교육 실천 계획(school program)’이기 때문이다.¹⁴⁾ 즉,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14) 이경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부, 교육과정 연수 자료 10, 1994. 11., p. 48.

_____, ‘제 7 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부, 제 7 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수 자료, 1998. 8., p. 44

※ 특히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취지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연수 자료’, 연수 자료 5(1993. 6.) 및 ‘중학교 교육과정 연수 자료’, 연수 자료 6 (1993. 6.)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제 6 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 : 동아출판사, 1994), pp. 257~403.

함수근, 교육과정의 편성,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pp. 20~25.

그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이고, 특색 있는 당해 학교의 교육 설계도이며, 상세한 교육 운영 세부 실천 계획이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 방법과 운영 방식이 나타나 있어 전국의 각 학교가 제각기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의미하는 실천적,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며,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조직, 시설,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지식과 그것을 조직하는 사고의 양식, 생활 경험, 공동체 경험 등을 포함하며, 방법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의미하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둘러싼 제반 관련 요인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효율성(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을 통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지속적으로 보완, 조정함으로써 학생의 실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국가 수준의 기준을 그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의 개별화, 다양화, 자율화를 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교수·학습의 상호 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교육의 적합성(suitability)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해당 학교의 교육 중점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의 자율성(autonomy)과 전문성(professional expertise)의 신장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능력과 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학교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잘 아는 그 학교의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성과 전문성을 신장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교원의 전문적인 업무이다. 교원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교원만의 고유한 전문적 영역이다. 또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자율·재량권이 부여되

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장·교감은 교사들의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이를 보장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획일성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우리 교육이 이처럼 획일화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환경을 탈피하여 학생·교원·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교육으로 변화되도록 하려면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하다. 즉, 획일적인 지식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따라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개별 교육을 실천하려면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를 탈피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할 때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개개인의 적성, 능력, 흥미나 관심, 장래 진로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흥미, 적성을 수용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학생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특기, 관심, 흥미를 담은 새로운 영역과 내용을 설정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제 1 항에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이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위 학교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 23조는 국가, 시·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이 이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 기준은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과 기본 지침이 된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지식·정보의 시대,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을 실천하려면 비정상적이고 고정된 관념이나 사고를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통하여 의도된 교육과 실현된 교육을 접근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이 교육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교육과정이 기대하는 ‘교육의 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종래부터 어떤 형태나 명칭으로든 ‘학교 교육과정’(‘학교 교육 계획’, ‘교육 실천 세부 운영 계획’ 등으로 불렸지만)이 존재해 왔으며, 각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나 명칭으로 학교 교육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의 수립·실천이 오랫동안 시책 중심 혹은 사무 중심으로 흘러 교육과정 자체는 도외시되어 왔기 때문에 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라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자 한 것이다. 당해 학교의 실정이나 교육 여건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학교에 알맞은 특색 있고 융통성 있는 ‘교육 설계도’를 창의적으로 마련하여 실천하는 일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의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교육 여건과 환경이 잘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였으며, 이러한 기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일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¹⁵⁾

①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어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③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려면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해 있기 보다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해 나가는 인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교육과정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 부여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교육 목표 실현의 더욱 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¹⁶⁾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한민국헌법 [전부 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 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05호]
- ③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7. 12. 14. 법률 제8676호]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6호]
- 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15) 이경환,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부, 교육과정 연구 자료, 1998, p. 6.

16) 임명자, ‘국민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학년도 석사학위 논문, p. 89.

-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07. 7. 3. 대통령령 제20155호]
- ⑦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일부개정 2007. 4. 12. 대통령령 제20003호]
-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4. 6. 19. 대통령령 제18429호]
- ⑨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999. 7. 23. 대통령령 제16479호]
- ⑩ 저작권법 [전문개정 2006. 12. 28. 법률 제8101호]
- ⑪ 저작권법시행령 [전부개정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
- ⑫ 저작권법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 6. 29. 문화관광부령 제166호]
- ⑬ 과학교육진흥법 [전문개정 2001. 3. 28. 법률 제6432호]
- 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 ⑮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05. 12. 7. 법률 제7702호]
- ⑯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54호]
- 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7. 5. 25. 법률 제8483호]
- ⑱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 2. 22. 대통령령 제19349호]
- ⑲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6. 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 ⑳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08호]
- 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 1. 31. 대통령령 제20570호]
- ㉒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2007. 12. 14. 법률 제8676호]
- ㉓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07. 5. 25. 법률 제8492호]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는 그 밖에도 교육 조직, 시설·설비, 학사, 장학·학술 연구, 과학·기술·직업 교육,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 교육 및 국경일·휴일·기념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등과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예규 등이 있다.

가. 대한민국 헌법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제 31 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 균등’의 권리는 교육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 즉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나 강조하는 바에 차이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연구해 온 교육의 이상이며, 교육이란 개인을 유능하게 만들지만 개인의 경험과 그가 받는 교육의 질과 양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인차를 또한 만들어 놓는다.¹⁷⁾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최소 필수 교육’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의 필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기계적인 평등 논리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공평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육은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 및 요구, 개인적 특성 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처치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은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국가 관리 체제로 하는 공교육 제도에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법에 따라 학교 교육을 운영한다. 그리하여 부모와 교사의 지배나 간섭, 또는 포기로부터 침해받을 수도 있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자로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부모, 교사, 설립자, 국가 등 교육권을 가진 모든 교육 주체의 중심이 되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에 기초한 권리로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제한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보통 교육 단계의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선동이나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는 비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 가치의 수용에 대한 가소성이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의 보통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학생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에 대한 규정은 학생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배울 권리의 보장, 교육 내용의 전문적 수준 확보, 공교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리, 교육 내용의 중립성 보장의 준거가 된다.

17) 교육과정개선연구회,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 연구 보고, 1995. 12, pp. 3~4.

나. 교육기본법

○ 교육 이념

제2조 :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홍익인간, 전인의 육성 등이 교육의 이상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¹⁸⁾ 광복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 이념으로 제시된 것도 바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교육 이념이다. 교육 이념이란 ‘교육적 행위 전체를 지휘하는 근본 원리’(오천석, 1974), 혹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준의 활동이나 원리에 대한 교육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 체계(이돈희, 1995)’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 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 ‘민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세계적 이념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꾸준히 재음미되어 왔다. 즉,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그 적절성과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 1949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 이념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는 바탕이 되었다.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기저가 된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제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 지역 지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동시에 법적인 기준이 된다.¹⁹⁾

18)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홍익인간’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근원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 관한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인 교육’의 방향이 우리나라 교육 문헌에 분명하게 표현된 것은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이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광복 직후 결성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제안하여 교육법에 명기하게 된 것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상통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초·중등교육법

(1)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제 38 조 :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에는 교육법에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으나²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 38 조에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중점과 교육 목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각각 해당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학교급별 개념이 아니라 학년별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으나, 교육과정이 학교급별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과 초·중등교육법에 교육 목적이 학교급

19) 제 3 조 (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교육의 기회균등)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조 (교육의 자주성 등)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제 7 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교육적 인간상 및 교육 목표연구’, 연구 보고 CR 97-35, ’97 교육부 위탁 연구 과제 답신 보고서, 1997, p. 62.

“일상적으로 목적(目的)과 목표(目標)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라는 용어는 이미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서부터 구분되어 등장한다. 그러나 양자는 다소 인위적인 차원에서 구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학의 맥락에서 교육 목적은 이루고자 하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나 방향을 보다 상위의 수준에서 거시적으로 포괄하며, 구체적인 행위를 전개하기에 앞서 그 바탕이 되는 의지나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교육 목적은 광범위하게 진술되고, 일반적으로 개별 학습자나 학교보다는 학교급과 해당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장기적이다. 반면에, 교육 목표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통하여 성취하거나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교육 목표는 교육 목적에서 표방하는 교육적 의지와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교육 목적에 비해 단기적이며, 주로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성취 결과를 구체화한 형태로 제시된다. 이와 함께 교육 목표는 교육이라는 실천적 행위가 전개되는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목표에서부터 교과 목표, 그리고 세목화, 구체화된 행동적 수업 목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수준의 교육 목표들은 궁극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처럼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교육 실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편의상의 구분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별로 제시된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교육 목표도 학교급별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교육 목표의 진술도 교육자의 입장보다는 학생의 입장, 그들의 성장과 진보의 정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술함으로써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2)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제 23 조(교육과정 등) :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1 항은 각 학교에서 소정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동법 제 63 조에 따라 관할청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는 등 행정 책임을 묻게 된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동법 제 23 조 제 2 항에 따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특별 활동·재량 활동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수업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다.²¹⁾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별로 실천 가능하게 마련한 구체적인 교육 실행 계획이므로 학생의 발달 정도,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구성한 연간, 학기 간, 주간 및 일일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교육 자료는 교과서 등의 교과용 도서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한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동법 제 23 조 제 2 항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

21) ‘수업’(교수·학습, 교수 또는 수업, 학습 지도 instruction)이란, ‘목표로 설정한 행동 유형의 변화, 즉 학습이 인간·학습자에게 일어나도록 그의 내적 학습 과정에 맞추어 그의 외적 조건과 상황을 설계·개발·관리하는 과정’(진위교, 1991, p.289~290.)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법규 문서에 쓰인 ‘수업’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수학 연한, 교사의 근무 시간에 따라 일정한 교육 기간에 교실, 체육장 및 학교장이 정한 교육의 장을 포함한 공간에서 교육자인 교사가 피교육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을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교구를 활용하여 행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다.

적인 사항을 정한다.”라는 규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의 근거가 된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거대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는 교육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 많은 투자와 우수 교원 확보, 교육 내용 개혁 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의 일반적, 공통적인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통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권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①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 보장, ② 단계별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 유지, ③ 공교육의 일정 수준 확보, ④ 교육의 중립성 확보, ⑤ 교육 목표 달성의 국가 책임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는 국가의 관여를 통한 전문적인 지도 조언과 융통성 있는 운영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특수성이나 실정, 필요,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등과 지역의 교육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각 시·도의 교육 중점을 특색 있게 설정하고,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그 지역의 학교에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감이 이러한 지역 수준의 지침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제시된 규정이다. 이 밖에도 관련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규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의 교육감 관장 사무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찾을 수 있다.

(3) 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29조 :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제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교과서는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저작권을 가진 국정 도서이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일부 교과(5·6학년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3~6학년 영어)에서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었고, 중학교에

서는 특별 활동 및 생활외국어의 일부를 제외한 전 교과에서 모두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정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연구 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연구·개발 위탁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인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4학년 사회과 지역 교과서, 초등학교의 특별 활동이나 재량 활동에 더 필요한 교재는 시·도 교육감의 인정 도서로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나타나는 ‘교과용 도서’라는 용어는 국정 또는 검정의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의미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나 지도서는 ‘국정 도서’라 하고, 민간에서 저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나 지도서는 ‘검정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²²⁾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도서’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 도서’,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교과용 도서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²³⁾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 신장과 창의성 계발에 적합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구성 방침, 학교 급별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 그리고 해당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려면 국정, 검정, 인정 도서를 막론하고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증시하고 교수·학습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2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1차 개정 2004. 6. 19, 대통령령 제18429호)에서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 구분하고 있다.

- 교과용 도서 : 교과서 및 지도서
- 교과서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
- 지도서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
- 국정 도서 :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
- 검정 도서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23)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 도서의 인정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 제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 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 제17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도서를 국정 도서 또는 인정 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부교재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기본적인 신념과 구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편집,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고, 가독성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모습은 서적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앞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학습자들의 다양성, 개별성,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교과서’, ‘토론 중심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교과서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 운영 위원회의 기능

제 32 조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 31 조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기본 설계도’이기 때문에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교육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기본적인 일이며, 국가 수준의 기준과 지역 수준의 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학교 교육 과정은 해당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교감·교사에게 부여된 고유하고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 결정의 권한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의 학년별 교과·특별 활동·재량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 사회와 학교,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

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교과와 특별 활동 이외의 ‘재량 활동’ 영역이 신설, 확대되어 주제 탐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소집단 활동, 자연 체험 활동, 범교과 학습 활동 등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학교 나름대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 등을 수용하여 특색 있는 학교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당해 학교 교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편성해 놓은 ‘재량 활동’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모든 학습 활동에서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과 같은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경험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 활동에서는 시간 운영, 장소 활용, 활동 주제 선정, 학습 집단의 조직, 자원 인사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 명예 교사, 지역 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과 학교 밖의 시설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는 교과의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 보충 과정’의 운영과 지원 방안
- ②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③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방안
- ④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실)을 확충하는 방안
- ⑤ 체육 대회, 합창 대회, 학예회, 축제 등의 교육적인 학교 행사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 ⑥ 주 5일 수업제에 의한 토요일 휴업일 운영, 도시와 농·어촌 및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체험 학습, 현장 학습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 ⑦ 귀국자 자녀 특별 학급이나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모색하고자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원의 전문적이고도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관련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심의를 할 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국가 수준의 기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5) 학년도, 학년제, 수업 연한

제 24 조(수업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 조(학년제)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 39 조(수업 연한) :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 년으로 한다.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 일정이 운영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 배당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배정하여 ‘연간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격주 토요 휴업일 운영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주 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를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로 제시하고 있다.

학년별로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를 ‘주당’ 수업 시간 수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연간’ 수업 시간 수로 제시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재량의 권한을 학교에 부여한 것이다. 또한, 수업은 주간 수업, 전일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학년제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이 법 제 27 조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자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칙으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²⁴⁾

24)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3차 개정 1999. 7. 23. 대통령령 제 16479 호.

(6)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제 7 조 (장학 지도)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학교 규칙) :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7 조 (학생 자치 활동) :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7 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장학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장학의 개념을 간략히 정의하면,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 활동’으로 볼 수 있다.²⁵⁾ 교육 활동의 개선은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을 그 핵심으로 하여, 단위 학교에서 설정된 교육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장학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성장(전문성 신장)’, ‘교수 행위(학습 지도)의 개선’, ‘교육과정 운영의 합리화’, ‘학교 경영의 합리화’, 그리고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 등 그 표현에서 차이는 있지만 넓게 보아 교육 활동의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²⁶⁾ 또한, ‘전문적·기술적 (보조) 활동’, ‘지도·조언 (활동)’, ‘직접·간접으로 제공되는 지도성’, ‘지도·조언·조정·정보 제공·자원 봉사’, ‘직접적·간접적 영향’ 등 장학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지도 조언을 그 중심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장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업 개선(improvement of instruction)’에 있으므로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 지도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 활동에서는 특히 학생의 자주적인 실천 활동을 중시하여, 교사와 학생이 공동 협의하거나 학생 자신의 힘으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게 하고 있다. 그중에서 자치활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조직하고, 학생의 역할 분담과 연계

25) 한국교육개발원, ‘교내 자율 장학의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보고 RR89-13, 1989, p. 24

26) 주삼환, ‘장학·교장론 특강’, (서울 : 성원사, 1988), p. 67~73.

장학의 개념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또한,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학자들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장학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① 행정, ② 교육과정, ③ 수업, ④ 인간관계, ⑤ 경영, ⑥ 지도성의 여섯 가지 접근도 장학이 궁극적으로는 학교와 교실 내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을 전제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정 또는 방법상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장학의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장학의 개념을 ‘수업 개선과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도와주는 여러 교육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종합하고 있다.

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생의 자치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학교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제반 학칙이 ‘학교 교육과정’에 담겨야 한다.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7)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제9조(평가) : 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학교생활 기록)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 특색이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평가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다.²⁷⁾ 특히, 학교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시책이나 사무 중심의 문서에 의한 형식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통하여 ‘수업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는 질 관리 중심의 평가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의 개선과 평가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다.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제13조에는 학생의 평가, 평가의 대상, 평가의 기준, 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728 호, 2007. 7. 27)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 외에도 헌법 제 31 조와 관련하여 의무 교육, 취학 의무에 관한 사항이 초·중등교육법 제 12 조부터 제 16 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장, 교감, 교사의 ‘학생 교육’에 대한 임무가 이 법 제 20 조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수업이나 학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관할청에서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법 제 63 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학교의 폐쇄(법 제 265 조)까지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교과, 학기, 수업 일수, 수업 운영 방법, 수업 시간 등 학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

제 43 조(교과)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새 교육과정의 편제에 제시된 국민 공통 기본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의 10 개 교과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초등학교의 1, 2학년에 설정된 통합교과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교과 구조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하여 교수·학습 부담의 경감을 꾀하고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편제는 교과와 과목을 구분하여 교과를 더 광역 단위의 학습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²⁸⁾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와 과목을 엄밀히 구

28) ① 광병선, ‘교과에 대한 설명적 모형의 탐색’, 한국교육, 1987, p. 159~176.

② 광병선 외, 교과 교육 원리, (서울 : 갑을출판사, 1988), p. 42~48.

③ 광병선, ‘교과와 논리와 가치에 대한 한 성찰’, 교과교육연구, 제 1 집,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p. 2.

분하지 않고 있다.

중학교의 교과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서 초등학교와 같이 필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중학교의 사회과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사회와 역사로 나누어졌다.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역사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과로부터 역사를 별도로 독립시킨 것이다. 실과는 중학교에서 기술·가정으로 명명하여 교과목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에서는 ‘교과’와 ‘과목’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은 ‘교과’로 지칭하고, 국어 교과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의 ‘과목’으로, 과학 교과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등의 ‘과목’으로 학습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과’와 ‘과목’을 동일한 범위로 보아 ‘교과목’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광병선(1992)은 ‘교과’와 ‘과목’을 동일한 범위로 보고, ‘교과’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교과’는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직결되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정한 준거를 가지고 그 생성을 되풀이하는 문화 요소 중 학교에서 가르칠 대상으로 설정되어 들어온 학문이나 경험 분야를 가리킨다. 이 정의는 다소 개괄적이므로 교과의 의미를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약간의 분석적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교과는 문화 요소에서 선정된다는 점이다. 다르게 말해서, 교과는 문화 요소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 요소는 인간됨을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직결된 인간의 정신적 자산과 경험을 가리킨다. 정신적 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 활동의 소산으로 형성된 지식, 사고의 양식, 이상, 의지, 각성된 의식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경험이라 함은, 개인과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체득되어 실천으로 나타내어야 할 기능과 태도를 가리킨다. 이 정신적 자산과 경험이 다른 어떤 문화 내용보다 인간의 조건을 가치롭게 향상시키는 데 핵심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 정신적 자산과 경험으로서의 문화 요소는 역사를 통해 부단히 재구성되어 왔으나, 한 사회의 시점에서 보면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문화 요소는 하나의 통일된 실체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지지되어 있는 준거에 의해서 분화되어 상호 독립된 분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 분야는 그 분야에서 산출된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과정도 특성을 달리한다. 그리고 각 분야는 자기 분야를 타 분야와 구별하는 준거가 있으며, 분야마다 경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교과로 선정되어 들어온 문화 요소의 각 분야들은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띤다.

셋째, 분화되어 상호 독립적인 분야로 존재하는 문화 요소의 영역들은 그것들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공동체 또는 권익 집단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동체들은 자기들 영역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이다. 정신적 자산의 분야에는 학문 공동체가 각 학문 영역별로 형성되어 있으며, 경험의 분야에는 권익 집단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각기 자기 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취를 위하여 상호 경쟁과 비판이 벌어지지만, 대외적으로는 자기 분야의 이익과 지위 상승을 위하여 배타적 노력에 공조한다. 즉, 각 독립된 문화 요소의 분야를 발판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로 입문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관련이 있다.

넷째, 교과는 다양한 문화 요소 중에서 선정하여 조직한다는 점에서 의사 결정의 산물로 성립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교과로 정할 것인가는 정신적 요소에 대한 분야와 경험적 요소에 대한 분야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시사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느 분야가 교과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의 역할이 교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상의 정의가 시사하는 것은, 교과를 충실히 이해하려면 교과의 학문적 배경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복합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학기, 수업 일수, 휴업일 및 수업 시각

제 44 조 (학기) :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 학기는 제 1 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5 조 (수업 일수) : 학교의 수업 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 :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7 조 (휴업일 등) : ① 법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수업 시각) :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법 제 24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시행령 제 44 조에 제시되어 있다. 매 학년도의 법정 수업 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10의 범위(22일)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주 5일 수업제의 운영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개교기념일 등이 휴업일로 규정되며, 비상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²⁹⁾ 또한, 하루의 수업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각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 편성·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수준의 기준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 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는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서 학년별로 이수하여야 할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가 제시된 것이며, ‘수업 일수’를 제

29) 학교의 수업 일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71호),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06. 9. 6. 대통령령 제19674 호)에 의하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07. 5. 2. 대통령령 제 20045 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⑤ (삭제), ⑥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⑩ 12월 25일(기독교 탄신일), ⑪의 2. 공직 선거법 제 34 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⑫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 수업 시간 수와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별도로 확보한 특별 활동 등의 수업 시간 수를 합하여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를 산출하여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이 수립,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연간 운영 계획은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과 특성, 학년 단계와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학급 편성, 수업 운영 방법, 수료 및 졸업

제 46 조 (학급 편성) :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 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 48 조 (수업 운영 방법 등)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 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0 조 (수료 및 졸업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 등에는 소규모의 소인수 학교 또는 학급인 경우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 학급에 수용하는 복식 학급 운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시행령 제 46 조).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급 내 집단 편성이 바람직하지만 학교의 여건이나 의도,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재량 활동이나 특별 활동의 운영에서는 활동 주제의 특성, 계발 활동 부서의 선택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학년이나 학급의 벽을 탈피하여 무학년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협력 수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수업에서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나 지도서 등과 같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모든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환, 교류 학습이나 학부모의 책임 아래 여행, 현장 견학, 답사 등과 같은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외 체험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 50 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에 따라 수료 또는 졸업을 학교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각 학년의 수료는 수업 일수의 2/3 이상(최소 147 일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있으며, 졸업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의미한다.

II.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우선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기점을 언제부터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시대 구분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또는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교육 사조나 이론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할 수는 있으나, 이 해설서에서는 광복 후 국가에서 문서로 공포(고시)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 관점에서 보면,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 있었던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 요목’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으로 볼 수 있어 광복 후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아홉 차례의 제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1945~1946)

8·15 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본의 강점 하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을 통치하게 되었다. 미군정의 성격은 미군에 의한 직접 통치로써, 군정 법령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상, 식민지적 사상과 형태를 불식시키고, 광복을 맞은 한국을 민주화시키려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17일, 일반 명령 제4호로 9월 24일을 기하여 모든 공립 소학교에 대하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사립 소학교는 개교 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각 도에 통첩을 보내어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일반 명령 제4호’에 따라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신 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중에서 교과목 등 교육 내용에 관련된 것은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과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은 일체 교수함을 금하는’ 포괄적인 지시였다. 이어 평화와 질서를 당면한 교육 목표로 하고, 일본 제국주의적 색채를 없애도록 하는 교육의 일반 방침을 시달하는 한편, 초·중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표를 시달하였다.

교과서 문제는 각 학교로 하여금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되, 산수나 이과와 같은 교과목 외에는 일본 교과서의 사용을 금하였다. 이 때의 임시 교과목 및 교과 시수표는 일제 강점기 말기의 심상 소학교의 교과목 및 수업 시수표를 근간으로 개정된 임시 방편의 것이었지만, 수신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를 등장시킨 점, 일본어 중심의 국

어가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의 국어로 바뀐 점, 일본 역사가 우리 국사로 대체된 점 등 주로 일제의 황민화 교육을 탈피하고 신생 국가로서의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II-1> 국민학교 교과목 및 교수 시수표(1945. 9)

교과 학년	공 민	국 어	지리·역사	산 술	이 과	음악·체육	계
1~3	2	8	1	5	1	3	20
4	2	7	1	4	3	3	20
5~6	2	6	2	3	2	3	18
고 등 과	2	6	2	2	2	3	17

(출처) : 문교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서울특별시 인쇄 공업 협동 조합, 1988), p. 13.

<표 II-1>과 같은 이러한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해방 직후 국민학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긴급히 결정한 것으로 결정된 직후에 <표 II-2>와 같이 수정하여 시달하였다. 이 때의 교과 편제에는 습자·도화·요리·재봉 및 실업이 추가되어 시간 배당이 늘었고, 4학년 이상은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이 남녀별로 다르게 되어 있었다.

<표 II-2> 국민학교 교과목 및 교수 시수표(1945)

교과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공 민	2	2	2	2	2	2
국 어	8	8	8	7	6	6
역 사	-	-	-	-	2	2
지 리	-	-	-	1	2	2
산 수	6	6	7	5	5	5
이 과	-	-	-	3	3	3
체 조	4	4	5	3	3	3
음 악	-	-	-	2	2	2
습 자	-	-	1	1	1	1
도화·공작	2	2	2	남 3 여 2	4 3	4 3
요리·재봉	-	-	-	여 3	3	3
실 과	-	-	-	남 3 여 1	3 1	3 1
계	22	22	25	30	33	33

(출처) : 문교부, 편수 자료 I-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0), p. 3.

2. 교수 요목의 시기(1946~1954)

교수 요목의 시기는 1946년부터 1954년에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나오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교육과정의 개념상 교수 요목과 교육과정을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고, 교수 요목이란 교과 내용 자체가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이며,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한 데 불과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것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즉시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로 교육에 관한 응급 조치를 했던 미 군정청 편수국의 교과별 편수관들은 위원회(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 요목을 제정하는 한편, 교과서 편찬에 착수하였다. 한편, 1946년 9월 1일에는 국민학교 교수 요목을 시달하였고, 1947년에는 중학교의 학제 변경에 따른 교과목별 주당 수업 시간표를 정하고, 교과목별 교수 요목을 시달하였다. 이 때의 교수 요목은 교육과정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 그 구성의 방향이나 이념 또는 목적, 운영상의 유의점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문헌에 나타난 교수 요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표방되었다.

첫째,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일제 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 시급히 제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

대체로 당시의 교수 요목은 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으며, 그 내용은 고답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새로운 교육 사조를 받아들이기 전이어서 일제 강점기의 일본의 교육 내용을 참작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용면에서 일제 잔재를 불식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는데, 한글 전용, 우리말 다시 찾기 및 우리말 용어 제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에는 교수 요목을 제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정도로 교과서의 발행이 시급하였다. 그것은 교육심의회 제9분과에 교과서 준비 위원 문제, 교과서 검사 제도, 표준출판 배부 방법, 교과서의 한문 폐지 문제, 교과서의 무상 제공 문제 등 교과서에 관하여 연구·검토하는 일이 위촉되었을 뿐, 교수 요목이나 교육과정을 다루는 분과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이 교수 요목은 정부 수립과 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되어 1954년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이듬해의 ‘교과 과정’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과서가 편찬되어 사용되었다.

교과별 교수 요목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첫째, 교육과정의 진술 체제가 교과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회 생활과와 같이 교과의 목표와 방침, 운용법(운영상의 유의점)을 함께 제시한 교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과가 단원 또는 제재명과 내용 요소만을 제시하고 있었고, 둘째, 각

교과마다 단원 또는 제재별로 이수할 시간 수를 밝히고 있었다. 또한, 셋째, 내용 요소의 진술 형식도 설문 형식, 단순한 내용 요목 제시 형식 등 교과에 따라 달랐으며, 넷째, 교과의 편제는 실과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금과 비슷한 편제를 갖추었는데, 가장 특색 있는 것은 ‘사회 생활과’의 탄생이다. 사회 생활과는 공민, 역사, 지리, 직업, 자연 관찰(1~3학년)을 종합하여 편성한 교과로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을 내용으로 하며, 특히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제된 것이었다. 이것은 지식 중심의 교과 내용이 생활 중심의 교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여, 앞으로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 중점적으로 도입될 것을 예측하게 하였다.

<표 II-3> 교수 요목 시기의 국민학교 교과목 및 연간 수업 시간표(1946.9)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 어	360	360	360	360	320	320
사회 생활	160	160	200	200	남 240 여 200	240 200
이 과	-	-	-	160	160	160
산 수	160	160	200	200	200	200
보 건	200	200	200	200	200	200
음 악	80	80	80	80	80	80
미 술	160	160	160	160	남 160 여 120	160 120
가 사	-	-	-	-	여 80	80
계	1,120 (28)	1,120 (28)	1,200 (30)	1,360 (34)	1,360 (34)	1,360 (34)

※ 시간은 1년을 40 주로 하여 교과별 연간 이수 시간 수를 나타낸 것임.

(출처) : 함종규,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전편),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p.189.

<표 II-3>의 편제표에서 이과의 1, 2, 3학년에 시간 배당을 하지 않은 대신, 그 내용을 사회 생활과에서 ‘자연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학년별로 연간 38시간씩 이수하도록 하였고, 실과의 내용은 남자의 경우 5, 6학년 사회과와 미술과에서, 여자는 가사과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였다.

3.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개정, 공포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으로부터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기까지의 교육과정으로서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과 과정의 시기’ 또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시기’라고도 한다.³⁰⁾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라고 정의하였으며,³¹⁾ 이 때의 교육과정은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기는 하나 ‘생활 교육’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 있었다.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1946년과 1947년에 시달된 교수 요목은 임시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49년의 교육법의 공포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당시의 교육법 제155조에는 “대학, 사범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문교부는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시간 배당과 교과 과정을 새롭게 정하지 않을 수 없어 곧 교육과정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6·25 전쟁을 겪게 되어 그 계획은 중단되었으며, 정부가 부산에 옮겨져 있던 1953년에 다시 개정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우선 교육계 및 기타 각계의 권위자를 망라한 교육과정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전후 총 29회의 토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작성하여,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하게 되었다. 이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정해지자, 후속 작업으로 교육과정 제정을 서둘러 이듬해인 1955년 8월 1일자로 각급 학교 교과 과정을 공포하였는데, 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와 ‘교과 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것을 우리는 ‘제1차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제1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2조에서 “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한 규정과 문교부령 제44, 45, 46조로 공포된 교육과정의 명칭 자체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보아서도 교과 교육과정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교과 과정’ 머리말의 ‘三. 본 과정 운

30) 문교부, 한국 교육 30년, (서울 : 문교부, 1980), p. 64.

31) 문교부령 제35호, 제1장 총칙 제2조, 1954. 4. 20.

용상의 주의'에는 당시의 교육과정의 성격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³²⁾ 이 교육과정은 학습 지도 계획과 실제 지도 및 학습 평가의 '보편적 기준'임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편찬될 교과용 도서는 본 과정의 지도 목표와 내용을 구현함에 힘쓸 것이며, 본 과정의 세밀한 검토 아래 지도 범위와 정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활용은 본 과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다루어질 수 없으며, 모든 학습 자료도 본 과정의 취지 아래 이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과 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국정·검정·인정 교과서의 종별을 명백히 하였다. 이리하여 새 교과서 편찬이 1958년 봄까지 끝남으로써 교과 교육과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대의 교육과정이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 개념의 반영 또한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³³⁾ 교육과정 자체는 '교과 중심'이었으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편찬하는 교과서는 이미 '생활 중심'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구성 방침이나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급 학교에 공통되는 '본 과정 제정의 기본 태도'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현실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사회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교육을 통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부흥시키고 미개발된 사회 환경을 발전시켜 보려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정부 수립 후 제정, 공포된 교육법에 제시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32) 문교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총론,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1986), p. 25.

33) 이러한 성격은 교과 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 ① 계통적 학습을 중심으로 하던 종래의 교과 학습의 배열을 버리고, 생활 중심의 단원 학습으로 배열한 점
- ② 종래의 소단원제를 지양하고 대단원제로 시정하여 학습의 생활화와 학습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 점
- ③ 종래의 지식과 암기를 강요하는 주입식 방향을 피하고 학생의 생활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해와 기능 및 태도를 기르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힘쓴 점
- ④ 아동의 흥미 중심의 작업 단원을 되도록 많이 설정하고, 작업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자기의 생활 경험을 심화·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던 점

셋째, 내용은 적절, 필수, 최소량이어야 함을 밝혀 지적 체계와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 과정 체계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넷째,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반공·도의 교육을 강조하게 된 까닭은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해 도덕적인 타락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반공 의식의 고양이가 어느 때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 교과는 필수, 선택을 합하여 총 이수 시간의 30%이상이 되도록 시간을 배당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과 직업 교육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특별 활동 시간을 배당하여 전인 교육을 지향하였다. 특히, 특별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적 학생 활동, 학생의 개별 성장, 직업 준비 및 이용후생,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임을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서 밝히고 있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① 본 과정이 나오기까지, ② 기본 태도, ③ 운영상의 주의만 간략히 제시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정신이나 체계를 이해하는 총론으로서의 미흡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제1차 교육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으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특징이 있으나,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계, 진술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표 II-4>를 보면, 편제상의 특징으로서 특별 활동이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 활동으로 편성되어,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2개 활동이 처음으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과는 대교과제를 취하여 8개 교과로 하였으나, 지금의 도덕과는 편제표상에 편제되어 나타나지 않고, 각 학년 총 이수 시간 수의 범위 내에서 연간 35시간 이상의 시수를 확보하여 전 교과 및 기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 배당의 기준을 총 이수 시간 수에 대한 백분율(%)로 제시한 것이 제2차 교육과정 이후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특히, 이 때부터 단위 수업 시간의 운영에서 분과 또는 통합 운영 지도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음은 교과의 통합적인 운영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³⁴⁾

34) 문교부령 제35호의 제2장 제 8, 9, 10조의 규정

“제9조 : 국민학교의 수업 시간은 40분을 단위로 한다. 단, 학교장은 단위 수업 시간을 2개 이상으로 나누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수업 시간을 합칠 수 있다.”

<표 II-4>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1954. 4. 20)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 어	25~30% (240~290분)	25~30% (240~300분)	27~20% (290~220분)	20~23% (220~260분)	20~18% (240~220분)	20~18% (250~220분)
산 수	10~15 (100~140)	10~15 (100~150)	12~15 (130~160)	15~10 (170~110)	15~10 (180~120)	15~10 (190~120)
사회 생활	10~15 (100~140)	10~15 (100~150)	15~12 (160~130)	15~12 (170~130)	15~12 (180~140)	15~12 (190~150)
자 연	10~8 (100~80)	10~8 (100~80)	10~15 (110~160)	13~10 (140~110)	10~15 (120~180)	10~15 (120~190)
보 건	18~12 (170~120)	15~12 (150~120)	15~10 (160~110)	10~12 (110~130)	10~12 (120~140)	10~12 (120~150)
음 악	12~10 (120~100)	15~10 (150~100)	8~10 (90~110)	8~5 (90~60)	8~5 (100~60)	8~5 (100~60)
미 술	10~8 (100~80)	10~8 (100~80)	8~10 (90~110)	7~10 (80~110)	10~8 (120~100)	10~8 (120~100)
실 과				7~10 (80~110)	7~10 (80~110)	7~10 (90~130)
특별 활동	5~2 (50~20)	5~2 (50~20)	5~8 (50~80)	5~8 (60~100)	5~10 (60~120)	5~10 (60~120)
계	100% (960 분)	100% (1,000 분)	100% (1,080 분)	100% (1,120 분)	100% (1,200 분)	100% (1,240 분)
연간 총 수업 시간수	840 시간 (24)	875 시간 (25)	945 시간 (27)	980 시간 (28)	1,050 시간 (30)	1,085 시간 (31)

(비고) 1. 백분율은 각 교과 및 특별 활동의 1년간 수업 시간에 대한 학년별 시간 배당을 표시함.

2. () 안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을 표시함.

(출처) : 문교부령 제 35 호,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시간 배당 기준령, 별표1.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

4.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1973년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다시 개정할 때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개념은 교과 간 비교적 서로 횡적인 관련이 결여된 일군(一群)의 교수 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구성된 교과 과정과는 달리 ‘학교의 주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 라고 보았다.³⁵⁾ 따

라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개념상 ‘생활 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1차 교육과정은 6·25 전쟁과 휴전 성립 직후에 제정되어, 당시의 비정상적인 사회 상태,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충분한 내용 설정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스푸트니크(Sputnik) 충격에 따른 세계적인 교육 경쟁의 현상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는데, 그 초점은 초·중등교육 개선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초·중등교육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의 구조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문교부는 1958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자료 수집에 힘써 오던 중, 5·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하여 종래의 교육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전면적인 개정을 하게 되어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이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생활이나 경험 자체를 교육과정으로 보고 있었으며³⁶⁾,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 운영 면에서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을 강조하여 생활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잘 표방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자주성을 강조하였는데, 교육을 통하여 형성하려는 인간상은 막연하고도 보편적인 민주적 공민이 아니라,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르려함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성을 강조하였는데, 학생으로 하여금 만들고, 먹고, 입고, 사는 데 필요한 적당한 방법을 습득시켜 우리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태도와 기능을 길러 나가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 과학 기술의 습득과 실업 및 직업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학습경험을 충분히 계획하도록 힘썼다. 또한 유용성을 강조하였는데, 교육 내용과 방법은 일상 생활과 직결되도록 하고, 학습 지도에서는 지식 습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능)의 습득과 인격(태도)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국가 사회의 절실한 요구, 학생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교육함으로써 쓸모 있는 사회인이 되게 하고, 또 자활할 수 있는 실천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35) 문교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1986), pp. 26~27.

36) 문교부령 제119호로 공포된(1963. 2. 15.) 「제2차 교육과정 총론 제2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에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학생들의 경험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경험(생활) 중심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조직에서는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각급 학교 간의 연결, 각 학년 간의 관련, 각 교과와 계통적 발전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원칙에 따라 학생의 성장 발달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성 있고 계통적 발전성을 보장해 주는 역동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교육의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교육은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사회의 학교는 국가적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학습 경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학습 경험의 결과는 민주 사회에 봉사하고 개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지역 사회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적용의 측면에서 각 학교에서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나.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인간상의 특징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민주적 신념이 확고하고, 반공정신이 투철하며, 민주적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② 독립 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아울러 국제 협조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③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과 유용한 기능 및 과학적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직결되는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④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을 충분히 포함시킨다.
- ⑤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 ⑥ 국민 생활을 순수하고 명량하게 하는 심미적인 정서 생활을 위하여 풍부한 개성을 개발하도록 한다.
- ⑦ 형식적, 추상적 지식에 치우쳤던 반공·도덕 교육을 쇄신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에 주력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이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① 기초 학력의 충실을 기한다.

- ② 교육과정의 계열을 합리화하여 각 학교 사이에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 ③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경영을 지향하여 관련성 있는 교과와의 종합 지도를 강조한다.
- ④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및 특별 활동으로 한다.
- ⑤ 중학교의 교과는 공통 필수 교과만을 둔다.
- ⑥ 고등학교에서는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각급 학교의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 ⑧ 시간 배당 계획의 융통성을 주도록 한다.
- ⑨ 교육과정 내용을 서술하는 형식을 통일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정 요점’에서는 교육과정의 계열화와 학교급별 계열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 학습을 강조하고, 필요 불가결한 최소의 내용 요소를 엄선하여 기초 학력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급 간의 연계성(articulation)과 아울러 교과 간의 통합성(integration)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국민학교의 저학년(1, 2학년)에서 각 교과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통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별 활동의 시간 배당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1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을 별도로 공포했던 것을 통합하여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함으로써, 명실 공히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그리고 명칭도 제1차의 ‘교과 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바꾸어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의한 계획이란 뜻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인을 제시한 다음, 학교급별로 시간 배당의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별로 운영 계획이나 지도상의 유의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각론에서도 각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 진술하여 체제 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었다. 특히, 학년 목표를 신설한 것은 교과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적어도 체제 면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국가수준의 기준으로서의 체계적인 전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공포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① 교과 활동, ② 반공·도덕 생활, ③ 특별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간 배당 기준에 있어서는 각 교과별 시간량을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당 이수 시간으로 표시하고, 특별 활동은 총 이수 시간 수의 백분율로 표시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실과’의 8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사회 생활과’가 ‘사회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학교 수업 일수는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단위 수업 시간은 40분이나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시간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1, 2학년의 학습 지도는 1차와 마찬가지로 ‘교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도’를 강조하였다.

<표 II-5>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1963. 2. 15)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 어	6~5.5	6~7	6~5	5~6	6~5.5	5~6
	산 수	4~3	3~4	3.5~4.5	4.5~4	4~5	5~4
	사 회	2~2.5	3~2	3~4	4~3	3~4	4~3
	자 연	2~2.5	2~2.5	3.5~3	3~3.5	4~3	4~3
	음 악	1.5~2	2~1.5	2~1.5	1.5~2	2~1.5	1.5~2
	체 육	2.5~3	3~2.5	3~3.5	3.5~3	3~3.5	3.5~3
	미 술	2~1.5	2~1.5	2~1.5	1.5~2	2.5~1.5	1.5~2.5
	실 과				2~1.5	2.5~3	2.5~3.5
	반공·도덕	1	1	1	1	1	1
	계	21	22	24	26	28	28
	특별 활동	5~10 %	5~10 %	5~10 %	5~10 %	5~10 %	5~10 %

(출처) : 문교부령 제11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라. 부분 개정

1963년 2월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은 1964년부터 연차적으로(1·2학년: 1964, 3·4학년: 1965년, 5·6학년: 1966년)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교과서의 지도 지침이 발간되었다. 이후, 1968년의 국민 교육 현장의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 대입 예비 고사제 실시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개정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구현과 한글 전용 계획 등 정부 시책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2차 교육과정을 보완한다는 취지 하에, 1969년 9월 4일 문교부령 제 251 호로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부분 개정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을 강화하고 특별 활동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 활동의 변화로는 국어과에서 완전한 한글 전용의 실시를 위하여 한자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미술과에서 표준색을 종래의 12색(또는 24색)에서 10색(또는 20색)으로 하였다. 반공·도덕 생활은 시간 배당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하였고, 특별 활동 구성 체계를 보완하여 국민교육 현장 이념과 관련하여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① 학급회 활동, ② 아동회 활동, ③ 클럽 활동의 세 영역에 따라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시간에 대한 백분율(각 학년별로 5~10%)로 제시되었던 시간 배당 기준을 1~2시간으로 표시하여 최소 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³⁷⁾

<표 II-6>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 부분 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69. 9. 4.)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 어	6~5.5	6~7	6~5	5~6	6~5.5	5~6
	산 수	4~3	3~4	3.5~4.5	4.5~4	4~5	5~4
	사 회	2~2.5	3~2	3~4	4~3	3~4	4~3
	자 연	2~2.5	2~2.5	3.5~3	3~3.5	4~3	4~3
	음 악	1.5~2	2~1.5	2~1.5	1.5~2	2~1.5	1.5~2
	체 육	2.5~3	3~2.5	3~3.5	3.5~3	3~3.5	3~3.5
	미 술	2~1.5	2~1.5	2~1.5	1.5~2	2.5~1.5	1.5~2.5
	실 과				2~1.5	2.5~3	2.5~3.5
반공·도덕		2	2	2	2	2	2
계		22	23	25	27	29	29
특별 활동		1.5~	1.5~	2~	2~	2.5~	2.5~

(출처) : 문교부령 제251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69. 9. 4.

이와 같이, 1930년부터 미국에서 활발히 전개된 생활 중심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수 요목

37) 1963. 2. 15. 개정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 활동의 영역을 ① 학생의 개인 능력에 따른 개성 신장에 관한 것, ② 개인의 취미 향상에 관한 것, ③ 직업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것, ④ 민주적 집회 운영과 생활 태도의 양성에 관한 것 등으로 요약해 놓고 있었으나, 1969. 9. 4. 문교부령 제251호로 부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① 학급회 활동, ② 아동회 활동, ③ 클럽 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학교 행사는 특별 활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며,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의 시기와 교과 과정의 시기를 거쳐 1963년의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념적인 차원에서 정착되었다.

5.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1)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제정 상 처음으로 교육과정 심의회를 구성하고, 이 심의회에서 1971년 1월 시안을 확정된 뒤 2년간의 실험 평가를 거쳐,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개정, 공포된 것이 제3차 교육과정이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① 국민적 자질의 함양, ② 인간 교육의 강화, ③ 지식과 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일반 목표를 구체화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아 발견,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의 강조 등의 32개 항을 제시하였다. 기본 개념의 이해와 지식의 구조적 학습 및 탐구의 능력을 중시한 이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사조를 받아들였으나, 그 내용이나 형식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적 있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국화된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의 총론은 1969년에 보고된 ‘장기 종합 교육 계획 심의회 교육과정 연구반’의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를 반영하여, 1970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과 여론 조사를 거쳐 개정 방침을 세우고 초안을 작성하였다.³⁸⁾ 이 초안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한 것을 여론 조사 후 다시 각급 심의회에서 조정하여 1971년 1월에 시안을 확정하였다. 시안 확정 후, 교육과정의 이론적 탐색, 소규모 실험 및 준비 기간을 거쳐 1973년에 문교부령으로 제3차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당시, 문교부는 교육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과정 원안의 심의 등을 담당하는 자문기구를 두었으며 이 기구는 운영 위원회, 학교별 위원회 및 교과별 위원회 등 3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

38) 제3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을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시킨다.
- ②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하여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 ③ 교과의 편제를 재조정하여 「반공·도덕 생활」을 「도덕」으로 하고 교과화한다.
- ④ 학년별 주당 시간을 중배한다.

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사조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조직'으로 정의된다. 브루너(Bruner, J. S.)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곧 '각 교과 의 전문가들이 각 교과가 나타내고 있는 지식의 본질(즉, 구조)을 가장 명백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을 가리킨다.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대두된 배경은 스푸트닉 충격으로 인한 생활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팽창에 의한 교육 내용의 선정 문제,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한 탐색의 결과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그러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의 자발적인 탐구를 통한 지식의 이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식의 탐구 과정은 학생 경험의 총체 중의 특수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대립되지는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은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 중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이라는 항목에 나타나 있으며, 특히 수학, 과학, 사회 교과 등에 잘 나타나 있다.³⁹⁾ 학문 중심 교육과 함께 제3차 교육과정의 이념이 된 것은 국민 교육 헌장의 이념이었다. 1960년대 이후 주체성을 강조하여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창조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1968년에 국민 교육 헌장이 제정·공포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헌장에 나타난 교육의 지표인 ①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개인 윤리면), ② 협동 정신(사회, 도덕, 윤리면), ③ 국민 정신(국민 윤리면)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었다.

나.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등 세 가지 기본 방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①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②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③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둘째, 인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① 가치관 교육의 강화, ②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③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식·기술을 쇄신하기 위해서, ① 기본 능력의 배양, ② 기본 개념의 파악, ③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④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39) 기본 개념의 파악 :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아 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에 제시된 정신을 학교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이 제시되어 있었다.⁴⁰⁾

제3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 그리고 구성 방침에 나타난 특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을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반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은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의 교육이 지향할 좌표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의 교육 방침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방침 또는 지표가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둘째, 다가올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의 목표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서구화·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세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적 있는 교육과 한국인상 정립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여, 민족 주체 의식을 지니고, 전통을 바탕으로 민족 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본 방침으로 내세웠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인간성의 소외, 도시화에 따른 지식·정보량 및 그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적 탐구 방법을 강조하고 과학적 지식과 유용한 기술을 생산에 적용시키기 위해 산학 협동을 강화하는 것은 그 당시 다가올 미래 상황에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함으로써 명실 공히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교과와 내용 조직에서 지식 구조의 체계화에 의한 학교급별, 학년별 계열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내용의 선택에서 기본 개념과 학문의 원리 및 기초 이론을 일관된 지식 구조의 체계 하에서 전개하는, 이른바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방법 면에서 암기 위주

40)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 ①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정선하되 학습의 지속적인 신장을 기하고, 학습 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② 기본적인 학습 내용의 선정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및 경험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의 계통성과 발전성이 뚜렷하도록 한다.
- ③ 각 교과와 특징에 따라 그에 가장 알맞은 학습 방법을 전개할 수 있는 학습 내용으로 조직한다.
- ④ 지역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보다 적절한 학습 내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기본적인 학습 내용의 선정은 학년 간, 학교 간의 연계성과 교과 간 및 교과와 특별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을 긴밀히 하도록 한다.

나 단순한 경험의 습득만이 아니라 발견, 탐구의 과정과 기본 개념 이해 과정을 강조하였다.

넷째,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한국적 현실과 국가 정책적 의지가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풍토에 알맞은 민주적 인간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올바른 국가관, 국민연대 의식, 국토 및 자원의 보존과 개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등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의지가 깊게 반영되어 있었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구호가 교육 목표에 반영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기본 방침이나 목표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가 성격상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각의 핵심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산만하게 나열되었다는 점, 각각의 목표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은 체제 면에서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총론을 구성의 일반 목표와 학교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누고, 구성의 일반 목표에 기본 방침, 일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제2차 교육정보보다 단순화·체계화되었다. 각론에서도 교과별로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목표는 교과 목표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각 학년별로 학년 목표를 진술하고 있어 그 위계가 체계를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편제면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으로써 교과활동과 특별 활동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에 따라 교과는 총 9개가 되었다. 중등학교에서는 ‘도덕’과와 함께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였으나, 국민학교에서는 종전대로 사회과 내의 국사 분야로 유지하되, 5·6학년에서 국사 부분의 내용을 따로 편성하고 교과서도 따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시간 배당면에서는, 주 단위로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수하도록 하여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도록 했던 기존의 과정과는 달리, 교과별·학년별로 연간 최소 시간(단, 괄호 안에 주당 시간 표시)으로 단일화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과정에서 이수의 범위를 설정해 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학년별 수업 시수의 계가 고정되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당시 교육 현실이 교과 담임제가 아니고 학급 담임이 전 교과를 단일의 국정 교과서로 지도하고 있었으므로 범위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다. 연간 수업 시수로 표시한 것은 주당 시수로 표시함으로써 요일에 따라 수업이 빠져 교과별로 수업 시간이 기준을 넘거나 모자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수업 시간 단위를 40분 또는 45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1~6학년의 성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민학교 교육과정상 처음으로 수업 시수를 45분으로 하게 되었다.

<표 II-7>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1973. 2. 14.)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 과	도 덕	70 (2)	70 (2)	70 (2)	70 (2)	70 (2)	70 (2)
	국 어	210 (6)	210 (6)	210 (6)	210 (6)	210 (6)	210 (6)
	사 회	70 (2)	70 (2)	105 (3)	105 (3)	140※ (4)	140※ (4)
	산 수	140 (4)	140 (4)	140 (4)	140 (4)	175 (5)	175 (5)
	자 연	70 (2)	70 (2)	105 (3)	140 (4)	140 (4)	140 (4)
	체 육	70 (2)	105 (3)	105 (3)	105 (3)	105 (3)	105 (3)
	음 악	70 (2)	70 (2)	70 (2)	70 (2)	70 (2)	70 (2)
	미 술	70 (2)	70 (2)	70 (2)	70 (2)	70 (2)	70 (2)
	실 과				70 (2)	70 (2)	105 (3)
	계	770 (22)	805 (23)	875 (25)	980 (28)	1,050 (30)	1,085 (31)
특별 활동		35~ (1~)	35~ (1~)	52.5~ (1.5~)	52.5~ (1.5~)	52.5~ (1.5~)	52.5~ (1.5~)

※ 사회과 5, 6학년 시간 배당 140(4) 중, 70(2) 시간은 해당 학년의 국사 부문에 배당한다.

(출처) : 문교부령 제310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73. 2. 14.

특히, 교육 내용에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집합’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종래의 생활 수학을 탈피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 2학년의 학습 활동은 ‘가급적 관련 있는 교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별 활동의 영역은 학급 활동, 클럽 활동, 아동회 활동, 학교 행사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학교 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부령’으로 제정되었던 것을 1979년 3월 1일자로 ‘문교부 고시’로 변경하여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이 용이하도록 변화시킨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제3

차 교육과정은 1, 2, 3학년은 1973년, 4, 5, 6학년은 1974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사회과는 1973학년도부터 전 학년이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6.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개정된 제4차 교육과정은 문교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종래의 방식을 벗어나 문교부 장관이 한국교육개발원에 개발 과제를 위탁하여 기초 연구와 총론, 각론 시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의 형태’를 도입하였다는 것이 교육과정 정책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면서⁴¹⁾, 단일한 교육 사조나 교육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1980년 당시의 정치·사회적 특수 상황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와 함께 이에 대처할 적절한 새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7·30 교육 개혁 조치를 단행한 후,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1980년 9월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하였다.⁴²⁾

그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종래의 교육 방송 및 기초 교육 연구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던 연구 업무 영역을 개정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계 연구로 확장시키고 1978년부터 교육과정 기초 연구에 이미 착수하고 있었는데, 특히 새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세미나 개최 및 관련 기초 연구를 끝내고 많은 보고서를 낸 바 있어⁴³⁾,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당시까지의 기초 연구를 토대로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1980. 12. 31.)와 총론 시안(1981. 3. 31.)을 문교부에 답신 보고하였다. 이 답신 보고를 기초로 하여 문교

41) 한국교육개발원,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연구 보고 제110집, 1979, p. 1 및 문교부, 국민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1982, p. 4.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이다.”

4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개정안(총론)의 연구·개발—답신 보고서, 1981, p. 3.

43) 예를 들면,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1978), 교육과정 국제 비교(1979),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1), (2), (3), (4)(1980),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1979),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1979),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197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1980) 등이다.

부에서는 총론 시안에 대한 심의(4. 1~30.)와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각론에 대한 심의(8. 1~31.)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11. 20.), 2차 심의회(교과별, 학교별 소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1981년 12월 31일자로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제4차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이 지닌 ① 학습 내용의 과다, ②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 ③ 교과목 위주의 분과 교육, ④ 기초 및 일반 교육의 소홀, ⑤ 전인 교육 및 인간 교육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식의 학문성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적 유용성면에서 적합하도록 선정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1980년의 7·30 교육 개혁 조치에 따른 교육 방향 전환에 대한 대책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현실과 이에 파생되는 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보완(기초 교육·일반 교육 강화, 전인 교육·인간 교육의 강화), ②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의 추진(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과열 과외의 잠재 요인 제거), ③ 국민 정신 교육의 강화(국민학교 교육 목표·내용의 체계화,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 반영) 등을 개정의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어느 특정한 교육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하지 않으며 종합적이고도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즉, 제 4 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의 정신과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회적·학문적인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교육과정이라는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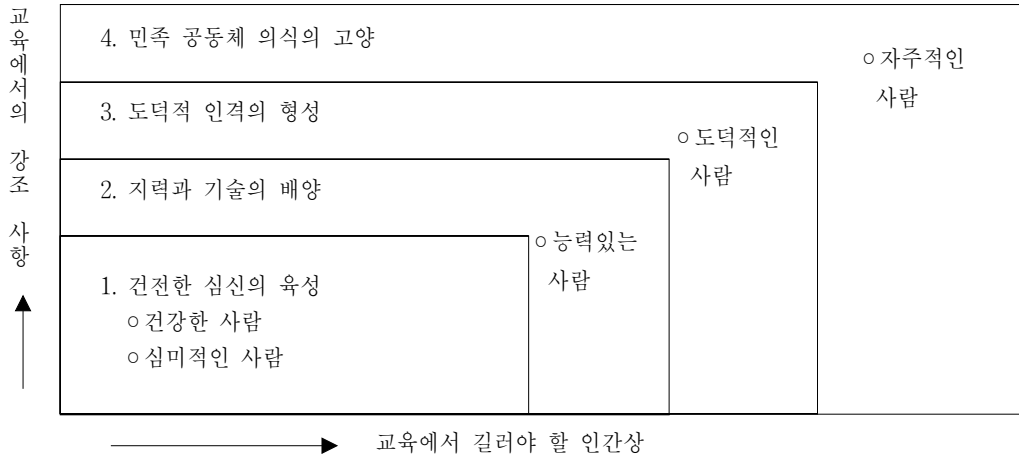
나. 구성 방향 및 목표상의 특징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① 민주주의 토착화, ② 복지사회의 건설, ③ 정의사회의 구현, ④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이라는 국정 지표에 따라 민주·복지·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길러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추구를 하는 심미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주어,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초기에는 통합적인 교육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점차 이를 확대, 심화할 수 있도록 조직하며, 특히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역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⁴⁴⁾

제4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과의 관계를 제시하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인간상과 교육과정 강조 사항과의 관계

특히,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를 포괄적인 상위 목표와 구체적인 하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국민학교의 교육은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 ①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한다.
- ②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꿀 줄 알며,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44) 제4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 | | |
|---|---|
| <p>① 건전한 심신의 육성</p> <p>㉠ 건강한 신체</p> <p>㉡ 풍부한 정서</p> <p>㉢ 고상한 취미</p> <p>㉣ 강인한 의지</p> <p>㉤ 심미적인 태도</p> <p>② 지력과 기술의 배양</p> <p>㉠ 기본 학습 능력</p> <p>㉡ 과학적 탐구 능력</p> <p>㉢ 기초 지식과 기술</p> <p>㉣ 문제 해결력</p> <p>㉤ 진로 개척의 능력</p> | <p>③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p> <p>㉠ 주체적인 자아 의식</p> <p>㉡ 정직성과 성실성</p> <p>㉢ 자율성과 책임감</p> <p>㉣ 공정성과 질서 의식</p> <p>㉤ 인간 존중 태도</p> <p>④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p> <p>㉠ 사회적 연대 의식</p> <p>㉡ 민주·복지·정의 사회 건설의 사명감</p> <p>㉢ 투철한 국가 의식</p> <p>㉣ 민족 문화 창달 의욕</p> <p>㉤ 인류 공영 의식</p> |
|---|---|

- ③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 ④ 자연과 사회의 이해를 위한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고, 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⑤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길러,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게 한다.
- ⑥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지게 한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4차 교육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으로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전망에 비추어 본 국민적 과제,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 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 그리고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국민학교 교육과정’으로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 그리고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표 II-8>을 살펴보면, 편제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교과 활동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교과로, 특별 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세 영역으로 편성되었다.

<표 II-8>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1981. 12. 31)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 과 활 동	도 덕	374 (11)	374 (11)	68 (2)	68 (2)	68 (2)	68 (2)
	국 어			238 (7)	204 (6)	204 (6)	204 (6)
	사 회			102 (3)	102 (3)	136 (4)	136 (4)
	산 수	204 (6)	136 (4)	136 (4)	136 (4)	170 (5)	170 (5)
	자 연		68 (2)	102 (3)	136 (4)	136 (4)	136 (4)
	체 육	204 (6)	238 (7)	102 (3)	102 (3)	102 (3)	102 (3)
	음 악			68 (2)	68 (2)	68 (2)	68 (2)
	미 술			68 (2)	68 (2)	68 (2)	68 (2)
	실 과				68 (2)	68 (2)	68 (2)
	계	782 (23)	816 (24)	884 (26)	952 (28)	1,020 (30)	1,020 (30)
특별 활동				34~ (1~)	68~ (2~)	68~ (2~)	68~ (2~)
총 계		782 (23)	816 (24)	918~ (27~)	1,020~ (30~)	1,088~ (32~)	1,088~ (32~)

(출처) : 문교부 고시 제442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 p. 94.

시간 배당은 통합 교과서에 의한 교과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1, 2학년의 교과 활동 시간을 2~3교과를 합쳐서 시간을 배당한 것이 커다란 변화라고 하겠다.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시간을 학년별·교과별로 표시하고, ()안에 주당 평균 시간 을 표시하였는데, 교과 활동 총 이수 시간의 5%에 해당하는 시간을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기초적인 언어 기능의 강화를 위해 1, 2, 3학년의 국어 시간을 늘리고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강조하였다.

종합적으로 제4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 교과 활동은 교과 간의 연관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1, 2학년은 교과 간의 통합을, 3학년 이상은 분과를 원칙으로 배당되었으

며, 특별 활동 시간은 3학년 이상부터 배당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특히, 1, 2학년에서의 교과 간의 통합 시간 배당은 실제 운영에서 ‘바른 생활’, ‘즐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탄생시켜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교과의 길을 열었다.

제4차 교육과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1, 2, 3학년에 시행되었고, 도덕과·사회과를 제외한 4, 5, 6학년의 교육과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KBS 1TV를 통해 전국적인 교원 연수가 시행된 점은 초등학교 수업 개선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 기록되었다.

7.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① 기초 교육의 강화, ②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③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강조,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제4차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부분 개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1987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 87-9호로 개정된 것이 제5차 교육과정이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수준의 문서화된 개괄적인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개념을 정의하면서⁴⁵⁾, 단일한 교육 사조나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1982년 3월 1일부터 제4차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면서 문교부는 제4차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적용 실태를 분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장 실태 조사를 토대로, 1983년도부터는 현행 교육과정 분석·평가 연구,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학생·교원·학부모 대상의 요구·의견 조사, 국가·사회적 요구와 전망 조사 등의 기초 연구를 문교부 교과 담당 편수관실과 교육과정 담당관실의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3년간 추진한 후, 1985년 6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기본 계획을 통보하였다. 그 후, 문교부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45) 첫째, 문교부가 국가수준에서 학교 교육 내용의 기준으로 문서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제시해 놓은 제정·공포된 교육 내용이다.

둘째,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 지도 내용, 수업 시간, 학습 지도 및 평가 등의 지침이 계획적으로 조직 편성되어 있는 의도적 교육 내용이다.

셋째,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전체적인 교육 내용이다.

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1986년 2월 19일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과는 달리 문교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의뢰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교부는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적정화·내실화·지역화를 제5차 교육과정 개정 방침으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위해 ① 이수 과목의 축소, ②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 ③ 교과목의 조정, ④ 개발 과정의 효율화 등을 꾀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① 교육 목표의 상세화, ② 교육 내용의 정선, ③ 지도서의 실용화, ④ 평가 방법의 다양화 등을 꾀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해 ① 교과용 도서의 2중화, ② 교과 단원의 지역화, ③ 교재 활용의 다양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화 등을 꾀한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은 교육의 내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학문적·개인적 적합성을 높이는 데 있었으나, 당시의 국가·사회적인 변화는 ① 경제적인 발전, ② 민주화의 정착, ③ 정보 사회의 도래, ④ 국가 경제 및 교류의 증대로 인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에서 새로운 개선을 바라는 교육 내적인 요구가 더욱 강하게 대두되었다.⁴⁶⁾

따라서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가 국제화·정보화·다양화 하여감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는 ‘주체성’, ‘창조성’, ‘도덕성’이 강조되었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그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의 분석은 교육과정 개정의 기초가 되었다.

당시, 제5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 사회는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며, 국민의 복지가 실현되고, 문화의 주체성이 확립된 민주사회, 정의사회, 복지사회, 문화사회로 전망되었다. 한편 그 사회에 필요한 인간상은 ①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②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③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④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46) ‘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문교부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개정의 필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교육 철학, 학문 내용, 교육 방법의 변화
- ②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
- ③ 현행 교육과정 공포 이후 7년 경과
- ④ 국제 경쟁력의 강화
- ⑤ 교육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
- ⑥ 교육 환경의 개선,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개발

나. 기본 방향 및 목표상의 특징

제5차 교육과정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 정의사회, 복지사회, 문화사회로 전망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으로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과 운영 면에서 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기초 교육의 강화이다.

학교 교육에서 꼭 정착시켜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흔히 개인차를 말할 때 양적인 면의 개인차와 질적인 면의 개인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양적인 면의 개인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학습자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적, 기본적인 지식, 능력, 태도를 제대로 습득한다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양적인 개인차를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와 병행해서 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개성화, 차별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질적인 개인차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다.

학습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적, 기본적인 것은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고력, 기초 체력, 도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개성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적,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편제, 시간 배당, 목표 및 내용 선정 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초적, 기본적인 내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국민학교 저학년에서의 국어, 산수과의 독립, 특히 국어과의 언어 영역별 독립 교과서 편찬, 중학교의 수학·과학과의 강화, 고등학교의 공통 필수 교과목의 합리적 조정 등은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한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이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추가, 보완하였다. 현재 학교 교육의 대상자는 모두 21세기에 살게 된다. 빠른 속도로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한 교육 내용 방법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물질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에서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며, 정보가 중요한 가치와 효율성을 지니는 사회로 변모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물질 생산력 증대에 따른 사회 변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달과 일상화에 따라 주체성, 창조성, 사고력, 판단력, 정보 처리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함양이 요구되고, 이러한 기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민학교 실과에 컴퓨터의 기

초, 중학교의 기술·가정에 컴퓨터의 원리와 이용을 새로 편성하고 고등학교에 정보 산업 과목을 신설한 것, 모든 교과목에 걸쳐 주체성과 창조성·사고력 등을 강조한 것, 초·중·고등학교 사회과에서 경제 교육 내용을 크게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환경 교육, 진로 교육 등을 강조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이다.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의도한 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법적인 문서로서만 존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교사 양성 기관에서도 고시된 교육과정을 외면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은 법적 문서로서 고시된 교육과정이 매우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고, 중·고교의 일부 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의 교과서가 단일 종으로 되어 있으며,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료가 미흡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및 내용, 교과서 및 생활 기록부 양식 등과의 불일치, 시간(단위) 배당 기준의 지나친 경직성, 교육 내용 및 방법의 획일성,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의 제한은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주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국민학교 저학년의 통합 교육과정 구성과 전 학년에 걸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교육 내용의 지역화 운영, 고등학교 단위 배당에 있어서 기준 단위제의 도입, 중·고교 교과서 편찬 시 학습량의 기준 제시 등은 이와 같은 교육과정 효율성 제고의 측면을 중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6개 항목의 포괄적인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 ①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보건과 안전에 대한 바른 습관을 가지게 한다.
- ②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지게 한다.
- ③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자기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④ 자연과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탐구,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⑤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꿀 줄 알며, 경험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⑥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길러,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게 한다.

위와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제4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수정, 보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둘째,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급 학교의 성격에 따라 교육 목표를 보다 명료화시킨다.

셋째, 우리나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이고 건강한 인간상에 기초한 역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다.

넷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에 교육 목표의 일관성과 계열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다섯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여섯째, 학생의 심신 발달과 교육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한다.

일곱째, 교과 활동 및 특별 활동의 학습 내용과 경험을 선정하고 지도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제5차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는 고시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 목표와 편제, 각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교육과정의 전문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 ①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과 목적
- ②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이 주력해 온 점
- ③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 ④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 특성, 인간상
- ⑤ 기대하는 인간상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역점 사항

이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나타난 교육 이념과 미래 사회의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립한 것으로서,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① 기초 교육의 충실, ②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③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강조,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네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따라서 편제와 시간 배당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① 1, 2학년에 있어서 통합 교과 신설
- ② 통합 교과서에서 1, 2학년 국어, 산수의 분과 독립
- ③ 연간 수업 시간 수의 증가
- ④ 주당 수업 시간 수의 합리적 조정 운영
- ⑤ 특별 활동 시간 운영의 현실화

그 밖에도 국어 교과서의 언어 기능별 독립 교재 편찬에 따른 시간 배당,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발간·보급에 따른 활용 시간 조절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 함께 인간 교육의 실현, 아동의 발달 수준 고려, 교과 내용상의 중복 해소, 교육과정의 합리성 제고,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 등의 측면에서 통합 교육과정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통합 교과를 신설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비록 1, 2학년으로 한정되었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분과 구성되어 있으면서 교과서만 통합되어 있던 것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수리 기능을 체계적,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국어’와 ‘산수’는 통합 교과서에서 분리, 독립시키고, 나머지 교과를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 등의 통합 교과를 신설하여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간, 학기 간, 주간 및 일일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주당 시간은 평균 시수인 점에서 고정적·확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 개발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즉, 국민학교의 전 과정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셈하기의 지도를 철저히 하여, 기초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언어, 수리, 사고, 탐구·관찰 능력 신장 자료를 개발, 보급하게 되었다.

특히, ‘1교과 1교과서’라는 종래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교과에 따라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개발,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용 도서 개발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될 만하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로 가르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교과서를 절대적 권위의 원천으로 보던 시대는 지났으며, 교과서는 학습을 위한 도구, 즉 하나의 교육과정 자료집으로 보게 되었다.

국어 교과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세 종류로서 언어 기능별로 편찬되어 모두 주 교과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바른 생활’이나 ‘도덕’의 ‘생활의 길잡이’는 도덕적 판단,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철학 교재 또는 생각하는 읽을거리나 자료를 제공해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산수의 ‘산수 익힘책’은 보충·심화 또는 워크북이나 배움책의 구실을 하며, ‘슬기로운 생활’과 자연의 ‘관찰’, ‘실험·관찰’은 자연 현상의 탐구, 해결을 위한 최저 필수 학습 요소(minimum essential)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학습의 효율화를 위해 지도 교사 재량으로 보충 교재나 심화 발전 교재를 만들어 온 것을 국가수준에서 대폭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재의 다양화와 풍부화는 교육 내용의 양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재와 학습 자료의 보충·지원을 의미하므로 교수·학습 방법의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의 교과 활동의 평가 결과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문교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법정 장부인 ‘생활 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란에 기재하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 평가의 본질을 찾고자 한 조치라고 하겠다.

평가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 교과의 특성이나 평가의 대상에 따라 지필 검사, 누가 관찰 기록, 질문지법, 실기 평가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총괄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후속 지도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을 ‘학생의 활동 상황과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고친 이유는 수량적 평가 기술에 따른 점수화, 서열화의 경향을 지양하고, 학생의 장점을 찾아 문장 서술식으로 평가, 기록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특징할 만한 변화라 하겠다.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 설치·운영의 유의 사항을 최초로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명시하게 된 점도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은 이원적 구조로 제시하여, 1, 2학년의 교과 구조를 명확히 하였다.

<표 II-9>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87. 6. 30.)

구 분 \ 학 년		1학년		2학년
교과 활동	국 어	우리들은 1학년 70	210(7)	238(7)
	산 수		120(4)	136(4)
	바 른 생 활		120(4)	136(4)
	슬기로운 생활		60(2)	68(2)
	즐거운 생활		180(6)	238(6)
특 별 활 동		*30(1)		*34(1)
계		790(24)		850(25)

<표 계속>

구 분 \ 학 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활동	도 덕	68(2)	68(2)	68(2)	68(2)
	국 어	238(7)	204(6)	204(6)	204(6)
	사 회	102(3)	102(3)	136(4)	136(4)
	산 수	136(4)	136(4)	170(5)	170(5)
	자 연	102(3)	136(4)	136(4)	136(4)
	체 육	102(3)	102(3)	102(3)	102(3)
	음 악	68(2)	68(2)	68(2)	68(2)
	미 술	68(2)	68(2)	68(2)	68(2)
	실 과		68(2)	68(2)	68(2)
특 별 활 동		68(2)	68(2)	68(2)	68(2)
계		952(28)	1,020(30)	1,088(32)	1,088(32)

(출처) :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7. 6 30., pp.4~5.

8.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우리나라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 권한을 확대한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지방·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1992년 9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6호로 개정된 것이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이었다.

시대적·학문적·개인적인 변화와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이 그 목적이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체제를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 그 핵심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단위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하여 문서화된 교육과정의 법규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⁴⁷⁾

가. 개정의 경과

제6차 교육과정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점에서 특별한 시대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기초·보통 교육의 교육 내용면에서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990년 3월부터 교육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준비 단계에서 우선 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 및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 6월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연구책임자: 동국대 교수 한명회)를 구성하여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총론 개정안 연구를 위탁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에서 수행한 기초 연구는 39명의 학자·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교육부 편수 담당자 43명, 현장 교원 411명, 교수 41명, 기타 전문가 26명 등 총 521명의 협의·자문진이 참여해서 1991년 11월까지 계속되었다.

기초 연구 및 총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전국 초·중등 교원 대표 세미나(230명 참가), 전국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2회 112교),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530명 참가), TV 공개 토론회(3회), 신문지상 토론 및 보도(126회), 총론 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조사(시·도 교육청, 교원 양성 대학, 연구기관, 연구학교 관련 학회 등 60개 기관)가 실시되어 각계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가 개정 연구에 참여하였고,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시안 및 개발 과정이 자세히 공개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다. 총론 개정 시안은 다시 교육 전문가, 교육 행정가,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하게 심의되었다(학교별 소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 16개 위원회, 심의 위원 361명, 2회 심의 실시).

심의를 마친 시안은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현장 교원 등과의 합동 집중 작업, 교육부 편수 담당자의 최종 집중 작업을 거쳐 1991년 12월 28일에 제6차 교육과정의 총론으로 먼저 확정되었다.

다음으로, 교과별 교육과정(각론) 개정 연구는 제1차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전

47)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이 교육과정은 국민학교의 교육 목적(교육법 제30조) 및 교육 목표(교육법 제94조)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이다.
- ② 이 교육과정은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1987. 6. 30.)을 개정한 것으로, 전국의 국민학교에서 1995학년도부터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③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편성·운영 지침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호에 의거,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하여 시행한다.

통적 기본 교과에 대한 개정 연구가 1991년 5월에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되었다. 기본 교과의 각론 개정 연구가 총론 확정 이전에 위탁된 것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귀납형과 연역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로서 교과 편제 연구에 교육과정 전문가와 교과 교육 전문가의 상호 작용과 협동 연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배려였다. 이러한 5개의 기본 교과 외에 기타 교과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수산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각 교과 교육 전문 연구기관(12개 기관)에 1991년 10월에 개정 연구를 위탁하여 1992년 4월말까지 추진되었다. 교과별 각론 개정 연구에는 교수, 연구원, 현장 교원, 교육부 편수 담당자 등 550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협의진 1,218명, 자문진 178명을 합해 1,946명의 교과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개정 연구 결과를 접수하여, 1992년 5월부터 10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23분과, 2,930명 참가)를 실시하였고,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개정 시안을 송부하여 검토 의견(179개교, 8,134명 검토)을 종합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 관련 기관, 단체 등 91개 기관에도 개정 시안을 보내 검토를 의뢰하였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교과별로 구성된 교육과정 심의회(159개 위원회, 심의 위원 2,512명)에 개정안을 회부하여 2~3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병행하였다. 전문적인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교과 교육 전문가 및 현장 교원(769명)의 합동 집중작업을 거쳐 수정·보완한 후, 다시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최종 정리 작업을 했으며, 수정·보완된 개정안은 다시 교육과정 심의회(학교급별 소위, 운영위)에 회부되어 최종 심의를 거쳐 보완되었다. 최종 심의를 거쳐 보완된 교육과정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및 국민학교 교육과정 관계자의 종합 검토회(1992. 9. 4.)와 각 시·도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관계자의 검토회(1992. 9. 17.)를 가졌다.

이상과 같은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검토, 수정, 보완 정리 작업을 거쳐 '92. 6. 30에는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1호)을 고시하였고, '92. 9. 30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5호)과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6호)을 고시했으며, '92. 10. 30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9호)의 고시를 끝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개정된 국민학교 제6차 교육과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는 1, 2학년, 1996년 3월 1일부터는 3, 4학년, 1997년 3월 1일부터는 5, 6학년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교과서와 지도서 등의 교과용 도서 개발에도 착수하게 되었다.

나. 구성 방침

제6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에 적합한 현실적 접근을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 패러다임을 택하여 제반 이론의 절충적, 종합적 입장으로 접근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교육법에 의거하여 문서로 고시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⁴⁸⁾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교육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한다. 특히, 교육 내용은 지식과 그것을 조직하는 사고의 양식, 생활 경험, 공동체 경험을 포함하며, 방법은 구체적 교수·학습 과정을 의미하므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관련 요인들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본다.”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설정되었다. ‘건강한 사람’이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은 개인과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자주적인 사람’이란, 주체적 자아의식을 지니고, 개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인식하는 사람을 말한다. ‘창의적인 사람’이란, 새로운 생각을 해 내는 사고력과 함께 그것을 실천에 옮겨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해 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도덕적인 사람’이란, 분명한 가치 체계와 판단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관용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셋째,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넷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간상과 구성 방침을 토대로 한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 네 가지로 설정되었다.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던 체제를 조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48)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I),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3), p. 7.

재량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교과목 체계의 개선으로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줄였다.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고 학습과 생활의 기초 능력을 신장하며,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 활동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에만 그 의의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의 공통적·일반적·표준적·대강적·요강적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특성과 실정, 필요, 요구는 물론이고, 각 학교의 특성, 학생·학부모·교원의 요구, 그리고 각 지역의 교육 기반 등의 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일선 학교가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도,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급 학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당해 학교의 학생 실태,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구성, 학교의 시설, 지역 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상세화하고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실용성 있게 구성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교육과정 진술 체계를 대폭 쇄신하였다.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제시된 제5차 교육과정의 교과별 체계를 바꾸어, 각 교과목별 성격을 분명히 밝혔고, 내용 체계를 새로 일목 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학년 목표를 폐지하고, 지도 방법과 평가의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과서 중심 학교교육’을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으로 전환하여 의도된 교육과 실현된 교육을 접근시킴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적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제6차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과와 특별 활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① 교육과정의 성격, ②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③ 편제, ④ 시간 배당 기준, ⑤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와 특별 활동에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등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교육법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6차 교육과정에는 국민학교의 교육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

<표 II-10>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1992. 9. 30.)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 덕	바른 생활 60	68	34	34	34	34
	국 어	210	238	238	204	204	204
	수 학	120	136	136	136	170	170
	사 회	즐거로운 생활		102	102	136	136
	자 연	120	136	102	136	136	136
	체 육	즐거로운 생활		102	102	102	102
	음 악			68	68	68	68
	미 술	180	238	68	68	68	68
	실 과	-	-	34	34	34	34
	특 별 활 동	30	34	34	68	68	68
학교 재량 시간		-	-	34	34	34	34
연간수업시간수		790(70)	850	952	986	1,054	1,054

- ① 이 표의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입(1학년은 30주로 함).
 ② 1단위 시간은 40분을 원칙으로 함.
 ③ 1학년 연간 수업 시간 수 790시간 중 (70)시간은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3월)에 배당하여야 함.
 (출처) :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92. 9. 30., p. 2.

<표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학교 재량 시간의 신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역화,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이다. 1, 2학년의 교과는 바른 생활, 국어, 수학, 즐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하고,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우리들은 1학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재 개발은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였다. 3~6학년의 교과는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교과로 하였다. 각 학년별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34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만 제시한 것은 학교에서의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에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구분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였고, 평가와 기타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도 제시하였다.⁴⁹⁾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으며,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 학습 과제를 많이 제시하여 어린 시절부터 소집단 활동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한 점이 특색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교육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바른 생활과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천 위주의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교육은 1, 2학년의 바른 생활뿐만 아니라 3학년부터 도덕과 및 특별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의 전체 생활에 걸쳐 습관화되도록 강조하였다.

둘째, 저학년의 통합 교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1, 2학년의 통합 교과는 유치원 교육과 연계를 중시하면서 3학년의 교과 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개정하였다. 이전 교육과정기에서 도덕과 사회 요소를 포함하여 통합한 것과는 달리, 개정된 ‘바른 생활’과에서는 사회 요소를 ‘즐거로운 생활’로 편입시키고, 저학년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 예절, 기본 생활 습관, 공중 도덕, 안전 교육, 환경 교육 등이 각 영역에 통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새로운 교과로 구성하였다.

‘즐거로운 생활’은 주변의 여러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사회 및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즐겁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주는 새로운 교과로 구성하였다. 이것을 통해 사회와 자연 분야에서 국민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요 개념과 탐구 과정, 생활 규범, 노작, 공작 등과 관련된 요소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3학년의 자연, 사회, 실과 등의 교과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우리들은 1학년’은 국가수준에서 그 목표와 내용을 확일적으로 제시한 테서 벗어나, 지역별로 신입생들의 생활 경험, 성장 배경, 능력 수준, 지역 실정,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생활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알맞게 구성하도록 내용 구성 및 운영권을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였다.

셋째, 고학년의 수업 시간을 감축하였다.

49)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① 지역의 특수성, 학교·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의 반영 및 이에 따른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교과와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교과와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④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 및 학교 재량 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 자료에 관한 사항
- ⑥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⑦ 특수아 교육에 관한 사항
- ⑧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 ⑨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필요한 사항

4, 5, 6학년의 수업 시간은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하였다. 4학년은 주당 수업 시간을 30시간에서 29시간으로 1시간 감축하였고, 5~6학년의 주당 수업 시간을 32시간에서 31시간으로 각각 1시간씩 감축하였다.

넷째,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태도 교육을 강화하였다.

실과 교육을 농업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바꾸고, 컴퓨터 영역을 추가하여 실용성을 추구하였으나 일상 생활과 밀착된 노작 활동과 실천적 학습을 통하여 현대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생활 기능 교과로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4~6학년에서 주당 2시간씩 배당된 것을 1시간씩으로 축소하는 대신 3학년부터 이수하도록 확대하고, 그 내용면에서도 노작 활동과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전면적 개정을 하였다. 또한, 1, 2학년에서는 즐거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 등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그 밖의 학년은 자연, 미술,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을 활용하며, 특히 기르기 영역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교육 현장에 부여하여 학교생활 전반에서 실천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교 재량 시간을 신설하였다.

지역 실정에 알맞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거나, 교재(교과서)를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은 물론, 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교 재량 시간은 당해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되는 시간이나, ① 편제에 제시된 교과의 보충·심화 시간, ② 특별 활동의 보충·심화 시간, ③ 지역 특성, 학교 실정, 학생 요구에 알맞은 교육 내용과 활동을 실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

여섯째, 산수를 수학과로 교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오늘날의 수학은 수학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도 수학(mathematics)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즉, 계산 중심의 지도 내용에서 논리·수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변화하는 수학 교육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교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라. 부분 개정

세계화 및 교육 개혁의 시대적 요청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전국의 국민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교육과정 중 총론의 내용을 부분 개정하고, 최초로 국민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제정하게 되었다.⁵⁰⁾ 제6차 교육과정의 첫 시행 연도인 1995년 3월부터 초등 영어

50) 국민학교에서의 영어 교과 신설에 따른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된 바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갖춘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함양에 필수적이라는 국가·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어 교과를 도입하게 되었다.

교육 시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부분 개정 기초 연구, 공청회,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심의·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1995년 11월 1일 교육부 고시 제1995-7호로 제6차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 고시하였다. 부분 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영어를 정규 교과로 신설하고, 3·4·5·6학년에 주당 평균 2시간의 수업 시간을 배당하여 1997학년도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초등학교의 교과는 10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처음 제정된 국민학교 영어 교육은 기초적인 생활 영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 신장을 목표로,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음성 언어 교육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문자 교육은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지도하되, 저학년에서는 문자 인식 수준으로 제한하고, 고학년에서는 음성 표현의 이해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서 문어적 표현을 다루게 하였다. 어휘는 총 500낱말 내외의 이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놀이 중심의 학습 활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어 교과의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이 기초적인 생활 영어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영어 교과서는 창의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2종 도서(검정)로 개발하기로 확정하였으며, 1995년 11월 25일 검정 공고를 한 후, 1996년 10월에는 12종류의 검정 교과서가 합격하여 1997년 3월부터 3학년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학교에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 것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의사소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199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국민학교 영어 교육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교원 양성·연수 및 전담 교사 배치,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 조성과 교육 투자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찬성의 근거>

- ① 국가 사회적 필요 :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 ② 개인적 필요 : 외국어 실력은 개인 기업, 국가 발전에 필수적임[* 코리아 리서치('95년 2월): 88%]
- ③ 국민적 여론에 부응해야 할 필요 : 정규 교과화에 찬성 68%(코리아 리서치, '95년 2월), 정규 교과화에 찬성 80%(한국교육개발원, '95년 2월)
- ④ 현행 영어 교육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국가적 낭비의 심각성을 최소화할 필요 : '95. 5월 약 90%의 국민학교에서 영어교육 실시
- ⑤ 도시·농촌 간 학력(영어) 격차의 심화 현상을 최소화할 필요
- ⑥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필요
- ⑦ 조기 영어 교육의 세계적 현상에 부응

<반대의 근거>

- ① 문화 사대주의와 가치관의 혼란 초래
- ② 국민학교 기초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 약화
- ③ 영어 외의 타 교과목 학습의 소홀
- ④ 교사의 교수 부담과 학생의 학습 부담 증대
- ⑤ 초등 교육 전반, 기존 중등 영어 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 여건상의 차질 발생
- ⑥ 대도시와 농·어촌 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교육 격차 발생
- ⑦ 영어 과열 과외 초래
- ⑧ 외국어로서 영어(EFL)를 학습하는 상황에서의 조기 영어 교육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
- ⑨ 교원 수급, 교재 개발, 시설·설비 등의 문제점 발생

<표 II-11> 제6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95. 11. 1.)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 덕	바른 생활 60 68		34	34	34	34
	국 어	210	238	238	204	204	204
	수 학	120	136	136	136	170	170
	사 회	즐거로운 생활 120 136		102	102	136	136
	자 연	120	136	102	136	136	136
	체 육	즐거운 생활 180 238		102	102	102	102
	음 악			68	68	68	68
	미 술	180	238	68	68	68	68
	실 과	-	-	34	34	34	34
	영 어	-	-	68	68	68	68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학교 재량 시간		-	-	0~34	0~34	0~34	0~34
연간수업시간수		790(70)	850	986~1,020	1,020~1,054	1,088~1,122	1,088~1,122

- ① 이 표의 시간 수는 34 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입(1학년의 교과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임).
- ② 1단위 시간은 40 분을 원칙으로 함.
- ③ 1학년 연간 수업 시간 790시간 중 (70)시간은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3월)에 배당하여야 함.
- ④ 영어 교과는 1997 학년도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함.
- ⑤ 학교 재량 시간에 배당된 0~34는 학년별 연간 최소 시간 수가 0 또는 34시간을 의미함.
- (출처) : 교육부 고시 제1995-7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95. 11. 1., p.2.

9.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⁵¹⁾

가. 개정의 배경⁵²⁾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51)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경환, 박제윤, 권영민(2002)의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pp. 154~203에서 초등학교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52) 교육부,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수 자료, 1998. pp. 3~6.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교육 체제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①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②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③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전을 교육과정 개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육 개혁 위원회 내에 「교육과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 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골격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는 1996년 2월 9일에 교육 개혁 과제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제시하였고, 세부 개정 지침으로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 설정’ 등 신교육과정 편제 도입, ②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③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독서 교육 강화’, ‘교과 교육에서의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강화’, ‘평가 방법의 개선’ 등 교육과정 각론 개발의 주요 지침, ④ ‘선택 과목 도입에 따른 수능 제도의 개선’,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 확대 및 교과서의 질 제고’, ‘다양한 교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교사 연수 강화’, ‘학교 환경 및 시설의 개선’ 등 지원 체제 확립을 제시하였다.⁵³⁾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는 세계화·정보화·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 전망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 온 교육 내용 전반에 걸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개혁을 요구하였고,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부는 1996년 3월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체제·구조 개선 기초 연구,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정 요구 조사,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⁵⁴⁾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53)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Ⅱ)’, 1996. 2. 9. 제3차 대통령 보고서, pp. 38~52.

54)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에서 1996년에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제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구 조사’, ‘통합 교과의 교육과정·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1996) 위탁 과제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수준별 교육과정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특수목적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현장 검토, 심의 과정을 거쳐, 1997년 2월 28일에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교육과정 편제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등 14개 기관에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였으며, 각종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현장 검토, 심의 및 수정·보완을 거쳐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학교 현장 및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2년간 교육과정 전문가, 대학 교수,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연인원 14,332명이 참여하였고, 연 228회의 각종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교육과정 심의회 내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한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적합성과 아울러 학교 현장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는가가 교육 목표 실현에 더욱 중요한 변인이 되었다.

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하에 제7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표방하였다.⁵⁵⁾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을 바

의 127개 소위원회에 1,786명의 심의 위원이 참여하였다.

55) 이경환,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개정’, 교육부 ‘교육월보’, 1997. 4월호, pp. 68~70 및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방향, 교육진흥 제36호, pp. 8~11.

꾸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기본 교과 중심의 일관성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의 10개 교과로 구성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편제에 과목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교과 편제에 과목군 개념을 도입하여 10개의 기본 교과를 5개의 과목군으로 분류하였다. 과목군의 도입은 동일 과목군 내에서 과목 간의 중복이나 비약을 예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통합 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할 때 특정 교과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진로에 따른 과정 안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의 특징 또는 교과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그리고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넷째, 재량 활동을 신설, 확대하였다. 재량 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였다. 국가와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과별 교육 목표 성취의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창의성과 정보 능력 배양을 강조하였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컴퓨터 교육 내용을 모든 교육 활동에서 강화하도록 하였다.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 및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컴퓨터 교육 내용을 다루고, 중학교 선택 과목으로 ‘컴퓨터’를,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정보 사회와 컴퓨터’를 개설하였다.

다. 구성 방침

(1)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⁵⁶⁾

“이 교육과정은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2) 추구하는 인간상과 초등학교 교육 목표

이상과 같은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56)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1997. 12. 30.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교육 목적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마.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라.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1) 편제의 특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특히, 학습 활동에서 실험, 관찰, 조사, 수집, 토론, 견학, 노작 등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기본예절, 질서, 청결, 절제, 준법, 공중도덕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도록 강화한 점이 특색이다. 초등학교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II-12> 참조).

첫째, 기본적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력과 창의성, 기본 생활 습관 등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강조하였다.

둘째, 1, 2학년의 통합 교과 운영은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개념에서 탈피하여 활동 중심 주제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교과 개념을 재정립하고, 열린 교육 체제를 확립하였다.

셋째,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과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간의 교과 수의 격차를 없애고, 교수·학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3, 4학년은 9개 교과로 편성하였다.

넷째, 실습중심의 실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과 시간을 5, 6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였다.

다섯째,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 내용을 선정·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별 최소 수업 시간 수를 전반적으로 감축 조정하여 교수·학습 부담을 경감시켰다.

여섯째, 교과별 및 영역의 명칭과 편제의 교과 제시 순서를 학년제와 과목군 개념 도입에 따라 학교급별로 일관성 있게 조정하였다. ‘자연’과 ‘영어’ 교과는 ‘과학’과 ‘외국어(영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일곱째,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재량 활동을 확대하였다. 6차 교육과정에서 3~6학년에 주당 평균 0 또는 1시간으로 배정되었던 ‘학교재량시간’을 ‘재량 활동’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 2학년에서는 주당 평균 2시간을 신설하고, 3~6학년은 주당 평균 2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역과 학교, 학생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여덟째, 특별 활동은 6차 교육과정에서 학급, 학교, 클럽 활동 등 집단 중심으로 영역을 설정한 것과 달리, 활동내용 중심으로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별 활동 내용은 ‘예시적 기준’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에 적합한 활동 내용을 학교에서 선정·재구성하도록 하였다.

<표 II-12>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학 교	초 등 학 교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 과	국 어		국 210 어 238		238	204	204	204
	도 덕				34	34	34	34
	사 회		수 120 학 136		102	102	102	102
	수 학				136	136	136	136
	과 학		바른 60 생활 68		102	102	102	102
	실 과		즐거 90 로운 102 생활		·	·	68	68
	체 육		즐거 180 운 204 생활		102	102	102	102
	음 악				68	68	68	68
	미 술				68	68	68	68
	외국어 (영어)		우리 80 들은 · 1학년		34	34	68	68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 수업 시간 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1.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2.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3.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2) 운영상의 특징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의 역할 분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정권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지역 교육청과 교사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1) 시·도 교육청의 역할 증대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지침 작성 시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고,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였다.

2) 지역 교육청의 역할 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교육청에도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였고, 특히 지역 교육청은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관내 학교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3) 학교의 역할 증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에 따라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실천 중심 장학 자료 등을 근거로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적절한 실행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자 상세한 교육 운영 세부 시행 계획이다. 학교 교육 과정에는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과 방법, 특색있는 운영 방안이 나타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4) 교사의 역할 중시

학교 현장에 주어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는 교사의 역할 정도에 달렸다. 교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

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실천 중심 장학 자료, 당해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담당 교과의 연간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따른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결국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의 연간 교수·학습 계획에 따라 구체화되어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차별화,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자주적 생활 능력과 평생 학습의 태세를 갖춘 유능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주요 관점은 “가장 좋은 교육은 학생의 개인차가 충실히 고려되는 교육이며, 교육의 개별화는 교육 선진 정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학생들의 잠재능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 특성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 등 세 가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초등학교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과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습 내용을 6단계로 단계화하며,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각 하위 단계는 심화·보충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본 교육 내용과 심화 내용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 국어, 사회, 과학, 초등 영어 교과에 적용하되 국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초등 영어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하도록 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등학교의 학습 집단 편성은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재량 활동의 신설·확대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 재량 활동은 1, 2학년에서는 신설되었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확대됨으로써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 재량권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은 크게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되어,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재량 활동 수업 시수는 학년별 연간 68시간(1학년은 60시간)이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⁵⁷⁾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재량 활동의 운영은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⁵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특히,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정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과에서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의 시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른 창의적 재량 활동에 증배, 활용하되, 감축된 교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체험 활동 등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 특별히 강조된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학교 수준에 분담된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국가 수준

○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수준

○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할 때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 지역 교육청에서는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때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57)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하게 되는 학습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되, 교사의 지도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과제에 따른 탐구와 해결을 자신의 힘으로 전개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58) 범교과 학습이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가운데 학교와 교사,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범교과 학습의 영역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도할 영역의 선정은 학교 실정, 사회적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함으로써 학교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단위 학교 수준

-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마. 수시 개정 체제에 의한 부분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전환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기의 부분 개정은 2004년, 2005년, 2006년에 걸쳐 세 차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2004년과 2005년의 부분 개정은 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도 관련되는 부분 개정은 2006년에 이루어진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위한 3차 부분 개정으로서, 교육부 고시 제2006-75호로 2006년 8월 29일에 고시되었다. 그 결과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문서 가운데 제1장의 '4.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의 제2장 '1. 수학' 부분, 【별책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의 제2장 '1. 영어의 내용'이 부분 개정되었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 참조).

10.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이 장은 앞서 언급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교수 요목 시기 (1946~1954)	· 국민학교 교수 요목	· 1946. 9. 1. 시달	· 1946. 9. 1.	○ 교수 요목 :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 - 교과(8) : 국어, 사회생활, 이과, 산수, 보건, 음악, 미술, 가사 - 교육법(1949. 12. 31.) 제1조 : 홍익 인간의 교육 이념
제1차 교육과정 시기 (1954~1963)	· 문교부령 제35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 1954. 4. 20. 제정 공포	· 1954학년도	○ 교육과정 : "각 학교의 교과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 - 편제 : 교과, 특별 활동 - 교과 수 : 8교과(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보건, 음악, 미술, 실과) -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 학년별 백분율로 표시(연간 35주 기준) - 1시간 단위 수업 : 40분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령 제44호 ‘국민학교 교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 8. 1. 제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교과의 ‘교과 과정’ 제시 - 교과별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 -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강조
제2차 교육과정 시기 (1963~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령 제11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2. 15. 개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6. 3. 1. - 1, 2학년 • 1965. 3. 1. - 3, 4학년 • 1966. 3. 1. - 5,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경험)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 -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의 강조 - 편제 :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 - 교과 수 : 8 교과(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실과) - 연간 35주 기준, 1시간의 수업 40분 단위 - 주당 수업 시간량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령 제251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 9. 4. 부분 개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 3. 1. 전학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교육현장 이념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공·도덕, 특별 활동의 강화 : 수업 시간 증배 - 특별 활동의 내용 보완 : 학급회, 아동회, 클럽 활동
제3차 교육과정 시기 (1973~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령 제310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 2. 14. 개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 3. 1. -1, 2, 3학년 -전 학년 사회과 • 1974. 3. 1. -4, 5,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시 ○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 자아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 편제 : 교과 활동, 특별 활동 - 교과 수 : 9교과(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 도덕 교과 신설 - 국사 교육의 강화 - 35주 기준 연간 수업 시간 수 제시 - 1시간의 수업 : 40분 또는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고시 제424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 3. 1.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문서 결정 체제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령(법규 문서)으로 공포되는 교육과정을 문교부 고시(공고 문서) 형태로 개선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부분 개선의 필요에 대처 - 주당 수업 시간량 제시

II.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제4차 교육과정 시기 (1981~1987)	· 문교부 고시 제442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 1981. 12. 31. 개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 3. 1. -1, 2, 3학년 -전 학년 도덕과, 사회과 · 1983. 3. 1. -4, 5,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교육 사조와 이론의 지배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 - 교과, 경험, 학문 중심 교육 사조의 균형, 조화 - 교육과정 :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심신의 육성 - 지력과 기술의 배양 -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 교육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제 : 교과 활동, 특별 활동 - 교과 수 : 9교과 - 통합 교과서에 의한 교과의 통합적 운영(1, 2학년) - ‘다교과 1교과서’ 체제 - 34주 기준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 제시 - 1시간의 수업 : 40분
제5차 교육과정 시기 (1987~1992)	·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 1987. 6. 30. 개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 3. 1. -1, 2, 3학년 · 1990. 3. 1. -4, 5,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익인간의 이념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체제·구조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교육 목표, 편제, 시간 배당 - 운영 지침 : 계획, 지도, 평가, 기타 -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목표, 내용 유의점 ○ 통합 교육과정의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제 : 교과 활동, 특별 활동 - 1, 2학년 교과 : 국어, 산수,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5~6교과) - 3~6학년 교과 :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9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 개발, 보급 : '1 교과 다 교과서' 체제 - 평가 결과 기록 방법 개선 : 1, 2학년 문장 기술
제6차 교육과정 시기 (1992~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 9. 30. 개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 3. 1. - 1, 2학년 • 1990. 3. 1. - 3, 4학년 • 1997. 3. 1. - 5,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 ○ 교육과정 개정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 시·도 :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학교 : 학교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 육성 -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 개발 -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 다양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 강화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중심→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 - 학교 재량 시간의 신설 -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의 교육과정, 교재 편찬 : 시·도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제1995-7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 11. 1. 부분 개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과 교육과정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 1997. 3. 1. - 4학년 : 1998. 3. 1. - 5학년 : 1999. 3. 1. - 6학년 : 2000.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교과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4, 5, 6학년 : 연간 최소 68시간 - 목표 : 기초적인 생활 영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 신장 - 교육 내용 :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음성 언어 교육 - 어휘 : 총 500 낱말 내외 이수 - 놀이 중심의 학습 활동 강조 - 교과서 개발 : 2종 도서(검정)

II.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제7차 교육과정 시기 (1997~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12. 30. 개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 3. 1. - 1, 2학년 2001. 3. 1. - 3, 4학년 2002. 3. 1. - 5,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 ○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교육과정 개정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 고등학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 교과별 학습량 최적화, 수준 조정 -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고시 제2006-7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 8. 29 부분 개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수학 교육과정 시행 2009. 3. 1. - 1, 2학년 2010. 3. 1. - 3, 4학년 2011. 3. 1. - 5,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수업 권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형, 심화보충형이라는 유형 삭제 -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기본 학습 내용 정선 - 수준별 교육 관련 지침 대강화 - 수학, 영어 교과서 내실화

Ⅲ.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1. 개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국가·사회적 변화 및 학문의 발달, 학생을 비롯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요인에 대한 현실 진단과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당시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 기초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요인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진단한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를 들고 있다.⁵⁹⁾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개념에서 학년별 개념으로 전환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의 강화 등 획기적인 변화 및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교원 및 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 증가와 함께 애초 교육과정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 적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구체적인 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허경철 외, 2005; 박순경 외, 2006; 교육인적자원부, 2007).

첫째,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과 내용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7년 2월에 개정 고시된 새 교육과정은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에 고시되어 200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은 9년 정도의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고시 시점으로 볼 때 10년이 지난 것이다.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이 대략 5년 주기로 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주기상 새 교육과정은 개정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개정 주기상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기대가 개정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둘째, 과학·역사 교육 강화 등과 같은 국가 및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 교육과정의 시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사회, 문화적 요구가 제기

59) 교육부(1997).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p.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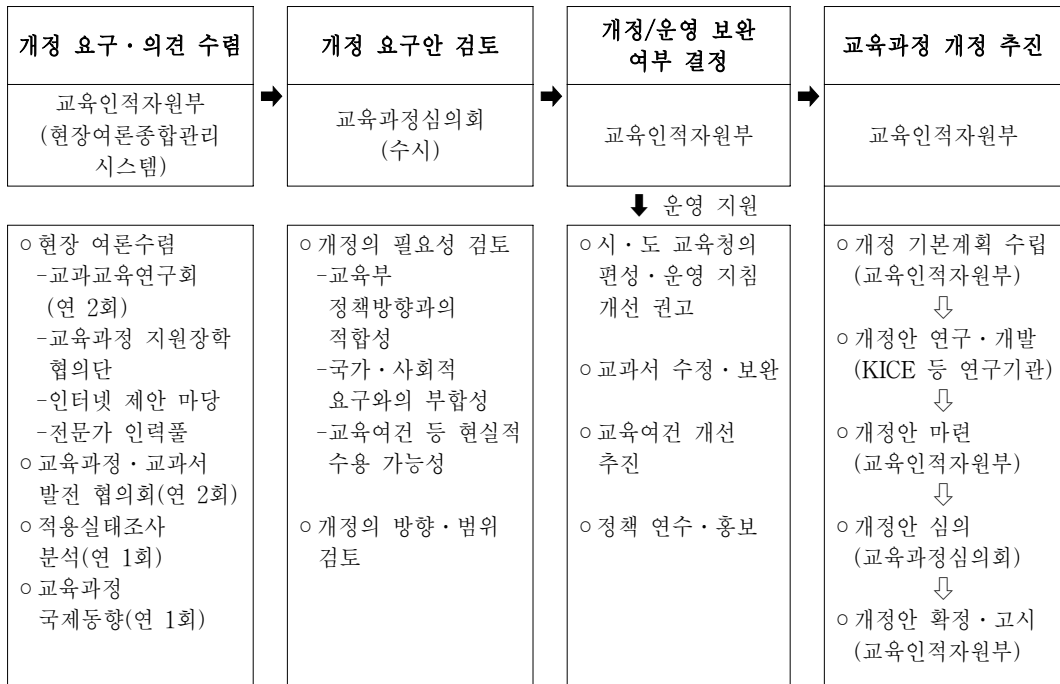
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각 부처와 위원회 등 관계 기관, 각종 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반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개정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의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재이수(유급) 및 월반 등이 교육 현장의 여건상 적용되기 어려웠으며, 학교별로 각 수준에 대한 학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도 과목군 및 과목에 따라 선택의 편중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반 선택과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폐단이 있었다.

넷째,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학교급별 수업 시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는 주5일 수업제 실시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배경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수시개정 체제는 종래의 주기적 및 일시적 개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10월에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2005년 2월부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새 교육과정은 이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⁶⁰⁾ 일시적·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사회의 다원화 및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시개정 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수시개정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수시개정의 절차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I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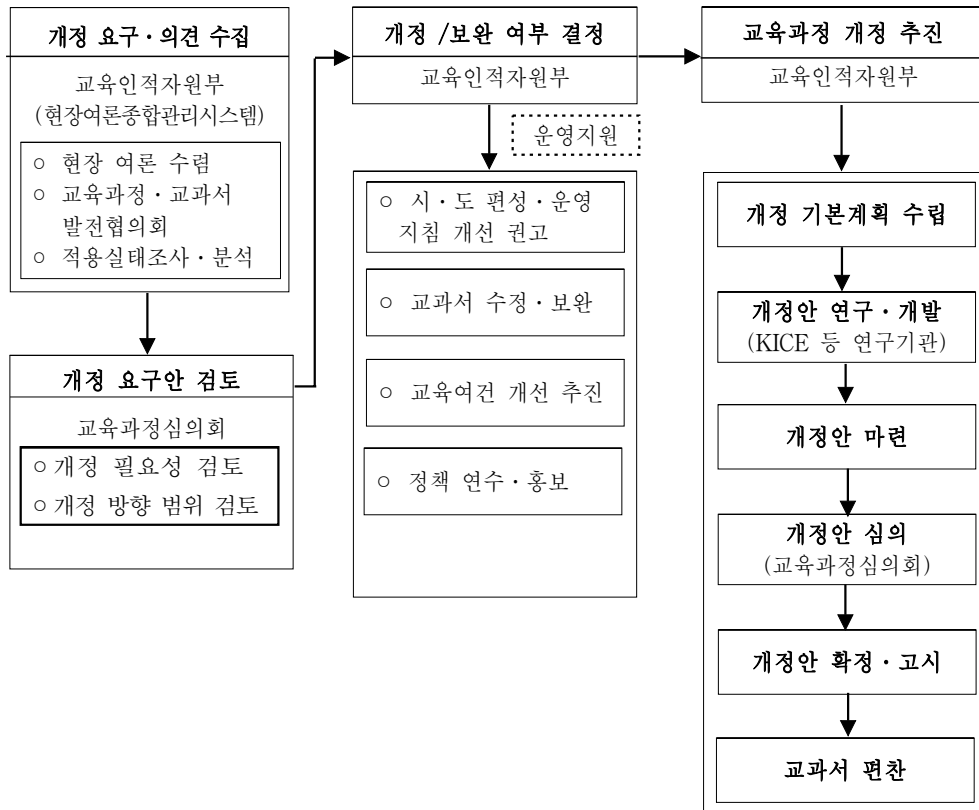
60) 2005년 2월 25일에 발표한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수시 개정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의 지속적 개선,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 체계적으로 반영,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정책 구현 및 교육 수요자 만족감 제고, 질 높은 교육과정의 산출로 말미암은 교육의 질 제고를 들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이전에도 2004년(2004.11.26.)에는 특목고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85호)을, 2005년(2005.12.28.)에는 공고 2·1체제 교육과정과 국사 교과 교육과정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5-10호)을, 또한, 2006(2006.8.29.)년에는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75호)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수시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III-1] 수시개정 체제에서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

새 교육과정에서는 수시개정 체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새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지향 방향과 철학, 체제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향후 우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수요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등의 관점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등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시 개정 체제에 따른 교과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둔 개정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그림 III-2]와 <표 III-1>과 같이 추진되었다.

Ⅲ.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그림 Ⅲ-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업무 추진 과정

<표 III-1>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정 경과

추진 내용	시기	담당	비고
○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 수립 - 관계 전문가와의 협의 및 종합 검토 - 실무 작업반 구성·운영 - 기본 계획 수립, 결재 - 개정안 연구 개발 위탁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 도입 계획 발표	2003. 10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 개정 요구 수립 -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운영 -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2004. 12 ~2006. 12 2005. 9 ~2006. 12	교육인적자원부	○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교육과정·교과서 개편 요구 ○ 교육과정 개정 요구 및 의견 수렴
○ 교육과정 개정 요구안 검토		교육과정심의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별 교육과정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	2004. 8~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4개 과제
○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 활성화 방안 발표	2005. 2. 25	교육인적자원부	
○ 실업계 및 기타계 전문교과, 특수학교 교육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	2005.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국민공통기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2005.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4개 과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교육과정개정연구 위원회’ 설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국민공통기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2005. 11~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Ⅲ.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국민공통기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2005. 4~5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국 총 3,760개 학교 교사 참여,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37개 참여,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참여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등 참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활용 각계 각층 의견 수렴
○ 영어·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심의회	2006. 5~7	교육과정심의회	
○ 영어·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2006.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영어·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2006. 7. 14	교육인적자원부	
○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학교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2006. 9~10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국 총 3,760개 학교 교사 참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활용 각계 각층 의견 수렴
○ 유치원과 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선택과목과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2006.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39개 과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2006.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3개 과제 ○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 연구 참여자 현황 - 연구진(8명), 교과 전문가 등(50명), 연구협력진(128명,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전문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혁신위원회, 초·중·고등학교 교사) 총 186명 참여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토론회	2006. 12. ~2007. 1.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 개정 시안 작성을 위한 집중 검토 협의회	2007. 1. 24~25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	2007. 1~2	교육과정심의회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	2007. 2. 28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2007. 3~		○ 학교급별·학년별 교과서 연차적 개발 및 교과서 상시 검정 체제
○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2007. 6~8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연구 개발(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2007. 4~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5개 과제
○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회	2007. 9. 14	교육인적자원부	
○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2007. 12. 19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특수학교 교육과정 고시	2008. 2. 26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연구 개발(선택 중심 교육과정)	2008. 4~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새 교육과정 적용 : - 2009. 3. : 초1,2 - 2010. 3 : 초3,4/중1 - 2011. 3 : 초5,6/중2/고1 - 2012. 3 : 중3/고2 - 2013. 3 : 고3 ※ 수학, 영어 교육과정 적용(2006. 8월 고시) - 2009. 3 : 초1,2/중1/고1 - 2010. 3 : 초3,4/중2/고2 - 2011. 3 : 초5,6/중3/고3	2009. 3 ~2013. 3		

2.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개정의 의미는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길러야 할 인간의 특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교육받은 인간의 특성을 교육적 인간상으로 표현한다면 교육과정 개정은 새로운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설계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적 인간상의 설정은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상황과 우리의 삶이 처한 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교육적 가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인교육이란 인간의 제 측면이 균형 있게 발달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말하며, 이는 홍익인간의 이념에서부터 제시되었던 것으로 우리의 교육적 인간상에서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기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길러야 할 인간의 모습으로는 전인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념, 전통의 계승과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가치들도 꾸준히 표방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새 교육과정의 인간상 설정에서도 수렴되어야 할 측면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갖춘 인간을 새로운 교육적 인간상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⁶¹⁾ 즉 21세기 다변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적 인간상은 일면적이고 경직된 인간상이기보다는 다면적이고 유연한 교육적 인간상으로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적 이상을 표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설정된 교육적 인간상은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이나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과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익인간의 이념에 포함된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과 민주시민의 자질, 인간다운 삶의 영위’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과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라는 국가적 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이바지’라는 세계적 차원의 이념은 새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으며, 교육 발전의 지표로서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1) 새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표방한 인간상과 동일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과 관련된 기초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교육적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연구’(1997)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을 견지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⁶²⁾

21세기 사회는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함께 포괄하는 균형 잡힌 인간을 필요로 한다.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개성을 추구해 나가는 인간,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인간,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하다. 각 인간상에서 표방하는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가치는 상호 대립적 특성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조화로운 교육적 인간상이다. 따라서 각 인간상에 제시된 요소 중의 어느 한 측면의 특징을 지닌 인간은 급변하는 미래의 다원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부적절하며, 인간상의 각 요소들의 특성을 함께 지닌 조화로운 인간이 필요하다. 미래의 열린 사회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시대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한 개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되,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양식도 형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은 주지주의 교육에 의한 폐해를 극복하고자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의 성장 경험을 특정한 발달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 발달의 전 영역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에서 전인성의 발달을 추구하는 것은 교육 내용을 지나치게 인지적인 측면으

62) 제7차 교육과정과 새 교육과정에서의 인간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표방해 온 교육적 인간상의 변천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로 제한하고 있는 편협한 교육관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성장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교육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새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우리의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추구하는, 즉 개성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을 추구하는 인간이란 자기다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살리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새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적인 인간상은 우선 지·덕·체가 모두 조화롭게 발달한 인간이며, 이는 전인적인 성장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양식을 형성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자신의 삶을 합리적으로 꾸려나가는 개성 있는 인간을 의미한다.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교육 선진국에서는 한결같이 인적자원 개발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은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능력으로 여전히 중요하다. 더욱이 21세기 다원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초 능력의 개념이 컴퓨터 사용 능력, 사회 및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탐구 능력 등과 같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와 세계은행(IBRD)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지식 중심 사회’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천 년(New millennium)’에 대비한 ‘지식 혁명’에 대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래 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앞으로 지식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전 국민이 지식으로 무장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그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전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아이디어나 개념, 데이터와 정보,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게 되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지식 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중웅 역, 2006). 따라서 21세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능력은 자신의 사고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의 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력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발현되기에, 학교 교육에서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함께 개방적인 사고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과 발상을 가능하게 해 주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초 능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으며,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기초·기본 능력을 토대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사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인간이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교양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직업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양 교육의 주된 목적은,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지식, 기능, 가치 등을 습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편협한 지식, 이데올로기나 편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이해의 지평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편협한 지식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인간, 교양인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런데 아무리 교양 있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직업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는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도 구성원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을 통해서 일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생산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인간은 생존의 수단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개척하고,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잠재 능력의 계발을 통한 자아실현이라고 볼 때, 교양 교육과 직업 교육은 상호 유사성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새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일 자체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진로 탐색과 개척 능력을 갖춘 인간이다. 폭넓은 교양과 직업적 능력을 갖춘 인간은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자아실현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이다.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전통은 특정한 민족이나 공동체만이 가진 독특하고 고유한 것으로서 많은 변화에 직면해서도 바뀌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오는 문화유산이다. 민족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현재를 힘차게 살아갈 정신을 갖추게 하려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긍심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력과 함께 그것을 실천에 옮겨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해 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독창성, 융통성,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능력과 변화하는 여건에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산출하고 생산해 내려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계승, 발전이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새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감과 동시에 인류 보편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긍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존재이다.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존엄한 인간 삶의 조건들을 부단히 재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즉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삶의 방법적 원리를 개방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적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은 그들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민주적 공동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민주적 공동체의 이상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육적 이상이다. 민주적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길러 내는 일이 민주적 공동체의 이상이다.

새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민주 시민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 자신의 부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간이다. 이는 교육 받은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이 민주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초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육 목표

가. 초등학교 교육의 성격⁶³⁾

초등학교 교육의 성격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교육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교육 사상과 제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지만, 어떠한 국가에서나 공통으로 강제적 성격을 지니며,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의무교육을 통한 국민의 교육권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그 균등한 배분을 실현해야 할 국가·사회적 책무이면서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무교육이란, 교육이 상층 계층의 전유물이거나 계층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사회 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법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공통적인 추세이며, 어느 교육 대상보다도 많은 교육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한 나라 국민의 기본 자질 수준이 어느 정도이나 하는 문제는 바로 그 국민의 수준이며, 그 국가의 수준에 직결되는 것이다. 또한, 한 나라의 국민이 동질성을 유지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동질의 문화와 생활 관습 속에서 동질의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연한은 9년이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음을 밝혀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를 보면,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육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의무인 동시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이며, 이는 초등학교 교육이 국민 기본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초등학교 교육은 민주 국가 국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기초교육이다.

기초교육은 보통교육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초적인 초등 보

63) 이 내용은 교육부(1998)의 「제7차 교육과정 해설(Ⅰ)-총론, 제량 활동-」 pp. 99-103과 고재천 외(2007)의 「초등학교 교사론」 pp. 16-18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의 교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교육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교육이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질과 소양을 길러 한 사회인으로서 국가·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아를 실현해 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과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를 보면,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의 성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법규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초등학교 교육은 건전하고 유능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개인, 사회, 국가 생활을 해 나가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신장하고, 나아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교육 내용의 기초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말한다. 이는 실용적, 생활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의 문화 활동을 바탕으로 이후의 모든 분야 학습을 위한 공통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육에서 흔히, “지식이나 암기력, 기억력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려면 지식, 기억력, 이해력 등이 기초인 동시에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려면 기본적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고력, 기초 체력 등을 바탕으로 탐구, 분석, 창의 등 차원 높은 정신 기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기초·기본 교육의 부실은 학생 개인 차원에서는 고등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되며,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 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갖는다.

셋째, 초등학교 교육은 후속하는 모든 학교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보통교육이다.

초등학교 교육은 최초 단계의 학교 교육이며, 이는 국민 누구나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일반교양을 습득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보통교육이다. 초등학교 교육은 ‘지(知)·정(情)·의(意)’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중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보통 교육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으로의 이행을 돕는 전이 단계 교육이고, 고등학교 교육은 장래 진로를 모색하고 적성을 발견, 계발하는 자아 발견과 진로 탐색에 주된 목적을 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학교 교육은 6·3·3·4 제도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연결되고 있다. 학교 교육 제도는 국가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 교육의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교육의 목적과 교육 기간,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종적으로는 교육 단계 간의 접속 관계를, 횡적으로는 학교 교육과 학교의 교육 기능, 그리고 교육 단계

내에서 교육과정 간의 연결 관계를 규정하며, 최소 필수 교육 수준을 국민에게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국민 교육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근원은 고려 시대의 서당 교육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나, 근대식 초등 교육은 1895년 칙령 제145호로 소학교령이 공포되면서부터 그 제도와 내용이 확립되었다. 2007년 11월 현재, 5,756개의 초등학교와, 461개의 분교, 3,829,998명의 학생, 167,182명의 교사, 취학률 88.0%(적령아동, 유예 및 과령아동, 조기입학신청자 포함), 중학교 진학률 99.9%, 학급당 수용 인원이 전국 평균 30.2명, 교원당 학생 수 전국 평균 22.9명인 초등학교 교육은 그 양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⁶⁴⁾, 특히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6~12세까지의 시기는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통교육으로, 후속되는 상급 학교 교육을 위해 전제되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육은 기초,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후속하는 모든 학교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게 되며, 그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후속하게 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능,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교육, 즉 공통적 보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초등학교 교육은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성장의 제 측면을 풍부하게 하는 전인교육이다.

어느 단계의 교육이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인교육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 교육은 특정한 발달 영역만을 강조하거나 심화시키는 편중 교육이나 준비 교육이 아니라,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도덕적 영역을 고르게 교육하여 학생이 전 생애를 통하여 인생을 풍부하게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초·기본 교육이어야 한다. 즉 초등학교 교육은 지(知)·정(情)·의(意)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기초 교육을 추구하면서,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의 자질로서 한국 국민의 바탕이 될 자주성의 발현, 인간 존중의 문화에 이바지할 도덕성의 함양, 국제 경쟁에 대응할 창의성의 신장에 중점을 두게 된다.

초등학교 교육은 원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형성하는 교육이며, 이러한 자질의 형성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적·정의적·신체적 제반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과 올바른 태도의 습득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발달 영역 전반에 걸쳐 왕성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본적 자질을 형성시키려면 성장 발달의 제반 영역을 균형적으로 키워 주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은 기본 학습 능력과 기초 기능뿐만 아니라 언어, 습관, 정서, 성격, 신체 등 학생 생활 전반에 걸쳐 고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초등학교 교육 목표들을 종합해 보면, 기초 기능, 생활 기능, 탐구 및 창조 능력, 공민적 자질 및 공동체 의식, 자아 개념

64)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7, 2007, pp. 71~134.

이라는 다섯 가지 목표가 바탕을 이루며, 이는 초등학교 교육의 성격이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기초 교육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나.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며,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실험, 관찰, 조사, 수집, 조작, 토론, 견학 등)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공동의 학습 과제를 많이 제시하여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가지도록 하고, 질서, 청결, 예절, 공중도덕 등 기본 생활 습관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한 점이 특색이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 (마)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종래 교육법에 규정되었던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삭제되어 그것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하게 되었다.⁶⁵⁾

65) 종전의 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던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93조 :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4조 : 초등학교 교육은 제9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켜 도의심과 책임감,公德심과 협동 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민족 의식을 양양하며, 독립 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 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종전과는 달리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교육 관련 법규에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 목표를 놓고 교육 법규와 교육과정 간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교육 법규와 교육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 부문에서 관장하게 함으로써 변화하는 요구와 필요성에 학교 교육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교육과정의 적합성 제고와 직결된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목표 설정과 그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는 21세기 학교 교육의 모습을 더욱 적극적인 입장에서 모색하고자 한 것이며,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목표 진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교과 또는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지침이 되며, 단위 학교에서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이다.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는 먼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초·중등교육법의 각급 학교 ‘교육 목적’을 반영하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에 바탕을 두고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상을 설정하는 저변에 놓인 자원들이 교육 목표 설정의 자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 교육과정이 학교급별 개념이 아니라 학년별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으나, 교육과정이 학교급별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과 초·중등교육법에 교육 목적이 학교급별로 제시된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교육 목표도 학교급별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교육 목표의 진술도 교육자의 입장보다는 학생의 입장, 그들의 성장과 진보의 정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술함으로써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표 III-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의 관계

인간상 \ 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한다.	◦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진다.	◦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다.

3. 일상 생활에 나타나는 자연 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일상 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5.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 역행, 자립 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6. 인간 생활을 명랑하고 화락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7. 보건 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한다.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한다.	◦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한다.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4.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과 구성 방침

가. 개정 중점

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수시개정 체제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두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수요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등의 관점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등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과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둔 개정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새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제6차 교육과정을 시점으로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일부가 지나치게 상세화되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실

정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운영,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과 수업시수의 증감 운영 등을 도모하였다.

둘째,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회·문화적 발달 및 변화 등에 따라 생성되는 교육 내용의 증대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 및 발달,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제기된 요구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하는 한편,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재량 활동의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신설과 개설을 허용하였으며,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교육 및 성장기에 필요한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 과목군을 6개로 확대·조정하였다.

넷째, 교과별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둔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는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정하여 학교 교육의 제한된 여건 하에서 최대의 교육 성과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에서의 교과별 적합성을 도모하고,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며, 학교급과 학년 및 각 교과 간의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 내용의 구성으로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주 5일 수업제의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시수 일부를 조정하였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의 월 2회 시행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 학년별 총 수업 시수를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 5일 수업제 운영 지침에 감축 운영해야 할 특정한 영역이나 교과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축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재량 활동이나 특별 활동에서 감축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인성교육 및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 교육과정에서는 주 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시수를 연간 34시간 이내에서 감축하되, 초등학교와 고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 1~고1학년은 재량 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 재량 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새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의 이념 및 철학, 방향 등 기본 관점을 계승하면서 교육과정의 적용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교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 및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수시 개정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골간은 승계하고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전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로 진입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점에서 요청되는 신교육 체제 구상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로 표현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이며, 이러한 역사의 대전환기에는 새로운 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1997년 12월 30일 개정·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큰 변화에 대비하여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에 새 교육과정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인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과 ①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② 자기 주도 능력의 신장, ③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④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개정 중점 사항을 견지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⁶⁶⁾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목 표)

-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내 용)

-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운 영)

-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제 도)

-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1)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초·중등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위 있는 인격 형성이다. 그 동안 산업화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단순 기능인, 단순 지식인을 양성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인간 개인의 다양성을 계발시키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 목표 측면에서 학생의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 기초 기본 능력, 탐구 능력과

66)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한 기본 방향과 관점을 계승한 다는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다르지 않다.

창의성 등 기초 학습 능력과 체력을 신장시키고, 실험·관찰·조사·수집·토론·견학·노작 등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모든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본예절, 질서, 절제, 준법, 공중도덕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와 특별 활동, 재량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실천 중심의 다양한 체험 교육과 토론 학습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학생의 발달 정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학습이다. 즉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자 스스로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과제에 따른 탐구와 해결을 자신의 힘으로 전개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발표력 신장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교과와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상호 보완을 통하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주제 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 학습, 자연 체험 학습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 능력,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다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정보화·세계화 시대에는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별 수업 도입이 필요하다.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은 바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이다. 수준별 수업의 도입은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학습 부진의 누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풍부한 수업 도구와 학습자료,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개성,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개별 학생이 자신의 능력, 흥미 및 진로에 따라 알맞은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켜 풍부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역 수준의 기관과 민간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교육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제도 측면에서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가 권한을 서로 분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자율·재량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역할을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가 서로 분담하도록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한 것이 특색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위 학교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의 기준과 지역 수준의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이 전개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결정 주체는 교사이므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구성 방침

새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① 전인적인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앞에서 설명한 개정 중점과 마찬가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을 대체로 계승하였다.

-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1)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교육과정 구성의 첫째 방침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자기 주도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편성·운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방침이다. 따라서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과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에서 이 구성 방침은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설정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려면 기본 능력을 길러 주고, 창의성과 정보 능력의 배양에 힘써야 한다.

‘기본 능력의 육성’은 각급 학교 교육 목표의 설정, 편제와 시간 배당,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 구성에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작성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이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과 관련되는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세부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실천하여야 한다.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성을 개발하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현장의 ‘수업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의 모든 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력 신장을 위한 창의성과 기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 소재, 상황을 선정·계획하고, 이에 중점을 둔 교육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새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지식·정보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

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게 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사회 복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 기간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 사회로부터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단순 노동·기능직이 고등 정신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대체됨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본 교육이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모든 학생이 10년 동안 공통적인 기본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교양 수준과 기초 학력을 강화하고, 고도화·다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학교급 간이나 학년 간 교육 내용의 중복, 비약을 방지하여 연계성을 지닌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는 고등학교 2, 3학년부터 학생의 능력,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하는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육과정 체제이다. 이러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교의 선택보다는 학생의 선택 폭을 넓혀 주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이수 시간의 적정화 차원에서 모든 교과와 기준 시수를 교육 내용 구성의 최소 기준으로 삼고 학습 분량의 과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 적정화는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정하여 시·공간의 제한된 학교 교육 여건 하에서 최대의 교육적 성과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수준별 내용을 전국 공통으로 처방함으로써 각 학교 및 개별 학생 간의 차이에 따른 수준별 내용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되었으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심화 내용’ 제시에 따른 학습량의 증가로 인해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월반이나 재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의 학교 교육 현실에서 국가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 처방과 학교에서의 운영 실제 간에 괴리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

준별 교육을 위한 처방의 주안점을 교육과정에서 수업으로 전환하였다.⁶⁷⁾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과 기본 방향은 일치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변화한 것이 다른 점이다. 요컨대 새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고양하고 단위 학교의 특성 및 현실에 기반을 둔 수준별 교육을 도모함으로써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4)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직된 교육 체제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의 다양성, 융통성, 탄력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종래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마치 산업 현장에서 동일한 설계도에 의해,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공정으로, 동일한 규격품을, 동일한 속도로 대량 생산해 내는 ‘소품종 다량 생산 모형’과 같이, 동일한 교육 내용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속도로 교육해 온 ‘대량 획일 교육 모형’의 ‘산업 모델 교육’이었다.

이러한 ‘산업 모델 교육’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 획일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전체성, 공통성, 통일성, 평등성, 능률성 등은 효과적으로 유지되지만, 개별성, 수월성, 다양성, 효율성, 적합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양적 기회균등과 평등성 문제는 잘 해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적성, 능력, 흥미, 관심, 진로 등을 살리고 학습의 성공적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타고난 소질과 수월성을 최대한으로 신장·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국가·사회적인 발전과 전망에 부응한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필요, 행복에도 대답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기초와 기본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공통성과 평등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 새 교육과정은 ‘산업 모델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 모델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가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다품종 변량 생산 체제’와 같이 교육 수혜자의 다양성과 개별성, 인간성이 존중되는 교육이다.

67)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으로 고려하는 수업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 유형에는 비교적 학습 내용의 위계가 분명한 교과를 단계별로 세분화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기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심화 학습 또는 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과목 내용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과목들을 종류와 수준별로 설치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5)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재량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계승하여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단위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 수준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결정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제시하며, 지역 교육청에서는 시·도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제시하고,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교육과정 주체별 명확한 역할분담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했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방향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으로의 전환,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과 수업시수의 증감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6)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학생의 교과별 내용 성취 기준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의도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평가 체제의 확립은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며, 실현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평가는 교과서 내용의 질과 수업의 질, 교사의 질, 운영의 질,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 환경의 질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편성·

운영의 기본 지침,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에 대한 기준 설정의
기저가 되므로, 이 구성 방침이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나아가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IV.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표방한 바와 같이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며, ①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기초 교육의 충실, ② 재량 활동의 활성화, ③ 학습 부담의 경감과 교과 구조의 점진적 확대, ④ 교과 학습 내용의 적정화, ⑤ 통합 교과의 건지 및 내실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였다. 다음에서 보게 될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1. 편제

새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학교급보다는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된 교육과정 체제를 건지하고 있다.⁶⁸⁾

가.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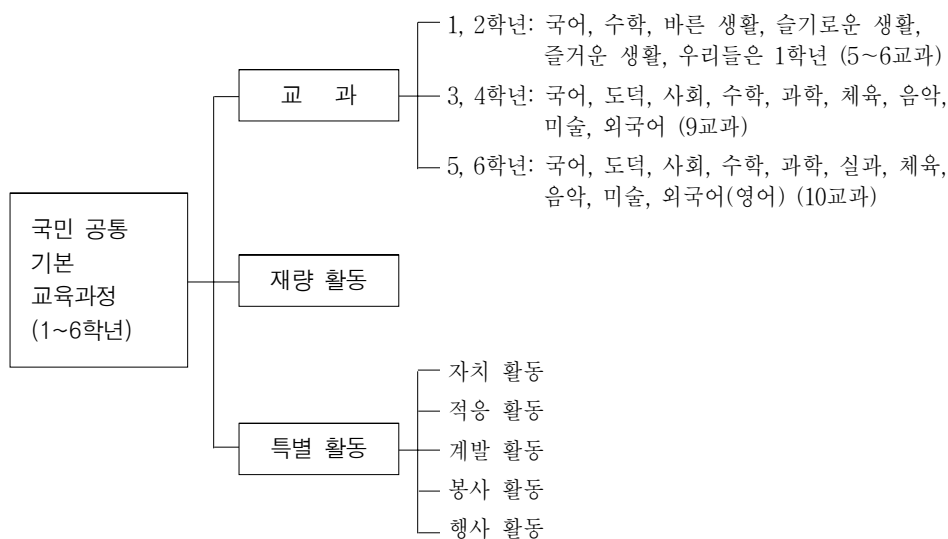
- (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한다.
- (2)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 (3)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된다. 교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의 10개 기본 교과로 편성된다. 특히, 교수·학습 부담 경감 차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68) 참고로 새 교육과정의 편제에서는 사회과의 영역 명칭을 일부 조정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에 따라 교과 명칭은 학교급 간에 일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역사 교육 강화 차원에서 중등학교 사회과의 경우 ‘사회’와 ‘역사’의 두 과목으로 되어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은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의 5개 또는 6개 교과를 편성하였고, 3, 4학년은 ‘실과’를 5, 6학년에서만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9개 교과를 편성하였으며, 5, 6학년은 국민 공통 기본 10개 교과로 편성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성되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할 것을 더 강조하였다. 특별 활동도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성격과 목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조직하는 데 필요한 준거가 될 수 있도록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하였다.

새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조

새 교육과정에서의 저학년 통합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을 지양하고 생활 경험 중심의 대주제와 활동 주제에 의한 통합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 교육과정 운영은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으나,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 와서야 교과를 분과하여 통합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게 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육과정의 통합이라기보다는 교과서만 통합한 형태였다. 당시의

통합 교과를 살펴보면, 국어, 사회, 도덕이 바른 생활로, 산수(수학)와 자연(과학)이 슬기로운 생활로,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이 즐거운 생활로 통합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수준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때에는 언어의 기초 기능을 체계적·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국어가 분리되어 독립 교과가 되고, 사회와 도덕이 통합되어 바른 생활로,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산수를 분리하여 자연으로만 구성하였으며, 음악, 미술, 체육이 통합되어 즐거운 생활이 되었다. 즉 국어와 산수가 독립되어 독립 교과가 되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통합 교과로 구성된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생활에서 사회 요소를 슬기로운 생활에 포함하고, 저학년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예절, 기본 생활 습관, 공중 도덕 등이 각 영역에 통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새로운 통합 교과로서의 바른 생활이 신설되었다. 특히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하나의 주변 환경으로 인식하여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주변의 현상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편리한 생활이 되도록 궁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슬기로운 생활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음악, 미술, 체육과는 이전과 다름없이 즐거운 생활로 통합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전 통합 교과는 형식상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을 교과 간 통합에서 탈교과적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구성은 여전히 내용 영역 중심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생활 경험 중심의 주제 통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7년 개정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통합의 형태 면에서는 이전과 다름이 없으나, 내용 면에서는 내용 영역 중심에서 주제 중심으로 큰 변화를 담고 있다. 이로써 2007년 개정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 교과 교육과정은 통합 교과 교육과정이 태동한 제4차 교육과정 이래 계속 추구해 왔던 생활 경험의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으로 진일보하게 되었다.

2. 시간 배당 기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 <표 IV- 1>과 같다.

<표 IV-1> 초등학교의 시간 배당 기준

구분		학교 학년	초 등 학 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어		<div> 국 어 210 238 수 학 120 136 바른 생활 60 68 즐거워 생활 90 102 즐거운 생활 180 204 우리들은 1학년 80 . </div>		238	204	204	204
	도덕				34	34	34	34
	사회				102	102	102	102
	수학				136	136	136	136
	과학				102	102	102	102
	실과				·	·	68	68
	체육				102	102	102	102
	음악				68	68	68	68
	미술				68	68	68	68
	외국어(영어)				34	34	68	68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830	850	952	952	1,054	1,054

-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단,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주 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 수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한다.
-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 ③ 초등학교에서의 1시간의 수업은 40분이며,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첫째, 학년별, 교과 및 영역별로 배당된 시간은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 필수로 이수해야 할 최소 시간이므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단위 학교의 재량으로 위에 제시된 기준 이상으로 수업 시수를 편성할 수도 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및 학년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총 수업 시수로 제시하였다. 이는 수업 시수를 고정하거나 획일화하지 않음으로써 계절과 교과 및 활동의 특성,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적·탄력적으로 교육과정 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3, 4, 5, 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수는 월 2회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보다 34시간씩 감축되었다. 여기서 교과나 재량 활동 혹은 특별 활동의 수업 시수를 감축하

여 제시하지 않고 연간 총 수업 시수만을 감축하여 제시한 것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필요와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단위 학교에서 수업 시수를 편성할 때 유의할 것은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제외한 교과 영역에서 수업 시수를 감축하되, 시수가 감축된 교과의 최소 필수 학습 요소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1	연간 830시간	연간 830시간	동일
2	연간 850시간	연간 850시간	
3	연간 986시간	연간 952시간	학년별 연간 34시간씩 감축
4	연간 986시간	연간 952시간	
5	연간 1088시간	연간 1054시간	
6	연간 1088시간	연간 1054시간	

넷째, 학생의 직접적 체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 수업 시수의 조정 운영이 가능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수가 배당된 교과에서는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감축된 교과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체험 활동을 학교의 필요와 학생의 요구에 따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로서 국어 교과에서 희곡 단원을 학습할 경우 학생들이 연극이나 동극 활동을 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들은 1학년’ 교과에서는 하위 영역별로 고정된 시간 운영을 계획하기보다는 담임교사 재량에 의한 탄력적인 시간 운영이 바람직하다. 이 시기에는 입학 초기의 학교 적응 활동을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4월 이후의 교과 학습을 위한 기초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재량 활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성되며,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시간을 의미한다.

일곱째, 특별 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정은 학교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 결정권을 단위 학교에 부여하였다. 학교에서는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 가운데 학교 나름대로 중점 영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배당 기준에 제시된 시간 외에 별도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V.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① 기본 지침, ②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③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④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본 지침’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이며,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은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는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학생 학력 평가와 학교 및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관련 지침과, 학교에서 하는 평가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제공해야 할 다양한 평가 방안과 시·도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단위 학교에서 하는 실시하는 평가상의 고려 사항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을 다루고 있다.

1. 기본 지침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동일 기간에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① 기초·기본교육의 충실과 ②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 능력 및 창의성 등 기초 학습 능력의 신장에 힘써야 하며, 실험·관찰·조사·수집·토론·견학·노작 등 직접적 체험 활동을 모든 학습 활동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예절과 질서, 청결, 절제, 준법, 공중도덕 등과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이 교과와 특별 활동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 힘쓰도록 하였다.

가.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의 확보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각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연간 최소 기준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 배당되어 있으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각 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연간 수업 시간 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배당 기준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의 개념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이며, 단위 학교에서는 연간 법정 수업 일수를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연간 시수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은 교과의 특성, 학교의 실정과 학생 실태, 계절 등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주 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과 수업 시간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

-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2006. 8. 29.)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새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공통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능력과 적성, 필요, 흥미에서의 개인차를 최대로 고려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부분에서 부분 개정된 내용(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6-75호)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수준별 수업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내용

해당 부분	해당 지침의 내용
4.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 1. 기본 지침 -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 가. 시·도 교육청 - (2) 운영	(바)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 다. 학교 - (1) 편성 - <공통 지침>	(마) 수준별 수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운영한다. ①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 다. 학교 - (2) 운영	(다) 단위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부분 개정은 개인차를 존중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되, 수준별 교육과정에서의 단계형, 심화보충형이라는 유형을 폐지하고, 무엇보다 수업 내실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는 수준별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 교과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한 데서 벗어나, 단위 학교와 담당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단위 학교의 상황에서 개인차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특징과 2006년에 부분 개정된 수준별 수업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V-2>와 같다.

<표 V-2>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준별 수업의 특징 비교

구분	제7차 교육과정	2006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적용 교과	· 수학, 영어(단계형) · 국어, 사회, 과학 (심화·보충형)	·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 ‘단계형’, ‘심화보충형’ 삭제

주안점	· 교과 교육과정 내용 · 수업	· 수업	· 교육과정에서 수업으로 전환
처방 수준	· 총론 · 교과 교육과정 내용 · 단일 교과서 내 처방 · 수업	· 총론 · 교과서(워크북) · 수업	· 총론 지침 대강화 · 교과서와 교수-학습 자료 내실화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처방	· 기본 과정과 더불어 심화, 보충 내용 제시	· 기본 과정만 제시	·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부분에 ‘기본 과정’ 정선하여 제시 · 심화, 보충 내용 삭제

이상과 같이 수준별 수업이 권장된 교과 가운데, 특히 수학과 교육과정은 2009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영어과 교육과정은 2010년 3월부터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준별 수업은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고, 학습 결손의 누적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며, 학습자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3)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 (㉠)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한다.

재량 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 및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 사회의 실정, 교원·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인 문화 풍토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⁶⁹⁾

69)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재량 활동 설정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 ③ 학교의 독특한 문화 풍토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 ④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적 의의를 지니는 재량 활동은 학년별로 연간 최소 68시간(1학년은 60시간 이상)으로 배당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라.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4) 특별 활동은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가) 특별 활동의 영역별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삭제>70)

(다)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단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운영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특별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특별 활동은 근본적으로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집단에 소속한 개인의 개성, 자율성,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의 특별 활동에서는 학생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둔다.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는 1학년은 30시간, 2, 3학년은 각각 34시간, 4, 5, 6학년은 각각 68시간으로 배당되어 있다. 학년별로 배당된 연간 수업 시간 수에서 영역별 시간 배정은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영역별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서 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더욱 질 높은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 ⑤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 ⑥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 ⑦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 ⑧ 교과서 중심의 교육 체제를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 ⑨ 수업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⑩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사람됨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⑪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지역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7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부분 개정한 교육과정이므로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에서 삭제된 부분은 ‘<삭제>’라고 명기한 것임.

아울러 특별 활동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필요, 학생의 희망, 요구 등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 활동의 시간 운영은 고정된 시간표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화된 운영이 아니라, 활동 영역, 활동 주제, 활동 내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서 제시되었던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에 관한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 교육과정에서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의도된 교육과 전개된 교육, 실현된 교육을 최대한으로 접근시키고자 하는 조치였다면, 새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 정착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교육의 지방 자치 시대에 맞게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 수준 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표·내용·방법·평가의 기준이 교육 현장에 실현되고 정착되려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중간 위치에 있는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적절한 행·재정적인 지원, 지도, 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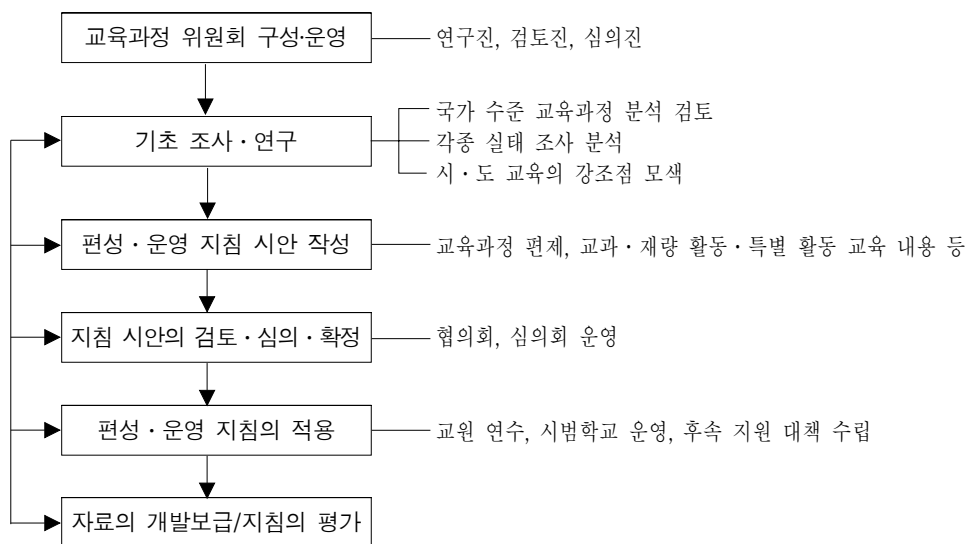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 구성·운영한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⁷¹⁾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핵심 요원으로 교육과정 관련 연수 강사, 자료 개발 등과 같은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새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지역 단위로 이러한 지원 조직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시·도(지역) 교육청⇔학교⇔교사’와 같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흐름 속에서 각 수준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국가가 의도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1) 제7차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610호(2000.10.31.)

가. 시·도 교육청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각 시·도의 특성과 실정, 필요, 요구는 물론, 각 지역의 교육 기
반, 여건 등의 여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공통의 일반적, 표준적, 대강적,
요강적,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보완하거나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교육 여건, 지역 사회 요구 등과 같은 실태 조사, 분석을 통하여 교육
의 강조점을 추출하고, 이를 반영한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 수준의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며, 각종 교육 자료 개발의 기본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에서는 시·도의 특수성이나 실정에 따라 다양
한 절차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창의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수행에 가장 적절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
하다. 시·도 수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V-1]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림 V-1]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절차

시·도 교육청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역할·기능은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
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새 교육과정 등을 근거로 하게 된다.

○ 교육기본법(제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항)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제6호)

교육감의 관장 사무 : ⑥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제1장의 IV.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시·도 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1)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운영

(나)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 예를 들면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과정 심의회’를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그 기능은 비슷한 조사 연구, 심의, 자문 등을 위한 분과, 교과별 분과, 학교급별 분과 등을 조직하고 이들 조직을 상호 연결, 교류하여 시·도 교육의 일관성과 계열성을 유지하고, 시·도의 지역적 특성이나 교육 중점 등에 관한 연구가 학교 급별로 중복되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위원회의 기능별, 교과별, 학교급별 조직은 대체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를 고려한 것이며, 시·도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팀을 조직·운영하거나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을 활용하여, 지침(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이 위원회의 교과별·학교급별 분과 및 심의 분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관리와 관련하여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에 교육 전문직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 다양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초 조사·연구

- (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 (라) 시·도 교육청은 학교, 연구 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 및 개선에 반영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시·도 교육과정 위원회 또는 별도의 기구가 구성되면, 먼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세밀한 조사·연구가 있어야 한다. 자연, 산업, 역사, 문화, 의식 등은 물론,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필요, 학생의 학력 실태, 교원의 지도 실태, 시설·환경 및 재정 등 기초적인 조사를 충실히 하고, 이를 분석하여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시사점을 추출한다.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와 기초 조사를 통해 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교육에 대한 교육 중점을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초 조사·연구는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기관, 연수 기관, 학회, 교원 양성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기초 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의 교육 현황 조사
 - 학교 현황(학교 수, 학교 규모, 학급 규모, 지역별 학교 등)
 - 교원 현황(남녀 교원, 전담 교사, 연령별, 자격별 등)
 - 학생 현황(남녀 학생 수, 학급별 학생 수, 지역별 학생 수 등)
- 지역의 특수성 조사
 -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 면적, 개발 계획 등)
 - 인문환경(교통, 통신, 문화, 보건, 생활 모습, 전통문화 등)
 - 사회환경(인구, 취락, 인구 이동, 행정, 재정, 산업 발달 등)
- 지역 교육과정의 요구 조사
 -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및 요구
 - 지역 사회의 요구 및 필요
 - 학부모의 교육관 및 기대 수준
- 시·도 교육청의 강조 사항
 - 교육 중점 과제의 선정·운영 실태

- 21세기 지향 교육 방향 설정(단기·중기·장기 계획 등)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
 - 교육 중점 실태(학교장의 교육적인 신념 및 교훈 등)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실태
 - 편제와 시간 배당 실태
 -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재량 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태
 - 특별 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태
- 교육 시설·설비 및 자료 활용 현황
 -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 활용
 - 실험·실습의 시설 및 설비
 - 교육 기자재 보유·활용 현황
- 교원 연수 및 연구 활동
 - 교원 연구 모임 현황(종류, 활동 실태 조사 등)
 - 교원 연수 현황(학교별 연수, 지역별 연수 등)
- 지역 사회의 시설·환경
 - 지역 사회의 시설 활용 현황
 -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 현황
- 교육과정 평가
 - 학생의 학업 성취도
 - 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
 - 학교와 교육 기관과의 협조 체제

이상과 같은 각종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시사점을 추출하고, 시·도의 교육 중점이나 강조점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시·도 교육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침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편성·운영 지침 시안 작성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초등학교에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시·도의 지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⑤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⑥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⑦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
- ⑧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에 관한 사항
- ⑨ 독서 목록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
- ⑩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⑪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⑫ 기타 필요한 사항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어떤 체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지침의 분량, 체제, 구성 내용을 획일화하여 규제를 가한다면 또 다른 교육과정 편성의 경직화, 형식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는 분명한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시책 중심, 사업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중점이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설정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특히 ‘⑤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과 ‘⑦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단위 학교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이를 지침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표 V-3> ○○시(도)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예시)

1.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성격
2. ○○시(도)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
3.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4. ○○시(도)의 교육 중점
 - 교과
 - 재량 활동
 - 특별 활동

5.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 특수아 교육,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부진아 교육 등
- 조기 입학, 조기 진급·졸업
- 학교 규칙의 제정

6. 교육 자료의 개발과 지원

-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
- 독서 목록의 작성, 활용
-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운영 지원

7. 교육과정의 평가

8.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유의점

9. 부록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또는 제반 양식, 절차 등)

(4) 편성·운영 지침 시안의 검토·심의·확정

개발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시안에 대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등 광범위한 자원 인사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② 교육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는지, ③ 학년별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④ 수준별 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었는지, ⑤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한 후속적인 지원 대책(교재 개발, 교원 연수·수급, 교육 자료 등)이 수립되었는지 등 개발된 지침 시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적용 가능성의 검토를 위해서는 몇 개의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을 실제로 편성해 보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하며, 시안의 확정에 앞서 공청회나 세미나, 설문 조사, 협의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최종안의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심의는 교육과정 위원회,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 교육과정 위원회 심의 분과 등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지침의 고시는 적어도 그 지침이 실제로 적용되기 1년 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의 적용에 필요한 제반 대책, 예를 들면 교원 수급, 교원 연수, 필요한 교육 자료의 개발, 교육 시설·설비 개선 등의 후속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 학교도 이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시안을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초등학교의 성격, 교육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목표의 조정(추가, 보완 등)
- 내용의 조정(추가, 보완, 축소, 통합 등)
- 수준의 조정(단계, 분화, 상향, 하향 등)
- 순서의 조정(계절, 행사 강조 등)
- 시간의 조정(중배, 감축 등)
- 강조점의 조정(지도 중점, 강조점 등)
- 자료의 조정(교재, 교구, 설비, 자료 등)
- 유의점의 조정(편성, 방법, 주의 등)
- 평가의 조정(목표, 기준, 방법 활용 등)
- 연수의 조정(교원 연수, 교재 연구상 지침)

(5) 편성·운영 지침의 적용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시·도 교육청에서의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가)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지역 교육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 (나)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ㄷ) <삭제>
- (바)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사)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차) 귀국자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때)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 - 내용 - 방법 -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확정된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적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가 요구된다. 이 연

수 과정에서는 연구에 실제로 참여했던 연구진이 지침의 성격, 그 개발 과정 및 검토되었던 쟁점들, 지침의 기본 이념 및 지침 적용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연수에서는 무엇보다 각 학교에서 작성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및 그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장 교원에 대한 연수 외에도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직속 기관 등에 소속된 교육 전문직의 교육과정 연수도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업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등에 소속된 일반직, 학교 운영 위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에 대한 연수도 실시해야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학교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적용에 필요한 제반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교원 수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따른 수급 방안의 수립,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할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교과별·교사별 연구 모임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새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은 지침이 실제로 적용된 이후에도 각 학교에 대해 지속적인 장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장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의도된 교육과정 지침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천되도록 지도 조언함과 동시에, 계획된 시·도 교육과정 지침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적용에 수반되는 장학은 학교 수준에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천할 때의 애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여 필요 시 이를 수정, 보완하는 등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 제시되는 지침은 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 조직, 주제 선정, 집단 편성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시·도 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획일화되고 경직되게 운영된다면,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운영을 강조하거나 획일화된 또 다른 시책 중심의 지침이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6) 자료의 개발·보급과 지침의 평가

(편성)

- (※)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운영)

- (※)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 작성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려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적절한 도움 자료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역할은 시·군·구 교육청에 분담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도 교육청에서의 행·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매 학년도 개시 이전에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새 학년도의 개시와 동시에 교육과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교원의 전보도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어야 한다.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일회적으로 작성되어 계속 적용되기보다는 끊임 없는 평가의 과정을 통해 수시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의 작업은 개발, 확정된 지침에 대한 연구학교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실천되는 과정에서 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으며, 타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상호 비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상설 조직인 전담 부서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도 필요 시 수시로 수정, 보완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므로, 학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행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반성을 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행 1년 전까지는 각 학교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시·군·구의 지역 교육청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과정 의사 결정의 주체별로 볼 때 국가나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보다 시·군·구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새 교육과정에서도 시·군·구 지역 교육청에서의 역할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교육청보다는 시·군·구 지역 교육청이 관내의 초·중학교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 지역 교육청이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원, 조언, 자문의 역할을 하는 장학 기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수준별 수업의 시행,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학교와 가장 가까이 하는 시·군·구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해당 지역 사회에 적절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집단 구성, 소재·제제, 시설,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

정을 만들고, 이를 학년이나 학급, 교과 교육과정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규모와 실정,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단순히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지역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또는 운영 방식, 평가 및 교육과정 지원 관리 체제의 지역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결정도 시·군·구 지역 교육청을 통해 결리지고 있으므로 시·군·구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 제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시·군·구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각 초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관내의 초등학교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초·중학교에 제시한다.
- ①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②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④ 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협조에 관한 사항
 - ⑤ 학교 간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⑥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⑦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필요한 사항
- (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한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다) 학교 간에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등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효과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정보가 필요하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에 실제로 활동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 즉 각종 교육 실천 프로그램, 워크북이나 워크 시트, 수업 개선 아이디어 모음집을 지역 교육청에서 제작하여 이를 요구하는 관내의 학교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지역 교육청에 ‘교육과정 위원회’를 두어, 지역 특성

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교육과정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인사 등 다양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실천 중심 장학자료를 개발할 때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이나 시·도의 연수 강사 요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농촌·어촌·산촌 및 벽지 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므로 복식 학급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 등에서 지구별 장학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공동 편성이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업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지원

시·군·구의 지역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가) 지역 교육청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에 관한 지역별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 (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 (라)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마)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수업 연구 교사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 (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시·군·구 교육청에서는 새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제시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을 지원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장학 활동 시행, 지역별 교원 연수 시행, 각종 자료 개발·보급, 수업 연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수업 개선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첫째,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별 장학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장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업 개선에 있다면, 지구별 장학 협의회를 통하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지도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창의적 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수준별 수업 방안,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모색을 통하여 교육청으로서의 지원 대책도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지역별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시·군·구 교육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의 총론 및 교과 요원을 활용한 자체 연수나 관내 교육과정 관련 우수 교사를 중심으로 한 자율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연수는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나 교사가 겪는 현장의 문제점을 연수의 내용과 협의 과제로 삼아 교사 스스로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별 장학 협의회, 교과 교육 연구회 등 지역의 자원 인사나 교원,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개별 교사가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우수 사례 등을 모아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일반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개별 학교보다 지구별로 특수 재능아, 심신 장애 특수 교육 대상자, 학습 부진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배려하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단위 학교가 특별 보충 수업을 하거나 특수아, 학습 부진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 이를 지구별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지역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모든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역 교육청은 인근 학교 간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하며, 인접 교육청들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으로 개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겠다.

여섯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과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지역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교과별, 연구 영역별 수업 연구 교사 및 교원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교사 연구 모임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는 교원들이 교과별, 학년별, 주제별, 학교별로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교과 관련 관심 분야, 학생의 발달 특성,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수업 운영, 수업 방법, 평가 방법 등을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장학 활동이나 학교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 평가해 수업의 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지원하는 일은 시·군·구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이므로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과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는 다음의 초·중등교육법에서의 규정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다.

제23조: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중점,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및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핵심 요소로 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융통성 있는 운영 방식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및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방향을 승계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주요 개정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새 교육과정에서의 편성·운영 지침을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성 체제, 편성·운영의 절차 및 그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교육부, 1998).

①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학교별로 마련한 ‘당해 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이다.

②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고, 특색 있는 교육 설계도이며, 상세한 교육 운영 세부 시행 계획이다.

③ 학교 교육과정은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 방법과 특색 있는 운영 방안이 나타나 있어, 전국의 각 학교가 제각기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편성되어 있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함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위주 교육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 실천가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 보완, 가공하여 실천하기에 적합하게 편성한 실행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지역의 특성, 학교 실정, 학생 실태 등을 거의 무시하고 교과서에 학습자를 철저히 맞추어 가는 교과서 중심 체제와는 달리 학습자를 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습자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도, 시·도 교육청도 아니며, 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학교 현장의 교원이다. 교원이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교과서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와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의 주체가 되려면 학교 교육과정이 교육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교원의 연구와 노력으로 편성한 산출물이 바로 학교 교육과정인 것이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교과서가 학교 교육을 지배하게 되면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은 획일화되고 만다. 학습자의 개성, 능력, 소질, 흥미,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의 창의성 및 자율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된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더 내실 있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해 학교에 자율·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 기준이나 시·도 지침 외에 또 다른 규제를 가하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로 인하여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특색이 없이 경직화,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장의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 학교가 재량권을 발휘하여 특색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장의 교육 철학과 학교 교육 목표, 그 해의 노력 중점이 드러나야 하며,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 활동의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중점과 연간 지도, 평가, 운영 방식이나 실천 방안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명칭도 다양할 수 있다. ‘OO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OO교육’, ‘다양성을 추구하는 OO교육’, ‘미래에 대비한 OO교육’, ‘OO교육은 이렇게’ 등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어,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당해 학교의 학교장이 시·도 지침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가하거나 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과 기본 방침이 제시되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상부 기관 제출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당해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유용성, 활용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을 중심으로 편성 체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에서 결정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구성 체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4>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예시)

제1장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

1.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2. 학교 교육 목표와 노력 중점
3. 편제 및 시간 배당
4. 편성의 기본 원칙
5. 운영의 기본 방향

제2장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지도

1. 교과(학년, 교과별 지도)
2. 재량 활동(목표, 내용, 방법, 평가)
3. 특별 활동(영역별, 학년별 운영)

제3장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1. 교과
2. 재량 활동
3. 특별 활동
4. 교육과정 편성, 운영

부록(또는 학교 경영 지원 체제)

예시된 구성 체제는 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계획, 지도(운영), 평가, 기타의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나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제2장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지도, 운영 계획을 교과(영역) 또는 학년별로 구분하여 교육 중점, 연간 지도 계획, 지도 내용 및 방법, 평가 계획 등의 체제로 구성한 것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수준별 수업의 특별보충학습 운영, 귀국가 자녀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별 학급 운영, 특수 학급의 운영, 영재아 및 학습부진아 지도, 교재·교구의 개발 및 활용, 생활 지도, 교원 연수 및 교내 장학 등의 계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제3장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계획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타 학교 경영 지원 체제와 관련하여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 학사 일정, 부서별 업무 분장, 학교 현황, 예산, 각종 실태 분석 자료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절차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는 ①준비 단계, ②편성 단계, ③운영 단계, ④평가 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의 일반적인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준비 단계	1.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 조직, 임무, 역할의 구체화
	2.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계획 수립
	↓
	3.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침, 법령 등의 내용 분석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 중점과 편성·운영 지침 분석 - 관계 법령, 교육 시책, 지표, 과제 분석
	↓
② 편성 단계	4. 각종 실태 조사·분석과 시사점 추출 - 교직원 현황, 학교 여건, 학생과 학부모 실태, 지역사회의 특성 조사, 분석 -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 사항 조사, 분석 -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운영 실태 분석
	↓
	5.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설정 - 학교장의 학교 경영 방침 및 학교 교육 목표 설정 - 교과·영역·학년별 교육 중점 제시
	↓
	6. 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 - 학교 특색을 살리는 창의적인 교육 계획 수립 - 편제와 시간 배당, 수업 일수, 수업시수 결정 -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특별 활동의 학교 별도 확보 시간 결정 - 목표, 내용, 수준, 지도순서, 시간, 방법의 조정 - 교육 평가 계획 수립 - 생활 지도, 특수아·귀국자·다문화 가정의 자녀 지도 - 교육 자료 활용 계획의 수립 - 교과 전담 운영, 특별 교실·운동장 활용 계획 - 기타 학교 운영 전반에 필요한 계획 수립
	↓
	7. 학교 교육과정 시안의 심의 및 확정 - 시안의 심의, 검토 분석 - 추출된 문제점 반영, 시안의 수정·보안 - 학교 교육과정의 확정
↓	

③ 운영 단계	8.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연수 시행, 교내 자율 장학의 활성화 - 운영 과정의 문제점에 탄력적으로 대처 - 교내외 장학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 융통성 있는 운영(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 조직, 주제 선정, 집단 편성 등)
↓	
④ 평가 단계	9.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운영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 개선점 추출, 다음해의 편성·운영에 반영

[그림 V-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일반적인 절차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준비

㉞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고,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한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서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45쪽). 또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교직원 회의, 부장 회의, 동학년 회의 교과 협의회 등 기존의 각종 학교 조직이나 협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꾀해 볼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과 연구를 위해서 ‘교육과정 위원회’에 기획 조정 분과, 편성·운영 분과, 교재 개발 분과 등을 두고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 양성 대학, 지역 유관 단체, 교육 전문 기관의 교수나 자문 위원과 함께 협력하여 연계 추진도 필요하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구별 장학 위원회, 교과 연구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기구를 조직, 운영할 수도 있으나, 소규모 학교일수록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복식 학급 운영, 개별화 교육 등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규모 학교

에서는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진, 심의진, 협의진을 구성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 점이다.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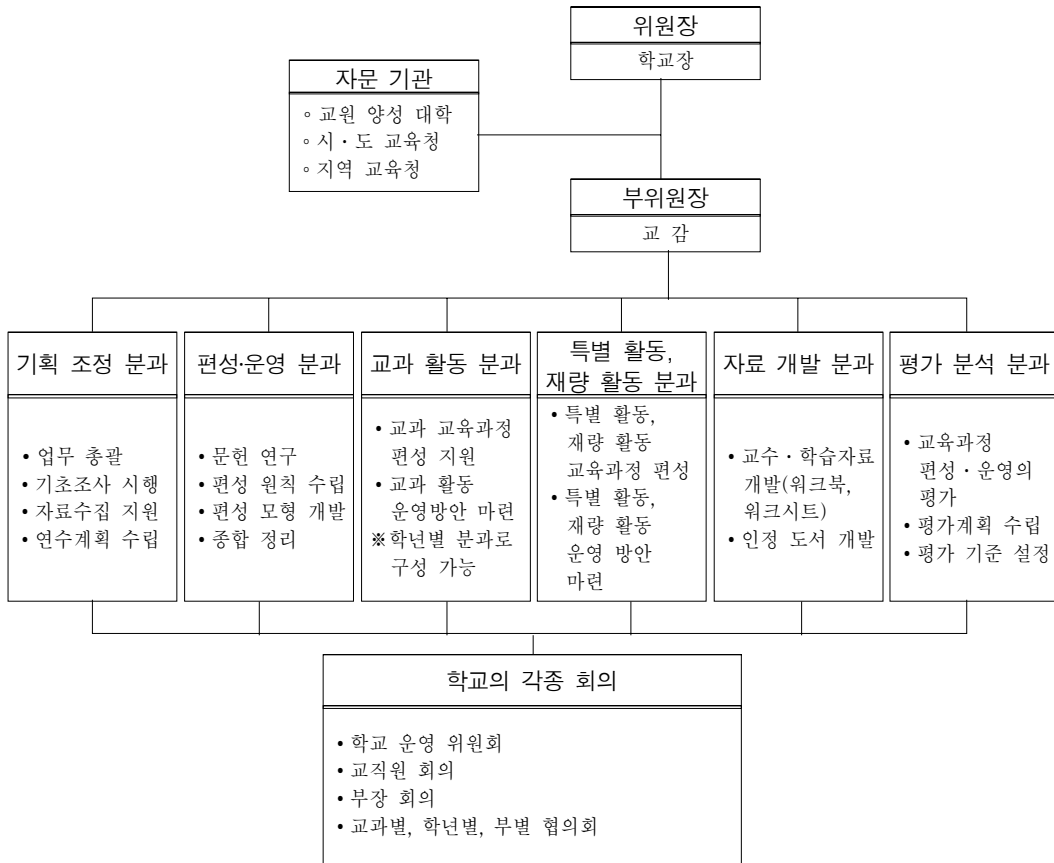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작성 및 확정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활동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연수
-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 영역별 운영 계획안의 문제점 검토 및 확정
- 효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모색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성 방법을 구안할 수 있다.

-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
- 교직원 회의·기획위원회·학년협의회·교과협의회 등 기존의 각종 학교 조직이나 협의회를 활용하는 방법
-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분과별(기획·조정 분과, 편성·운영 분과, 교과 활동 분과, 특별·재량 활동 분과, 자료 개발 분과, 평가 분석 분과 등) 역할 분담을 기초로 구성하는 방법
- 자문 기관(지구별 장학위원회·교과연구회, 교원 양성 대학·지역 유관 단체·교육 전문 기관의 교수나 자문위원·학부모 등)을 활용하는 방법

다음은 분과별 역할 분담을 근간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예시한 것이다.

V.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그림 V-3]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조직(예시)

참고로,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 격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지만, 양자는 다음 <표 V-4>에서와 같이 구별된다. 먼저 설립 근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었으며,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둘째로 위원회의 역할에서,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즉 운영 방안,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역할을 하며,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며, 한마디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이다.

<표 V-4> 학교 운영 위원회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비교

학교 운영 위원회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규정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007호) 제31조~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25호) 제58조~제64조)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의 다양성, 효율성 추구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시 ○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 역할 담당 ○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

(4) 각종 실태 조사·분석

학교 교육과정 편성 준비와 구체적인 작업 일정이 수립되고 나면,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따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교육 시책, 교육 지표, 중점 과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추출하여야 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기초 조사와 실태 분석을 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시사점을 추출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학습 활동을 통하여 조사, 탐구, 견학, 답사, 실험, 실습, 관찰 등과 같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교육 시설·설비, 문화재, 고적, 전적지 등을 이용한 교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교육 시설이나 설비 등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해당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강구되어야 하며, 활동 주제에 따라서는 지역 사회의 자원 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직원 현황, 시설·재정·환경 등의 여건, 학생과 학부모의 실태, 지역 사회의 특성, 교직원·학생·학부모의 요구 사항, 주민의 요구와 필요 분석과 함께, 학생들의 교과별 성취 수준이나 교과, 특별 활동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서 당해 학교가 강조하거나 노력해야 할 중점을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의 사회적, 개인적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한가지로서 각종 기초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의 특수성 조사

- 조사 내용
 -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 면적, 개발 계획 등)
 - 인문환경(교통, 통신, 문화, 보건, 생활 모습, 전통문화 등)
 - 사회환경(인구, 취락, 인구 이동, 행정, 재정, 산업 발달 등)
- 조사 방법 : 면담, 설문지, 문헌 연구

② 학생, 교원, 주민의 교육적 운영에 관한 요구와 필요 조사

- 조사 내용
 - 교육적 요구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 노력 중심에 관한 내용
 - 교과 지도와 평가에 관한 내용
 - 특별 활동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량 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내용
 - 지역 실정과 학교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전통 교육에 관한 내용
- 조사 대상 : 학생, 교원, 주민
- 조사 방법 : 면담, 설문지

③ 학교의 실태 분석

- 분석 내용
 - 교원의 실태 : 학력, 전공 교과, 연령, 성별, 특기 지도 영역, 각종 연수 실적, 질병 또는 출산 예정, 교과 연구 동아리 희망, 기타 희망
 - 시설·교구의 실태 : 시설 설비 현황, 교구 설비 현황
- 참고 자료 : 교원 인사 기록 카드, 설문지, 면담, 자료 대장, 학교 설계도 등

④ 학생의 실태 분석

- 분석 내용
 - 학업 성취도
 - 학습 태도 상황
 - 생활 태도 상황
 - 기본 생활 습관 실태
 - 흥미·관심의 경향
 - 신체적 발달 상황
 - 체력, 운동 기능의 정도
- 참고 자료 : 학력 평가 결과, 건강 검사 결과, 보건 일지, 각종 표준화 검사 결과, 관찰, 면담

⑤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분석

- 평가 참여자 :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학생, 교육 행정가
- ※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교육과정 운영 평가’ 부분 참조

실태 분석에서 유의할 것은 먼저 조사 항목과 대상을 정선하여 분석하는 일이다. 전체적인 경향과 개별적인 경향을 명확히 하도록 하며, 객관적·주관적인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실태를 나타내게 한 요인을 자세히 분석하며, 실태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추출하여 활용한다.

(다) 편성의 기본 원칙 설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공통으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규, 기준, 지침과 교과용 도서 및 각종 계획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야 한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해설서, 교육감이 고시한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필요하다. 교과목별로 편찬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교과목별로 다루게 되어 있는 내용에 관련된 배경 학문 도서, 각과 지도법에 관한 전문 도서, 교과 관련 학문의 최신 동향 자료

와 통계 자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시·도 교육청의 장기 발전 계획, 교육 시책, 업무 계획 등에 관한 자료와 해당 지역의 발전 계획, 기본 통계, 시책·업무 계획 등에 관한 자료, 지역의 역사, 지리, 산업, 문화, 자연,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다. 당해 학교의 장기 발전 계획과 각종 조사 자료(학력, 체력, 생활, 시설·환경 학부모 관계 등)와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실적, 학교 경영 실적 평가 자료 등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세밀히 분석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시사점을 추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교과별로 실시한다. 지역 특성, 지역 실태, 학생 실태를 고려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국가 기준과 지역 지침을 검토할 때 유의할 점은, 그 기준과 지침이 당해 학교 학습자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수준의 적합성, 문화적 적합성, 지역적 적합성, 실용적 유용성, 지역적 필요·요구와의 합치성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능력 수준과의 적합성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매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학습은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준, 분량, 시간의 조정 작업은 학습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력 진단, 생활 진단 등을 철저히 하여 적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학교상을 정립해야 한다. 먼저, 교육 활동에 대한 그 학교의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교육 활동에 대하여 학교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토의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통일된 생각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다음, 학교관을 정립해야 한다. 학교의 기능, 학교 학습, 공교육, 학교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능력 개발, 개성적 자아실현을 돕기 위하여 어떠한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검토하고, 각기 자기 학교가 어떠한 학교가 되어야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학급을 경영하고, 학년을 경영하고, 학교를 경영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적인 경영 방침, 교육 방침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작업이다. 이와 같은 학교 경영관은 경영자와 구성원의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 등과 관련이 있으며, 교원 간 인간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인간관계, 조직, 제도 등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넷째, 학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학생관을 정립해야 한다. 학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리는 현대 사회를 직시해야 하고, 현대 속의 학생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태도를 결정해야 하며, 미래에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특성, 능력, 태도 등이 대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도 있어야 한다. 설문지 조사나 평소의 관찰 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를 생각하고 정립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 목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포괄적인 목표이므로 이 목적과 목표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를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구체화된 학교 교육 목표는 그 학교 교육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극을 주고,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고, 이념, 철학, 가치 의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섯째, 당해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본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떤 유형의 교육과정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성격과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할 것인가’ 등을 생각하고 입장을 설정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나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등과 같은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어떠한 성분과 유형으로 정립할 것인가, 또는 통합, 광역, 상관 등의 형태에 따라 기본 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학생 조직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유형과 성격이 정리되면 학습자의 집단을 어떻게 조직하고 편성·운영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학급 편성, 수준별 수업 운영 학습 집단 편성 등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조직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교육과정의 성격과 유형, 학습자 집단의 조직 등에 맞추어 교사 집단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한다. 교과별 교사 연구 협의회, 동학년 교과 연구 협회, 교육과정 위원회 업무 부서별 협의회 등이 중요한 예가 되며, 일반 교사, 실기 교사, 보조 교사, 그리고 행정, 기능직의 지원 체제, 직원회의 성격, 연구 협의회, 자체 연구 등도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2)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공통 지침과 초등학교 지침은 다음과 같다.

<공통 지침>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①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②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 한다.

③ 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 (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마) 수준별 수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운영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①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 (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급별 지침>

(가) 초등학교

- ① 초등학교의 교과 중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된 교과는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감축된 교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체험 활동 등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②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③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초등학교 재량 활동에서는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결정 사항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초 조사와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시사점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이나 방향을 결정한다. 당해 학교장의 교육적인 신념과 판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 경영 방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 목표와 그해에 특색 있게 강조해야 할 노력 중점이나 교육 중점을 교과별, 학년별로 뚜렷이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작업 시에 판단하거나 선택, 결정할 사항 중 비교적 공통적,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교육 목표의 결정

- 교육 가치성, 실천 가능성,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교과 목표, 학년 목표, 영역별 활동 목표 등의 하위 목표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상위 목표를 설정한다.
- 학교의 졸업생이 먼 훗날에도 기억하고 그들의 인간성과 기초·기본 지식, 능력 형성 등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목표로 설정한다.

② 교과별 학년 목표의 결정

- 국가 수준 기준에는 교과별로 학교급별 학년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에 당해 학교의 학습자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년 목표를 필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학년 목표의 수준, 목표 수, 설정 영역 등은 그 학교의 학생에 적합하게 결정해야 한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별 목표를 근거로 구체화, 상세화 한다.

③ 교과별, 학년별 교육 내용의 결정

- 국가 수준에 제시된 교과별, 영역별, 학년별 교육 내용을 골격으로 상세화, 보완한다.
- 교육 내용을 상세화, 간략화, 중점화, 특성화, 보완화, 통합화하는 작업을 한다.
- 소재 선정 시에는 학습자와 친근한 것, 간단한 것, 최근의 것, 보편적인 것, 구체적인 것부터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중시한다.

④ 교육 내용별 소재의 결정

- 교육 내용별로 그 지역, 그 학교에 적절한 수업 소재를 선택·결정한다.
- 소재 선정 시에는 학습자와 친근한 것, 간단한 것, 최근의 것, 보편적인 것, 구체적인 것부터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중시한다.

⑤ 교육 방법의 결정

-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해설, 설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팀티칭, 협력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 등을 도입한다.
- 학생의 직접 체험 활동, 소그룹별 공동 과제 해결 활동, 개별 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선택한다.
-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⑥ 학습 시간의 결정

- 교육 내용의 수준과 분량, 특성, 학습 형태와 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습 시간을 배당한다.
- 고정적인 학습 시간 배당의 종래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배당한다.

-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차에 따른 소집단별 학습 시간을 고려한다.
- 특별 활동의 영역별 학습 시간을 균형 있게 배정한다.

⑦ 학습 시기의 결정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배열 순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 학교에서 학습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를 결정한다.
- 특히, 계절, 기후, 세시 풍속, 국가 및 지역의 행사, 환경, 자연계의 생태, 각종 역사적, 사회적 사건 등과 관련 있는 교육 내용은 학습 최적화 시기에 학습 과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⑧ 학습 형태, 학습 조직의 결정

- 학습과제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선택한다.
-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조화 있게 이루어지도록 배합, 조직한다.
-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결정한다.

⑨ 학습 매체의 결정

- 학습 매체는 교사용, 학생용을 모두 포함하여 선택·결정한다.
- 교수·학습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포함하여 선택하고, 견학, 방문, 실습과 자원 인사 조빙도 학습 매체 선정 시 계획해야 한다.
- 교과용 도서 외에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⑩ 평가 계획의 결정

- 평가 도구,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을 결정한다.
- 선다형, 선택형, 서술형 등 학생의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정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 학생은 기대하는 대로 성장하기보다는 평가하는 대로 성장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결정과 함께 특히 교과와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경우에는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목표는 없는지, 재구성·조정·통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학생 실태에 비추어 상향 또는 하향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지도 순서·시간을 조정하거나 계절·행사와 연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나 적절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등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는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침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재량 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량 활동에 필요한 교육 자료나 인정 도서의 사용은 시·도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는 교과와 특별 활동의 학년별 성취 수준의 설정하고,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

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방법 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작성된 학교 교육과정 시안은 심의·검토 과정을 거쳐 모든 교직원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고, 교직원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확보

수업 일수와 수업 시간 수는 학년별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 등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 걸쳐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특별 활동의 하위 영역에 따라서는 별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주 5일 수업제의 부분적 시행기에 개정된 것으로서, 수업일과 시간의 운영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주 5일 수업제 월 2회 시행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수업 일수에 대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 등) 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 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연간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주 5일 수업제의 부분적 시행에 따라 종전의 주 6일 수업제에서 규정된 연간 220일에서 10% 감축한 198일까지 최소 수업 일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수업 일수의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교는 그 지침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⁷²⁾ 주 5일 수업제의 부분 시행 기에 학교는 더 융통성 있게 수업 일수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확보, 계절에 따른 교육과정 시간 운영, 학생의 발달 정도를 고려한 교육 활동 시간 조정, 교육과정 주간 운영 계획, 학생의 능력과 교과 특성에 따른 집단 편성과 활동 주제 등을 탄력적으로 계획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 시간 배정,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도서관(실) 등

72) 교육인적자원부의 주 5일 수업제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예컨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연간 205일을 권장하고 있다(www.sen.go.kr).

특별 교실 활용과 교과 전담제 운영에 따른 시간 배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연간 교육과정 이수 시간을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과 특성, 활동 주제와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나, 특히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반드시 이 기준에는 미달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고정적, 획일적인 교육과정 시간 운영을 배제하기 위하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학년별 주당 평균 시간 수를 삭제하고 연간 최소 이수 시간 수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을 주어 학교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당해 학교의 편제와 시간 배당에는 수준별 수업 운영, 복식 학급 운영, 귀국자 자녀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영재아 및 심신 장애 특수아 교육, 교육 자료 활용, 독서 교육, 환경 교육, 자연 탐구 활동, 국제 이해 교육, 예절 교육, 경제 교육, 안전 교육 등 각종 교육 계획이 연간, 학기 간, 월별, 주별 및 하루의 운영과 관련지어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㉔) 탄력적인 시간 확보와 조정

초등학교 수업의 단위 시간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나, 계절, 학교 실정,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특성, 교과 통합 운영 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므로, 고정적인 일과표 운영이나 시간 배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간 학습 계획을 융통성 있고 창의성 있게 수립,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연간, 학기 간, 주간 및 일일의 시간 운영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확보 및 조정 절차와 유의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간 확보와 조정의 절차

㉑ 연간 수업 일수의 책정

- 월별로 일요일, 경축일(국경일, 기념일), 기타 공휴일 수를 계산하여 1년간의 수업 일수를 정확하게 산출한다.
-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및 학년 말 방학 일수를 고려하여 연간 수업 일수가 시·도 교육청의 권장 일수 이상이 되도록 수업 일수를 책정한다.
- 요일별 수업 가능 일수를 산출한다.

㉒ 연간 행사 계획표 및 행사 시간 배당표 작성

- 특별 활동의 영역별 활동 시간을 배정한다.
- 특별 활동의 학교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을 배정한다.
- 학교 행사의 시간 배당 때는 사전, 사후 지도 계획도 세운다.

- ㉠ 연간 수업 시수를 학년별로 배정한다.
 - 요일별 기본 배당 시수를 학년별로 배정한다.
 - 월별, 주별 수업 일수를 확정하고, 학년별,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의 수업 시수 배정표를 작성한다.
 - 학년별,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
 -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와 심화·보충에 필요한 시간은 별도로 확보한다.
- ㉡ 월별 교육 활동 세부 시간 배당 계획 작성
 - 연간 행사 계획과 수업 시수 배당표를 기초로 월별, 일별 교육 활동 세부 시간 배당 계획을 세운다.
- ㉢ 연간, 학기 간 학급별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 및 일과표 작성
 - 앞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기초로 연간, 학기 간, 월별, 주별, 일별 시간 배당의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 월별, 주별 시수가 확정되면 감축, 증가하는 과목의 시간 수를 결정하고 시간을 배당한다.
 - 월별 또는 주별로 월간(주간) 학습 안내표 또는 일과표를 작성한다.
- ② 유의할 사항
 - ㉠ 학기 구분, 연간 수업 일수, 각 교과 및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의 기본적인 시간 배당은 이 지침을 따르되 주당 수업 시간 수는 고정하지 않는다.
 - ㉡ 계절에 따른 교과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 ㉢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단위 수업 시간을 기후, 계절, 학교 사정, 행사, 교과 특성, 학습 내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주간 학습 안내표 또는 일과표는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교과와 특성과 학교 행사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작성한다. 또한, 하루의 생활 시정표도 융통성 있게 작성한다.
 - ㉤ 월별 교육 활동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월별 또는 주별로 학습 안내표 또는 일과표 작성의 근거로 사용한다. 이 지침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주당 시수가 배정되어 있지 않으나, 모든 교과가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일과표를 작성한다. 고정 일과표가 아닌 데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간 학습 계획을 작성하여 가정에 배부한다.
 - ㉥ 연간 수업 일수를 확보하고,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 수업 시간 수에 별도로 배정한 수업 시간 수를 합산하여 각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이수에 소요되는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를 산출한다.
 - ㉦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수업 시간 수를 산출하여 해당

교과의 수업 시수에 합산한다.

- ㉠ 학교의 행사는 어느 일정한 요일에 계속해서 배당하지 않는다.
- ㉡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별도로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수업 시간 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 강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교과 중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된 교과는 그 교과에 배당된 학년별 수업 시간 수에서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의 시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감축된 수업 시간 수를 증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감축된 교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체험 활동 등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증배 활용된 수업 시간 수도 당연히 감축된 해당 교과의 수업 시간 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의 교과 중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된 교과는 1, 2학년의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와 3, 4, 5, 6학년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과이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모든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동의 학습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가지도록 한 점이 특색이다.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급의 학생들이 발표력이 부족하다면 발표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창의력, 사고력 신장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소집단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급의 학예 행사 활동, 학급 문집 만들기, 작품 전시회, 발표회, 연극, 무용 등의 종합적인 활동을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다채롭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기 초의 생활 지도, 기본예절, 기본 생활 습관, 학습 방법의 학습 훈련, 역할 분담 활동, 질서 지키기, 학급 생활 반성과 계획 세우기, 교실 정리 정돈, 민속놀이 등 얼마든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교사 임의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실정,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 답사나 조사 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동회, 현장 학습, 학예회 등을 위해서는 각 교과에서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어 통합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당 교과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그

활동 시간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 시간 수로 산정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량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교육 활동은 교과뿐만 아니라 특별 활동이나 재량 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에서는 학교의 교육 중점에 따라 어떤 교과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조정하여 해당 교과목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에 배정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㉞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의 편성

2006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더욱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은 단위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내용’을 근간으로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내용과 방법을 처방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단위 학교는 학교의 특성 및 현실에 기반을 둔 수준별 교육을 도모함으로써, 수준별 수업 교과 및 학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수준별 수업 방법의 자율성도 갖게 된다(박순경 외, 2006: 58-59).

초등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준별 반을 편성할 것인지 수준별 분단을 편성할 것인지의 문제와 수준별 반/분단으로 상정되는 수준별 집단 대신에 이질 능력 집단을 편성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수준별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모든 학생들의 개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의 개별화이다. 학생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개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편으로서의 수준별 반 또는 분단 편성은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하나의 교육적 관례로서 존중되어야 하기보다는 교육과정의 개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한가지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㉞ 복식 학급 편성·운영을 위한 교육 내용의 조정

우리나라에는 현재 학교 규모가 작은 소규모 학교가 많고, 1개 학년이 1개 학급인 단식 학급이나 2개 학년 이상을 한 학급에 수용하여 운영하는 복식 학급이 상당수가 된다. 게다가 복식 학급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6년 복식 학급의 수는 5,264개로, 전체 학급 수 126,326개의 4.1%에 해당하나,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급 수가 적을 것을 고려하면, 전체 학교 중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⁷³⁾.

현재 소규모 학교 내에서 복식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학년 간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

73) 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http://std.kedi.re.kr/index.jsp>)

을 의미한다.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규모가 작은 학교는 2개 학년을 묶어 수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복식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복식 수업은 1교시 40분을 2등분하여 이루어지며, 일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실시하거나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교과와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공통의 주제나 공동의 과제를 선별하여 이를 수준별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과 통합적인 교육 활동, 직접적인 체험 활동, 주제 중심의 다양한 교육, 수준별 수업 운영 등은 학생의 학습 능력을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육 시설·설비, 인적 자원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학년 체제 운영 방식과는 달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도 있다. 복식 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 교재의 재구성,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이 지역 교육청, 교과 연구회 등의 지원 아래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 다양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⁷⁴⁾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되며 후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되었으나, 새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재량 활동 자체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익한 학습은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 세계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즉, 자기 주도적인 과정으로서의 학습의 의미와 주체적인 해석 과정으로서의 학습의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 자신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거나, 학습자 인지 갈등의 의도적인 유발, 통합적인 학습 자료의 제공, 학습자의 문제의식에서 제기되는 탐구 기회의 부여 등은 모두 이와 같은 학습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원리들이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교재(학습 자료)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기준으로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할 수 있음을 요구한다. 학문적인 논리를 따라 객관화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과정보다는 학습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습의 과정과 절차를 계획하여 실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중시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74)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구성주의적 학습관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구성주의란,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환경, 즉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려는 학습 이론이다. 그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상황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스스로 진단하여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가공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구성주의적 학습 원칙을 통해 실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인 학습은 교사 또는 학습 자료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에서 벗어나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를 스스로 수행해 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습관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재량 활동은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국어 사용 능력 신장

초등학교의 교육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 수리적인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 능력 및 창의성 등과 같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충실히 하는 데 중점이 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은 초등학교의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도록 구체적인 체험과 실천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에서도 기본예절, 질서, 청결, 절제, 준법, 공중도덕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힘쓰도록 하였다. 기초·기본 교육 충실, 직접적인 체험 활동 강화와 기본적인 생활 습관 형성은 초등학교의 특성이기 때문에 제4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계속해서 한결같이 강조되어 온 중점 사항이다. 이와 같은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의 실천은 일상 생활속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지도되도록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정 및 사회와 연계되도록 적절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 중점을 설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저학년부터 우리말,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기초·기본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국어에 대한 정확한 표기와 발음,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이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통합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 신장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는 이러한 초등 교육의 특성이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모든 교육 활동에 걸쳐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수립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실천, 운영하는 일은 학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교육 활동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공통 지침과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운영

- (가)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 운영한다.
- (나)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인성 교육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단위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습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라)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① 각 교과에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 ②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힘쓴다.
 - ④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⑤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 ⑥ 교과와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⑧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 시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 ⑨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마) 특별 활동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중점 영역을 설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가꾸어 나가도록 한다.
 - ①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성, 취미, 흥미, 특기 등이 충분히 신장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②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자질이 형성될 수 있는 자율적인 집단 활동이 되도록 한다.
 - ③ 지역 및 학교 실정과 활동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집중 연속적인 이수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 ④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의 기회를 마련한다.
- (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한다.

- (사) 교과용 도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 (야)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 (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차)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카)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파)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교원의 전문성 발휘와 교원 연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은 교원의 본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업무 영역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의 준비, 편성 작업, 심의·검토, 수정·보완, 확정 등의 모든 과정에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교원이 합의를 하여야 하며, 교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직 속에서 일정한 역할과 임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동 학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지구별 장학 협의회 등을 통하여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원들은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자체 연수의 강사가 되기도 하며, 수업 공개 등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힘써야 한다.

(나) 범교과 학습 활동의 통합적인 운영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사회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한 범교과 학습 활동을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을 비롯하여 위의 지침 (아)항에 제시된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은 재량 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교과와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범교과 학습 활동의 주제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 교육 시책, 자기 발전 계획상의 사업, 국가 시책·중점 사업 등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환경, 교통, 절약, 안전, 질서·준법, 경로 효친, 예절 등과 같이 국가적, 지역적, 시대적, 사회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범교과적인 학습 내용은 회의 자료나 장학 계획, 협의회, 공문 지시 등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서 학년별로 학교 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편성되어야 하고, 심도 있는 수업을 통하여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에 따른 교육활동 사례는 재량 활동 교육과정 해설 부분에 상술되어 있다.

(다) 수준별 수업 운영 시 고려 사항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경우 학교는 학년도마다 수준별 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 운영 시 학급 내 학습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교과의 특성, 활동 주제의 성격, 학생의 개인차 등에 대한 교사의 판단에 따라 단일 활동 일제 수업, 단일 활동의 수준별 수업, 복수 활동 수업 등을 수행할 수도 있다. 학습 집단 편성 및 수업 방법은 교과, 활동 주제, 개인차,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저·중·고학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운영 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이질 학급 내 수준별 분단 편성
 - 수준별 분단 편성 방법 : 진단 평가나 교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3~4개 정도의 수준별 소집단(심화, 기본, 보충 집단) 편성
 - 수업 진행 방법 : 소집단 순환 학습 지도

- 교사가 소집단별로 돌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집단은 자신의 수준에 따른 개별 학습 진행
-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이질 학급 내 협력 학습을 위한 이질 분단 편성
 - 분단 편성 방법 : 학업 성취 수준차 고려 없이 무작위로 4~10개 소집단 편성
 - 수업 진행 방법 : 교사가 전체 집단 대상으로 기본 과정 중심의 수업 실시 후, 소집단별 협력 학습 실시, 전체 집단 대상 수업 후 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집단에 다가가 보충 지도함.

무엇보다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에 예시된 바와 같이 교사 및 시설 등의 교육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실 여건 :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 자유로운 책상·의자 배치
 -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이 가능한 교실
 - 사물함 설치 : 학습 집단의 편성 및 이동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사물함을 설치해 주어 개인 소지품을 사물함에 두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사 여건 :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에 관한 지식과 기능 숙달
 - 전체 강의, 소집단 순환 학습 지도, 개별 학습 지도 능력
 - 이질 능력 집단의 협력 학습 지도 능력
 - 예·체능 전담 교사 확보 : 수준별 수업의 진행으로 인한 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3학년부터 예·체능 전담 교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조 교사, 자원 봉사자 활용 : 소집단 지도나 개별 학습 지도 시 교사를 보조
- 교수·학습 자료 여건
 - 심화와 보충 내용 지도를 위한 학습 지도안 작성
 - 개별 학습용 평가 문제지 준비

교수·학습 자료는 원칙적으로 단계별 또는 학년별 교재를 사용한다. 심화 내용과 보충 내용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심화 교재나 보충 교재는 시·도 교육청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사용하거나 단위 학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보충 자료는 교사가 담당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의 자료를 구성하여 사용하거나, 학습 정도에 따른 다양한 교재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 일관성 있는 지도와 융통성 있는 운영

교육과정은 충실히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시간, 장소, 조직, 주제 등의 면에서 발휘될 수 있다.

- ① 탄력적인 시간 운영 : 고정, 연속, 분산, 집중
- ② 장소 활용의 융통성 : 교실, 야외 교실, 체육관, 지역 사회
- ③ 교사 조직의 융통성 : 담임 교사, 교과 전담, 명예 교사
- ④ 다양한 활동 주제의 선정 : 학생, 학부모, 자원 인사의 아이디어
- ⑤ 집단 편성의 융통성 : 학급, 학급군, 학년, 학년군, 전교
- ⑥ 자원 인사 활용의 융통성 : 자원 봉사자, 지역 사회 인사

각 교과와 교육 내용의 조직은 학년, 학년군 또는 단계별로 다루어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필수 학습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선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교과와 특성에 알맞게 선정, 배열되어 있는 핵심적인 개념, 아이디어, 지식, 원리, 기능, 가치 규범, 주제, 제재, 소재를 한 단계 더 상세화한 수준에서 이루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교사의 책무성을 다하여야 한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려면 학습의 결과만을 인식하는 것 보다는 탐구하는 방법, 문제 해결 과정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율적인 학습’,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공동의 학습 경험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협동심, 공동체 의식 배양과 같은 정의적 측면의 교육은 바른 생활, 도덕, 국어 사회과 등의 특정 교과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표현적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 오히려 확실하게 육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전 교과, 전 영역에 걸쳐 공동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해야 한다.

공동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학습 활동을 전개할 경우 사전 연구와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며, 교사 상호 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정보를 교환하고 협동적으로 지도하는 가운데, 특정 교과와 학습을 통해 기르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에 설정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과 학생 실태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대도시와 개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실 내에서만의 강의식 수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되도록 발표·토의 학습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실험·관찰, 조사, 수집, 조작, 토론 견학 등 직접적 체험 활동 중심의 학습을 조장하고,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나 지도서 등의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내용은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과나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우리는 흔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야 하고, 평가 문항의 출제도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 학교 교육이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교과나 특별 활동의 지도에서는 궁극적으로 학생이 성취하여야 할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그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효과적인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자원 인사를 활용하고, 시설·설비 등 공동의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 애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과학, 실과 등의 실험·실습이나 예·체능 교과의 실기 지도에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사전에 미리 점검해 보고, 학생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는 남녀 구분이 없이 모두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마) 특별 활동의 탄력적 운영

특별 활동의 운영에서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별로 다양한 활동들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되, 학교의 특성을 살려 특정 활동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세워나간다. 즉, 축구를 잘하는 학교, 미술에 뛰어난 학교, 예절 바른 사람을 키우는 학교, 문인을 많이 배출한 학교,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교, 학생의 자율 활동이 뛰어난 학교 등 모든 학교가 각기 특색 있는 전통을 세워나가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도서관, 수영장, 야구장, 교회, 사찰, 박물관, 자연 관찰원, 민속촌 등의 시설과 도서관의 사서, 종교인, 사진사, 야구 심판, 미용사, 교통 경찰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에 소재한 다른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운영을 할 수도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근에 있는 중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함께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특별 활동의 시간 운영은 고정 운영, 연속 운영, 분산 운영, 집중 운영의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이는 특별 활동의 각 영역, 활동 주제의 특성, 계절이나 기후, 학급·학년의 과제, 학생의 흥미와 요구, 학교의 실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특정한 방안만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별 활동을 운영하는 방법은 학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정일제 운영
 - 매주 1시간씩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고정적으로 실시
 - 희망자가 많은 계발 활동 부서는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I, II반으로 구분
 - 학생과 교사의 희망 수용, 학교 실정에 알맞은 부서 조직
- 격주제 운영
 - 격주로 연속 실시
 - 일과표를 격주로 달리 작성
 - 연간 운영 계획을 신학년도 이전에 미리 작성
- 전일제 운영
 - 주6일 수업하는 주의 토요일에 실시
 - 지역 사회 시설, 인적 자원, 장소의 최대한 활용
 - 우천 시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 학습의 직접 체험 활동 강조

자치 활동과 적응 활동의 활동 영역에 따라서는 분산 운영이 효과적이기도 하나, 계발 활동에서는 연속 운영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봉사 활동이나 행사 활동의 경우 집중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더 상세한 초등학교 특별 활동의 편성·운영 방안과 활동 사례는 특별 활동 교육과정 해설 부분에 상술되어 있음.)

㉞ 다양한 학습 자료 활용

새 교육과정에서는 ‘1교과 다 교과서 체제’를 지향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개발 등을 표방하고 있다. 21세기에는 각 교과목의 교수·학습 자료가 ‘서책’에 머무르지 않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자료의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과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학생용 자료인 교과서만이 아니라, 워크북, 워크시트 등의 자료가 다양하게 개발, 보급될 것이므로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참고 자료, 기타 교육 자료와 각종 교구, 교육 기자재 등의 적절한 선택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때,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교육 목표, 학습 목표와의 일치도, 지도상의 유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때로는 자작 교재, 교구, 자신의 수집 자료, 복사 자료 등이 훌륭한 학습 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개인별 연간 교수·학습 계획에 치밀하게 반영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적·보존하여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V-5> 교과서관의 변화

구 분	전통적인 교과서	바람직한 교과서
교과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과옥조형 교과서 ◦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 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주된 자료)인 교과서 지향 ◦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 기능·태도 영역에 유의하고, 창의력, 사고력 배양 강조
교과서 진술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요약형, 개념 압축형, 강의 요약형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실, 사례 제시형, 학습 과정(절차와 방법) 중시형 교과서
단원 전개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과서에 하나의 전개 체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실, 사례 제시형, 학습 과정(절차와 방법) 중시형 교과서
내용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중심, 교사 중심의 내용 선정 ◦ 교과서 내용의 실생활과의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개념과 관련된 실생활 경험, 사례 중심, 학생 중심 내용의 선정 ◦ 교과서 내용의 실용성, 유용성 추구
내용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체계별 단선형 조직 ◦ 문장과 삽화의 단조로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식과 실생활 경험을 통합하여 조직 ◦ 다양한 편집 체제의 도입
연구 개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연구가 소홀히 된 교과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연구를 보다 중시한 교과서 개발

(사) 독서 계획의 수립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좋은 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모든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서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독서 목록에 문학 분야를 비롯한 인문, 사회, 과학에 걸친 여러 영역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교양을 풍부히 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며, 교과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 마음과 정신이 성장한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등 학생들은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자신의 꿈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아) 특수 학급 설치 운영 및 특별 프로그램의 개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 정서 장애 등 심신 장애 학생들은 해당 특수 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수 학생의 교육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학습 자료도 학생의 개별화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특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다. 방과 후 교육 활동이 교육과정의 한 영역, 특별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국가·사회 및 개인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4)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결과는 1학기말과 학년도 말에 전 교직원의 참여 아래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교 교육과정 자체의 평가, 학교 교육과정 실행 여건의 평가 등으로 나누어 시행되어야 한다. 이 평가는 학교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학생의 성취도 평가는 그 학교 교육과정을 준거로 학년별, 교과별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여야 하며, 선다형 지필 검사에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자체 평가는 프로그램의 적절성, 학습량, 수준 등에 주로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실행 여건 평가는 시설·설비, 교재, 교구, 학습 자료 등 주로 학습 환경 및 학습 매체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다음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개선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원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지역의 특성,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은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 체제로의 전환은 교육의 다양화, 실용화, 효율화, 개성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리고 자존심과 긍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정착을 위하여 학교에서 역점을 두어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 체제의 확립

교육 현장에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학교의 업무 분장 및 운영 체제를 행정 중심의 ‘관리·사무 체제’에서 교육 중심의 ‘교육·연구 체제’로 과감하게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 업무 분장을 교무부, 연구부, 생활부 등과 같이 사무·관리 중심으로 조직하였던 것을 도덕부, 국어부, 수학부 등과 같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주업무 분장을 바꾸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무·관리 기능은 부업무로 분담하도록 전환해서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의 운영 체제는 행정·관리 기능보다는 교육·연구 기능을 대폭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의 모든 활동과 교육, 조직, 경영 등이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집약되도록 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 연구실의 확보

유휴 교실 및 여유 공간을 활용하거나 개축,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동 학년 연구실(초등학교), 교과 연구실(중등학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한 연구실은 교육과정 연구와 수업 준비, 평가 처리, 각종 작업, 협의, 휴식 등을 겸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꾸며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도서와 자료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신축 학교에는 교사 연구실을 필수적으로 기본 시설에 포함하고 기존 학교에도 교사 연구실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교육 행정 기관 또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학교에 시달·요구되는 제반 시책, 사업, 협조 요청 업무, 관계 행사들은 반드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교육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그 결과,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의 각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 활동 등이 그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 없이 교사의 일시적 잡무나 전시적 행사 등으로 운영되는 일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을 침해하면서 수시로 요구되는 시책, 행사 등의 비교육적 폐해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직결되는 예산 지원

학교의 예산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집행되어야 한다. 매년 신년도 학교 예산 편성 작업 시에는 각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으로부터 신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구, 학습 자료, 기재, 기구, 소모품, 각종 재료, 현장 견학 등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상세하게 신청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편성·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육과정에 직결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비교적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시설·설비(체육관, 수영장, 특별 교실, 사육 시설, 방송 시설·기자재, 고가의 시청각 기재, 악기, 컴퓨터 등)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청 등과의 협의 아래 단계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나가도록 한다. 이때,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설비가 가장 시급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투자 효과가 큰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학교 자체의 합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적합성 제고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해당 교과와 다양한 학습 과제를 언제 다루는 것이 가장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시기적, 시간적 적합성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지역, 장소, 환경, 시설 등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소재의 적합성과 해당 학습 과제와 직결된 인적 자원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계획이 장기간의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경영 기술과 계획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6)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및 자체 연수 시행

사회 교육 기관, 교외의 문화 기관과의 연계를 피하여야 한다. 지역 사회의 회관, 스포츠 센터, 공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문화 센터 등을 매년 조사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원 조사와 연계·활용 계획도 필요하다. 또한, 교원 자체 연수를 시행하고,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시로 교내 연수를 통해 각 교과 지도법, 교재에 대한 연구·조사, 학년 목표 설정과 수정 작업 등을 시행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 장애 요소를 분석, 평가한다. 분석된 개선점과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추출하여 다음 학년도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운데서 향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를 더욱 내실화할 때에는 학습 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현장 교사의 개선 의욕과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사의 기본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질이 좌우될 것이다.

첫째, 교사는 학습의 목표 의식과 과제 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이 학습 과제는 무엇 때문에 다루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 학습이 이 단계의 학습자에게 왜 요구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뚜렷하게 인식하고 지도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의식과 인식이 불분명하면 학습 지도의 개선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만 들여다보면서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루는 ‘교과서 중심 교육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기준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시·도 교육청)을 자세히 분석, 연구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교사가 교육 내용의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 중심 교육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교사는 학습자에 대해 더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학습자의 개성과 능력, 흥미, 관심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 학습자가 이러한 과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학습자는 어떠한 면에 강하고 어떠한 면에 약하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 학습자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떠한 희망과 진로를 택하려고 하는가?’ 등 학습자의 특성과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학습은 학습자와 교사와의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교사의 일방적인 학습 진행으로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 하겠다. 학습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 원리를 충실히 적용한다 해도 학습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교사만 학습시켰다고 만족하는 수업’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교사가 학습자에 대해서 세밀하게 탐구하고, 조사하고, 그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와 성향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학습 지도를 개선할 수 없다.

끝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 기준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오늘의 학습자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 지도를 담당한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 내용의 주인’이 되어 줄 것과, ‘학습자 개개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교육’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와 ‘학생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는 길이 바로 교육 개혁의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4.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가. 국가 수준에서 시행하는 평가 활동

새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평가의 종류와 시행 지침을 새 교육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1)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단위) 배당, 편성·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학생의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상태를 일정 주기로 평가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평가의 주목적은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것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의 부분 수정을 위한 것이다. 이는 학교 기관 평가의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기관 평가는 단위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일정한 주기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유인가(incentive)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질 관리의 하나로,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한다.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의 절대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성취 기준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학력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시·도 또는 지역 교육청별로 일정 수의 학교를 표집하여 몇 개의 학년과 몇 개의 교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 학년, 교과, 주기 등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적절하게 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력을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나. 국가 수준의 평가 지원 활동

국가는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기도 하여야 한다. 국가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새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나.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 (1)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여 에듀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학교가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새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가 수준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우선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게 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경우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몇 년 동안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하여 교과별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개발, 의뢰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과별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을 시·도 교육청에 보급하고, 각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 각 단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절대 평가 기준’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학교가 새 교육과정 정신에 들어맞는 평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도록 새 교육과정은 요구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동안 국가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교과별로 많은 문제들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개발된 수많은 교과별 문항들을 문제은행식으로 보관하고 있어 단위 학교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므로 기존의 교과별 문제 은행의 문제들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 저장함으로써 현장 학교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새 교육과정의 질이 잘 관리되게 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교과별로 다양한 종류의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평가 도구의 개발, 보급이 필수적이다. 물론 현재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변화되었을 경우 새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평가 활동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도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새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평가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질은 궁극적으로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질로 판정된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질 높게 운영되도록 국가 수준의 질 관리 노력을 한다. 그러나 단위 학교들은 행정적으로는 해당 시·도 교육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의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도록 그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질 관리 방안으로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학업 성취도 평가나 단위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전반에 걸친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에 관한 지침

국가 교육과정이 실천되는 현장은 학교이다. 따라서 각각의 단위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질이 전체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질을 결정한다. 단위 학교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질 높은 평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새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평가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교육과정 총론의 두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운영 부분

(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매년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징,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잘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매년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새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더 질 높게 편성,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평가가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인 것이다.

(2)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부분

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1)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2)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3) 교과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5)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6)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유의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7) 초등학교의 교과 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8)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過程)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교육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평가의 참여자를 교사, 학부모와 학생 등으로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매년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자체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며, 실제로 작성된 학교 교육과정의 활용성,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1968년 중학교 입학시험 제도가 폐지된 이후 1973년에 공포된 제3차 교육과정부터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지향적 평가로 이미 전환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 위주의 평가가 계속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과서 밖에서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르친 교사가 스스로 출제하여 학생의 학습 성취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채택하여 점수 위주, 서열식 상대 평가를 하는 비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현상도 있었다.

학교 생활 기록부는 정보 제공, 기록, 보관 등을 위한 법정 장부이다. 그러나 학생 발달 상황의 정보 제공을 위한 통지표와 수업의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학생의 활동 상황과 진보의 정도를 계속적, 누가적으로 기재해 나가는 평가 기록부는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과와 특별 활동의 평가 목표에 따라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학교마다 특색 있고 창의적으로 통지표 또는 평가 기록부의 양식, 기재 요령을 작성,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활동, 상황,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계속적, 누가적으로 기록하여야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으며,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교육 평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요망된다. 평가는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정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에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학습의 결과로 도달하게 되는 도달점의 확인이라고 하는 평가에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과서 내용의 암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의 이해 습득 정도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과와 특별 활동의 평가 방향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알맞게 각 교과 및 특별 활동의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사가 기획, 출제하고, 처리하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성을 지닐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직접 가르친 교사가 제작한 평가지를 활용하여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에서 서술형 주관식 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제까지 학교 교육에서 선다형 객관식의 지필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의 역기능 현상을 줄이고, 평가의 적극적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다.

실험·실습의 평가는 사전에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공개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목표점을 명확히 밝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태도, 표현, 기능 평가를 위한 실기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모든 교육 활동의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식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록 방법의 개선은 평가 방법 전체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안을 작성·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 즉 수행 평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형 또는 주관식 검사, 논술형 검사, 구

술 시험, 찬·반 토론법, 실기 시험,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자기 평가 보고서, 연구 보고서,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함께 교사의 교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결과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교육의 질을 충실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한다.
- 나. 교육인적자원부 직할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3년제 과정),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 (1)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 시간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68시간 미만으로는 감축 운영할 수 없다.
 - (2)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외의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특성화 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과정 연구학교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는 매 학년 22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 5일 수업 실시 또는 연구학교 등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업 일수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록 1] 총론의 주요 개정 사항 비교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교육과정의 성격	○ 교육과정 고시의 법적 근거 - 교육법 제155조 제1항	○ 교육과정 고시의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추구하는 인간상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등	○ 현행 유지	○ 제7차 교육과정 철학 유지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기본 능력 육성 등	○ 현행 유지 -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 내용 삭제	○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고시('06.8.29) 반영
교육 목표	○ 학교급별 교육 중점 및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	○ 현행 유지	○ 제7차 교육과정 철학 유지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기준	○ 연간 총 수업 시간수 - 초등 1, 2 : 830, 850 - 초등 3, 4 : 986 - 초등 5, 6 : 1,088 - 중 1~3 : 1,156 - 고1 : 1,224(72) - 고2, 3 : 144(136+8)	○ 연간 총 수업 시간수 - 초등 1, 2 : 830, 850 - 초등 3, 4 : 952 - 초등 5, 6 : 1,054 - 중 1~3 : 1,122 - 고1 : 1,190(70) - 고2, 3 : 140(132+8)	○ 월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수업 시수 감축 ※ 초등 1, 2 : 현행 유지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 중, 고 사회 교과 (고1 국사 : 주당 2시간) - 고1 과학 : 주당 3시간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 중, 고 사회, 역사 과목 분리 (고1 역사 : 주당 3시간) - 고1 과학 : 주당 4시간	○ 역사, 과학 교육 강화 요구 반영
	○ 고등학교 보통 교과 - 일반 선택, 심화 선택 구분	○ 고등학교 보통 교과 - 선택 과목으로 단일화	○ 사회적 요구 반영
	○ 고등학교 선택 과목 신설 - 교양 교과에서 전문 교과 개설, 과목 신설	○ 고등학교 선택 과목 신설 - 보통 교과에서 전문 교과 개설, 과목 신설	○ 학교 단위 자율성 확대
	○ 외국어 계열 필수 과목 - 각 외국어 I 및 청해	○ 외국어 계열 필수 과목 - 기초외국어(심화 영어), 청해, 회화 I, 문화 I, 독해	○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 강화

[부록1] 총론의 주요 개정 사항 비교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 교과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 중학교 : 교과재량 3시간, 창의적 재량 1시간 - 고 1 : 교과심화보충 4, 6단위, 선택과목 4-6단위, 창의적 재량 활동 2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 창의적 재량 활동 - 중학교 : 재량 활동 3시간 - 고 1 : 재량 활동 6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 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시수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계고 선택과목군 :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사회 과목군 - 과학·기술 과목군 - 예·체능 과목군 - 외국어 과목군 - 교양 과목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계고 선택과목군 :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사회 과목군 - 과학·기술 과목군 - 체육 과목군 - 예술 과목군 - 외국어 과목군 - 교양 과목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목의 불균형 이수 문제 해소 ○ 인성, 교양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계고 학생 선택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8단위 이상, 최대 50% - 2단위 증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계고 학생 선택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8단위 이상만 규정 - 2~4단위 증감 운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선택권 강화 ○ 단위 학교 자율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계와 기타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교과 82단위, 전문 교과 82단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교과 80단위, 전문 교과 80단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단위 수 감축
시·도 교육청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아, 귀국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이수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 및 지역 사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이수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선택 과목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전·편입학, 귀국 등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구현
지역교육 청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 기회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기회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 반영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학교 편성·운 영		○ 중·고등학교 학기, 학년 집 중 이수 허용 조항 신설	○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 범교과 학습 - 민주 시민 교육 등 16개 영역 예시 - 재량 활동에서 중점 지도	○ 범교과 학습 - 기존 16개 영역에 청렴·반부패 교육 등 19개 영역 추가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도 강조	○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 범교과 학습의 내 실화
		○ 계기 교육 관련 조항 신설 -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목적 - 별도 계기 교육 지침 준수	○ 계기 교육 관련 근 거 마련
	○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 그램 개설	○ 방과 후 학교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 근거 마련
교육과정 평가·질 관리	○ 교육과정 관련 국가 수준 및 단위 학교 평가	○ 교육과정 관련 국가 수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평가 -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근거 마련	○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질 관리 강화
특수한 학교 교육과정	○ 방송통신고 이수단위 - 172단위	○ 방송통신고 이수단위 - 170단위	○ 월2회 주 5일 수업 제 반영, 수업시수 감축
		○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관련 - 국민공통 기본 교과 총 이수 시간 범위 내 증감운영 가능 - 선택과목 자율 편성	○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관련 근거 마 련 ○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의 자율적 운 영 보장

[부록 2] 교육적 인간상의 변천

구 분	교육적 인간상	비 고
제1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교육적 인간상 미제시 - 교육법 제2조 「교육의 목적」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법 제2조 -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제2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 국가와 겨레의 이상과 현실을 명철히 이행하는 인간 - 국민 각자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의 강조
제3차 교육과정	<p>가. 국민적 자질의 함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②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③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p>나. 인간 교육의 강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치관 교육의 강화 ②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③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 <p>다.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 능력의 배양 ② 기본 개념의 파악 ③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④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제4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복지, 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 육성 ①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②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③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④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사람 ⑤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심신의 육성 ◦ 지력과 기술의 배양 ◦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제5차 교육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②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③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④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구 분	교육적 인간상	비 고
제6차 교육과정	① 건강한 사람 ② 자주적인 사람 ③ 창의적인 사람 ④ 도덕적인 사람	◦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 육성
제7차 교육과정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21세기의 세계화 · 정보화 시대 를 주도할 자율 적이고 창의적 인 한국인 육성
2007년 개정 교육과정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을 전적으로 승계, 유지함

[부록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 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 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 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 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 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 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 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 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 【별책 10】 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 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 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 과 같습니다.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 와 같습니다.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은 【별책 15】 와 같습니다.
16.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6】 과 같습니다.
17.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7】 과 같습니다.
18.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별책 18】 과 같습니다.
19.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9】 와 같습니다.
20. 공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0】 과 같습니다.
21. 상업 정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1】 과 같습니다.
22. 수산·해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2】 와 같습니다.
23. 가사·실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3】 과 같습니다.
24. 과학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4】 와 같습니다.

- 25. 체육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5】와 같습니다.
- 26.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6】과 같습니다.
- 27.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7】과 같습니다.
- 28.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8】과 같습니다.

부 칙

-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라. 2012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마. 2013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 2. 단,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 8. 29)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II. 학교 급별 교육 목표
 - III.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 IV.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II.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둔다.

1.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 마.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2.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에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마.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3.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 의식을 가진다.
- 나.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1. 편 제

가.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표 1】

(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한다.

(2)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3)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1)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가) 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다. 【표 2】

(나)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표 3】

(2)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2. 시간(단위) 배당 기준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표 1】

학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교과	국 어	국 어 210 238	238	204	204	204	170	136	136	136(8)	
	도 덕		34	34	34	34	68	68	34	34(2)	
	사 회	수 학 120 136	102	102	102	102	사 회				
							102	·	68	102(6)	
	수 학	바른 생활 60 68	136	136	136	136	역 사				
							·	102	68	102(6)	
	과 학		102	102	102	102	102	136	136	136(8)	
	실 과	즐거로운 생활 90 102	·	·	68	68	기술 · 가정				
							68	102	102	102(6)	
	체 육	즐거운 생활 180 204	102	102	102	102	102	102	68	68(4)	
	음 악		68	68	68	68	68	34	34	34(2)	
	미 술	우리들은 1학년 80 ·	68	68	68	68	34	34	68	34(2)	
	외국어(영어)		34	34	68	68	102	102	136	136(8)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102	102	102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68	68	68	68(4)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830	850	952	952	1,054	1,054	1,122	1,122	1,122	1,190(70)

-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단,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주 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 수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한다.
-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 ③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 ④ 10학년의 ()안에 제시된 숫자는 단위 수이다.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1) 보통 교과

【표 2】

구 분		선 택 과 목
교	국 어	화법(6), 독서(6), 작문(6), 문법(6), 문학(6), 매체 언어(6)
	도 덕	현대 생활과 윤리(6), 윤리와 사상(6), 전통 윤리(6)
	사 회	한국 지리(6), 세계 지리(6), 경제 지리(6), 한국 문화사(6), 세계 역사의 이해(6), 동아시아사(6), 법과 사회(6), 정치(6), 경제(6), 사회·문화(6)
	수 학	수학의 활용(6), 수학 I(6), 미적분과 통계 기본(6), 수학 II(6), 적분과 통계(6), 기하와 벡터(6)
	과 학	물리 I(6), 물리 II(6), 화학 I(6), 화학 II(6), 생명 과학 I(6), 생명 과학 II(6), 지구 과학 I(6), 지구 과학 II(6)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6), 공학 기술(6), 가정 과학(6), 창업과 경영(6), 해양 과학(6), 정보(6)
과	체 육	운동과 건강 생활(4), 스포츠 문화(4), 스포츠 과학(6)
	음 악	음악 실기(4), 음악과 사회(4), 음악의 이해(6)
	미 술	미술과 삶(4), 미술 감상(4), 미술 창작(6)
	외국어	영어 I(6), 영어 II(6), 실용 영어 회화(6), 심화 영어 회화(6), 영어 독해와 작문(6),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6) 독일어 I(6), 독일어 II(6), 프랑스어 I(6), 프랑스어 II(6), 스페인어 I(6), 스페인어 II(6), 중국어 I(6), 중국어 II(6), 일본어 I(6), 일본어 II(6), 러시아어 I(6), 러시아어 II(6), 아랍어 I(6), 아랍어 II(6)
	한 문	한문 I(6), 한문 II(6)
	교 양	생활과 철학(4), 생활과 논리(4), 생활과 심리(4), 생활과 교육(4), 생활과 종교(4), 생활 경제(4), 안전과 건강(4), 진로와 직업(4), 환경(4)
이수 단위		132
특별 활동		8
총 이수 단위		140

① ()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표 3】의 전문 교과 과목을 개설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2) 전문 교과

【표 3】

교과	과목				기준 학과
농생명 산업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업 경영	식물 자원과
	생물 공학 기초	재배	작물 생산 기술	숲과 인간	동물 자원과
	산림 자원 기술	원예	생활 원예	생산 자체	농업 토목과
	원예 기술 I	원예 기술 II	동물 자원	사육 기술 I	식품 가공과
	사육 기술 II	누에와 비단	조경	조경 기술 I	농업 기계과
	조경 기술 II	농업과 물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토목 기술 I	조경과
	농업 토목 기술 II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기술 I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 기계 기술 II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I	환경·관광 농업과
	식품 가공 기술 II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I	농산물 유통 관리 II	생물 공학과
	환경 보전	환경 관리 I	환경 관리 II	농업과 관광	
공업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전문 제도	기계과
	기계 일반	전기 일반	공업 영어	기계 설계	전자 기계과
	기계 공작법	원동기	유체 기기	공기 조화 설비	금속 재료과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I	공작 기계 II	산업 설비	전기과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전자 기계 공작	전자과
	전자 기계 제어	로봇 기초	로봇 제작	재료 일반	통신과
	금속 제조	재료 가공	주조	금속 처리	컴퓨터 응용과
	전기 응용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력 설비 I	토목과
	전력 설비 II	전기·전자 측정	자동화 설비	전자 기기	건축과
	전자·전산 응용	전자 회로	계측 제어	통신 일반	디자인과
	정보 통신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화학 공업과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측량	역학	환경 공업과
	토목 설계	토목 일반	토목 재료·시공	수리·토질	세라믹과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건축 계획 일반	식품 공업과
	건축 목공	건축 시공 I	건축 시공 II	디자인 일반	섬유과
	색채 관리	조형	제품 디자인	공예	인쇄과
	시각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공업 화학	단위 조작·공정 제어	자동차과
	제조 화학	분석 화학	기능성 세라믹	세라믹 원리·공정	조선과
	구조 세라믹	세라믹 디자인	발효 공업	식품 제조 기계	항공과
	식품 분석	식품 공업 기술	섬유 재료	방직·방사	컴퓨터 게임과
	제포·봉제	염색·가공	인쇄 일반	인쇄·사진 재료	만화·애니메이션과
	평판 인쇄	특수 인쇄	사진·전자 제판	사진	영상 제작과
	자동차·건설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채시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건설 기계 구조·정비	자동차 차체 수리	선박 이론	선박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체	항공기 기관	
	항공기 장비	항공기 전자 장치	환경 공업 일반	수질 관리	
	대기·소음 방지	폐기물 처리	컴퓨터 게임 기획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그래픽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애니메이션 제작	만화 창작	
	영화·방송 제작	촬영·조명	방송 시스템		
상업 정보	상업 경제	컴퓨터 일반	회계 원리	기업과 경영	경영 정보과
	경영과 법	마케팅과 광고	경영 정보 시스템	기업 자원 관리	회계 정보과
	커뮤니케이션 실무	원가 회계	기업 회계	전산 관리	무역 정보과
	세무 회계	금융과 생활	국제화와 기업 경영	무역 영어	유통 경영과
	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	유통 정보 관리	물류 관리	자료 처리	정보 처리과
	프로그래밍 실무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 관리 실무	멀티미디어 일반	멀티미디어과
	멀티미디어 기획	멀티미디어 실무	웹 프로그래밍	전자 상거래 일반	전자 상거래과
	인터넷 쇼핑물 관리	전자 상거래 실무	인터넷 마케팅	창업 일반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교과	과목				기준 학과
수 산 · 해 운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해양 오염 열기관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항해 선박 운송 생선회 실무	해양 일반 해양 생산 기술 수산물 유통 냉동 기계 선박 전기·전자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공학 해양 레저·관광	수산·해운 정보처리 수산 양식 해양 환경 냉동 공조 실무 기계 설계·공작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항만 물류 일반	해양 생산과 수산 양식과 자영 수산과 수산 식품과 해양 환경과 냉동 공조과 동력 기계과 항해과 전자 통신과 해양 레저과 항만 물류과 해양 정보과
가 사 · 실 업	인간 발달 동양 조리 패션 디자인 주거 영·유아 교육 원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보건 간호 헤어 미용	식품과 영양 서양 조리 한국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광 경영 실무 관광 일본어 기초 간호 임상 실무 피부 관리	급식 관리 제과 제빵 서양 의복 구성 가구 디자인 영·유아 놀이 교육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기초 복지 서비스 메이크업	한국 조리 의복 재료·관리 자수와 편물 디스플레이 영·유아 생활 지도 관광 외식·조리 간호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공중 보건	조리과 의상과 실내 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미용과
과 학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 I 원서 강독	생명 과학 실험 정보 과학 I 고급 화학 과제 연구 II 워크숍	지구 과학 실험 정보 과학 II 고급 생명 과학 환경 과학 과학 철학	
체 육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투기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영·행정	스포츠 경기 과학 수상 운동 방상·설상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스포츠 교육 전공 실기	체육과 진로 탐구 개인·대인 운동 표현·창작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코칭론 전공 실습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 건강 관리	스포츠경기과 체육지도과
예 술	음악 이론 합창 교양 실기 미술 이론 기초 조소 미술 감상과 비평 무용의 이해 무용 전공 실기 문학의 이해 시 창작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사진의 이해 사진 편집	음악사·감상 합주 미술사 기초 디자인·공예 기초 한국 무용 무용 음악 문장론 소설 창작 무대 기술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	시창·청음 연주 소묘 미술 전공 실기 기초 발레 안무 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 희곡 창작 연기 영화 기술 중급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음악 전공 실기 컴퓨터와 음악 기초 회화 영상 매체와 미술 기초 현대 무용 무용 감상과 비평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 매체와 문학 연극 제작 실습 영화 창작과 표현 암실 실기 사진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사진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과	과목				기준 학과
외국어	심화 영어 영어 독해 영어 문법	영어 청해 영어 작문	영어 회화 I 영어권 문화 I	영어 회화 II 영어권 문화 II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기초 독일어 독일어 독해 독일어 문법	독일어 청해 독일어 작문	독일어 회화 I 독일어권 문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권 문화 II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문법	프랑스어 청해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권 문화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권 문화 II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 문법	스페인어 청해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권 문화 I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권 문화 II	
	기초 중국어 중국어 독해 중국어 문법	중국어 청해 중국어 작문	중국어 회화 I 중국 문화 I	중국어 회화 II 중국 문화 II	
	기초 일본어 일본어 독해 일본어 문법	일본어 청해 일본어 작문	일본어 회화 I 일본 문화 I	일본어 회화 II 일본 문화 II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어 문법	러시아어 청해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 문화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 문화 II	
	기초 아랍어 아랍어 독해 아랍어 문법	아랍어 청해 아랍어 작문	아랍어 회화 I 아랍 문화 I	아랍어 회화 II 아랍 문화 II	
	영어 강독 중국어 강독 국제 정치 I(6) 세계 문제 국제법 한국의 현대 사회 예능 실습	독일어 강독 일본어 강독 국제 정치 II(6) 비교 문화 I(6) 지역 이해 한국어	프랑스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국제 경제 I(6) 비교 문화 II(6)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I(6)	스페인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경제 II(6) 정보 과학 한국의 전통 문화 과제 연구 II(6)	
국제					

-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표 3】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0단위 이상 이수한다.
-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수산 계열), 해사 일반 (해운 계열)
 -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 체육 계열 : 스포츠 개론, 스포츠 경기 과학, 체육과 진로 탐구
 - ㉦ 외국어 계열 : 각 학과 해당 기초 외국어(영어과는 심화 영어), 청해, 회화 I, 문화 I, 독해
 - ㉧ 국제 계열 : 영어 강독, 지역 이해, 한국의 전통 문화
- ③ 전문 교과와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와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8단위 이하로 배당한다.
- ④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에 관한 교과와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IV.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 기본 지침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각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이다.
-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3)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 (가)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한다.
 - (나) 중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의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한다.
 - (다)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학습 또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 (4) 특별 활동은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 (가) 특별 활동의 영역별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나) <삭제>
 - (다)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단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운영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11, 12학년의 2년 동안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1)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140단위로, 선택 과목에 132단위, 특별 활동에 8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2)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가) <삭제>

(나) <삭제>

(다)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체육 과목군(체육), ④ 예술 과목군(음악, 미술), ⑤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⑥ 교양 과목군(한문, 교양)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 ①~④ 과목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 외국어 과목군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중 1과목 이상,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라) 선택 과목 중 과목명에 II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I을 먼저 이수해야 하나, 학교의 설정,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이수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마) 선택 과목에 배당된 132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은 최소 28단위 이상으로 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수 단위가 4단위인 과목은 증배 운영만 가능하다.

(사) <삭제>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60단위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보통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나)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와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다) 교원 및 시설 여건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1학년에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일부를 편성할 수 있다.

(라)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마)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교체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바)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사) <삭제>

(아)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4) 11, 12학년의 특별 활동에 배당된 8단위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각 영역별 이수 단위를 학교에서 재량으로 편성한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

(1) 편 성

(가) 시·도 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③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④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고등학교의 계열, 학과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정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⑨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이수 단위에 관한 사항
- ⑩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 ⑪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
- ⑫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 수의 증배 운영에 관한 사항
- 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⑭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⑮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⑯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
- ⑰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에 관한 사항
- ⑱ 독서 목록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
- ⑲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⑳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㉑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㉒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 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라) 시·도 교육청은 학교, 연구 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 및 개선에 반영한다.

(마)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2) 운 영

- (가)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지역 교육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 (나)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다) 중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라) <삭제>
- (마)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바)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사)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차) 귀국자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카) 중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타)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파)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 - 내용 - 방법 -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나. 지역 교육청

(1) 편 성

- (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초·중학교에 제시한다.

- ①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②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④ 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협조에 관한 사항
 - ⑤ 학교 간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⑥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⑦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필요한 사항
- (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한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다) 학교 간에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운 영

- (가) 지역 교육청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에 관한 지역별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 (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 (라)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마)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 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수업 연구 교사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 (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다. 학 교

(1) 편 성

〈공통 지침〉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①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②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 한다.
 - ③ 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나)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 (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마) 수준별 수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운영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①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 (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급별 지침〉

(가) 초등학교

- ① 초등학교의 교과 중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된 교과는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감축된 교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체험 활동 등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②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③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초등학교 재량 활동에서는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다.

(나) 중 학교

- ①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② 중학교 재량 활동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 ㉠ 학교는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를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기초로 융통성 있게 배정한다.
 - ㉡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한다.

(다) 고등학교

- ① 일반계 고등학교는 10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한다.
- ②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③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④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 ⑤ 창의적 재량 활동을 포함한 고등학교의 재량 활동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히, 시·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⑦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하도록 한다.
- ⑧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⑨ <삭제>
- 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⑪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선택 과목은 학교장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⑫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의 전공 외국어와 전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어를 포함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 ⑭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운 영

(가)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 운영한다.

(나)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인성 교육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위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습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라)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① 각 교과목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 ②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 ④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⑤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 ⑥ 교과와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⑧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 ⑨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마) 특별 활동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중점 영역을 설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가꾸어 나가도록 한다.

- ①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성, 취미, 흥미, 특기 등이 충분히 신장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②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자질이 형성될 수 있는 자율적인 집단 활동이 되도록 한다.

- ③ 지역 및 학교 실정과 활동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집중 연속적인 이수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 ④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의 기회를 마련한다.
- (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한다.
- (사) 교과용 도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 (야)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 (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차)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카)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파)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1)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단위) 배당, 편성·운영 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 나.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 (1)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여 에듀넷 등 통신망을 통해 학교가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1)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2)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3) 교과의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5)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6)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유의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7) 초등학교의 교과 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8)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한다.
- 나. 교육인적자원부 직할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 학교, 고등 공민 학교, 고등 기술 학교(3년제 과정),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준하되, 17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침식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 (1)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 시간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68시간 미만으로는 감축 운영할 수 없다.
 - (2)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외의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특성화 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부록 4]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위탁 연구 과제 및 발간 도서

- 허경철 외,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박순경 외, 교육과정 개정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김정호 외, 교과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구축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이인제 외,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차우규 외, 도덕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류재택 외, 사회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최승현 외, 수학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이양락 외, 과학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이춘식 외,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유정애 외, 체육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성경희 외, 음악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박소영 외, 미술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이의갑 외, 영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김영옥 외,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전남대학교, 2004.
- 박순경 외,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수학·영어교과 수준별 별도 학급 편성·운영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조난심 외, 인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박순경 외,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박순경 외, 재량 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광우 외, 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허경철 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오은순 외, 초등학교 통합 교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인제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조난심 외,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김정호 외,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신성균 외,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범홍 외,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김경훈 외,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유정애 외,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성경희 외,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양윤정 외,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의갑 외,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박선화 외,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김주훈 외,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병환 외, 대안학교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5.
- 이석진 외, 특수학교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05.
- 이근님 외, 기타계 전문교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용순 외, 실업계 전문교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박순경 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2006.
- 이광우 외, 재량·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김진숙 외, 유치원 총론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곽영순 외,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김경훈 외, 중·고 컴퓨터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2006.
- 김선태 외,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전기·건설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김수원 외, 고등학교 상업계열 전문교과(경영·정보)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김영춘 외,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선택과목(서양어권)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강창동 외, 중·고등학교 환경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문영진 외, 중·고등학교 한문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김종우 외, 고등학교 농업계열 전문교과(응용산업)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김진구 외,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김현수 외, 고등학교 수산·해운계열 전문교과(응용산업)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김현진 외, 특수학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김용욱 외,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김은숙 외, 특수학교 직업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노선옥 외, 특수학교 치료교육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민용성 외, 유치원 영역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박성우 외, 특수학교 시각장애 이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옥준필 외, 고등학교 농업계열 전문교과(기초산업)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박종성 외,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화공·인쇄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06.
- 변숙영 외, 고등학교 가사·실업계열 전문교과(보건·복지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유정애 외, 고등학교 체육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박소영 외,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손민정 외, 고등학교 외국어계열 전문교과(동양어권)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재기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조난심 외,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박진동 외,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박선화 외,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곽영순 외,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수정 외,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 위원회, 2006.

- 유정애 외,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성경희 외,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양윤정 외,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임찬빈 외,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오은순 외,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송현정 외, 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윤현진 외, 도덕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오정준 외, 사회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진재관 외, 역사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최승현 외, 수학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미경 외, 과학과 선택과목(물리·지학)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홍미영 외, 과학과 선택과목(화학·생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수정 외,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유정애 외, 체육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양종모 외, 음악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양윤정 외, 미술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의갑 외, 영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김영춘 외,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용백 외,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정영근 외,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옥준필 외, 고등학교 동생명 산업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이병욱 외,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기계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이용순 외,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공통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이남철 외, 고등학교 상업계열 전문교과(회계·물류)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최동선 외, 고등학교 수산·해운계열 전문교과(기초산업)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장명희 외, 고등학교 가사·실업계열 전문교과(가정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이창훈 외, 고등학교 과학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유정애 외, 고등학교 체육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박소영 외,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근남 외, 고등학교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손민정 외, 고등학교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명준 외, 고등학교 국제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정희섭 외, 특수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이용순 외,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1, 체육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4, 외국어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 학년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6,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8, 특별 활동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9,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0, 공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1, 상업 정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2, 수산·해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3, 가사·실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4, 과학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5, 체육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6,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7,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8,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업무편람(교육과정 자료 223), 2004.
-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도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자료(교육과정 자료 224), 2004.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VIII) - 교육과정 연구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249), 2004.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IX) - 주 5일수업제 연구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250),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사례집(수학편) (교육과정 자료 258),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사례집(영어편) (교육과정 자료 259),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초등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260),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I(중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261),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II(고등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262),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영어과 성취수준 판별 도구(고등학교 1학년용) (교육과정 자료 263), 2004.
-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교육과정연구학교 운영자료 (교육과정 자료 264), 2005.
- 교육인적자원부, 학생선택권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교육과정 자료 265), 2005.
- 교육인적자원부, 선택중심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사례집 (교육과정 자료 274), 2005.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X) - 교육과정 연구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322), 2005.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XI) - 주 5일 수업제 연구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323), 2005.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사례집(교육과정 자료 329), 2006.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사례집(교육과정 자료 330),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영어과 수준별 교수·학습자료(교육과정 자료 331),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 I (초등학교편)(교육과정 자료 332),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I(중학교편)(교육과정 자료 333),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II(고등학교편)(교육과정 자료 334), 2006.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도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자료(교육과정 자료 335),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교육과정 자료 354),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해설서(교육과정 자료 355),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수준별 수업 이렇게 해봅시다(교육과정 자료 356),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례집(교육과정 자료 377)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과정 핵심요원 연수 (교육과정 자료 378) 2006.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XII) (교육과정 자료 388) 2006.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XIII) (교육과정 자료 389) 2006.

재량 활동

김진규 (교육과학기술부)
이광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용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웅기 (서울인수초등학교)
권영민 (인천서림초등학교)

- I. 재량 활동 개정의 배경
- II. 재량 활동의 의의와 내용
- III.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 IV.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안 예시
- V. 재량 활동의 평가

I. 재량 활동 개정의 배경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재량 활동을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육의 중점은 창의적 재량 활동에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확대(교육인적자원부, 2007: 2)’라는 개정 방향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재량 활동의 학교 자율권이 보다 강화된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재량 활동에서 학생을 중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한 창의적 활동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으로의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교육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재량 활동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는 2007년까지 여덟 차례의 교육과정 제·개정을 거치면서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구조에 지방 분권적 개념을 도입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일환으로 초등학교 3~6학년에 연간 34시간 이상을 ‘학교 재량 시간’으로 배당하도록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계획·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교육과정의 편제를 교과 활동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재량 활동이 국가 교육과정 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위 학교의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나 교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반영이라는 과제가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초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교

육과정 편성권이 보다 전문적으로 행사되고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재량 활동이 보다 내실화될 것이 요청된다.

초등학교 재량 활동이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 계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 교육 내용을 창의적 재량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이 요청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 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및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의 공동 주체가 되어 보다 균형적인 전인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2006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월2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5일제 수업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수업 시수 감축 시 교과 시수를 학교 자율로 감축하게 함으로써, 지역 및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요구를 수용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 제시는 초등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재량 활동의 중요성을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한 것이다.

II. 재량 활동의 의의와 내용

1. 재량 활동의 의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재량 활동의 의의로 중시된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9: 191-193).

첫째, 교과 교육이나 특별 활동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범교과 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사회 및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지식 위주의 교과 교육에서 벗어나 단위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지역과 학교, 학생의 특성과 여건,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편성하여 학교 구성원이 교육 공동체의 신념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흥미를 수용한 교육을 실천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하여 자신의 미래를 자기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과 관계된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나아가 학생 개인의 요구와 관심, 흥미를 교육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방향을 추구한다. 학생들은 개개인의 적성, 능력의 수준, 장래 진로가 다양하므로 그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량 활동은 학습자와 지역 사회의 요구, 학교의 상황과 학교장 및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교사는 담당 교과 외에 특별히 관심있는 학습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고 이를 프로그램화 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은 더욱 확대되어진다.

재량 활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고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필요,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활동을 선정하여 지도함으로써 단위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데 그 고유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재량 활동의 내용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학년별로 동일하게 배당되어 있고 학년별 총량은 68시간(1학년은 60시간)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초등학교 재량 활동과 관련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재량 활동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다.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에서는 주제 탐구 및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에 따라 편성하고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에서 적용하는 창의적 재량 활동의 내용은 학생의 관심과 지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험 위주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학생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탐구 활동을 수행하게 하거나 범교과 학습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 중에서 보다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택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재량 활동의 편성 · 운영

1. 재량 활동의 편성 · 운영 지침

재량 활동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교육과정 총론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정 총론에 포함되어 있는 초등학교 재량 활동 편성 ·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지침

-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각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이다.
- (3)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 · 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 (가)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한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 · 운영

가. 시 · 도 교육청

(1) 편 성

- (가) 시 · 도 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⑳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운 영

- (나)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마)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 · 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 ·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파)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 - 내용 - 방법 -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나. 지역 교육청

(1) 편 성

- (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초·중학교에 제시한다.

- ①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②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운 영

- (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다. 학교

(1) 편 성

<공통 지침>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①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③ 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별 지침>

(가) 초등학교

- ④ 초등학교 재량 활동에서는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운 영

- (라)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⑦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아)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 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차)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8)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2.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가.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학생의 잠재력과 개성을 살리고 자아 실현을 돕는 최고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이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초등학교에서의 자율적 권한이 의미 있게 강화된 재량 활동을 내실 있게 편성·운영하는 것은 교육과정 중심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 융통성 있는 운영, 직접 체험 활동의 확대,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흥미 및 적성의 수용,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용, 학교의 전통을 가꾸기 위한 특색 있는 교육 활동 전개,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발휘 등이 고려 될 수 있다(교육부, 1999: 198-201 ; 김만곤 외, 2006: 15-21).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바람직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 과제를 이수할 때 학습자가 그 과제의 선택에서부터 학습

계획의 수립과 실천 과정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교사나 다른 자원 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습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김만곤 외, 2006: 18).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오늘날 보다 개방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강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어느 특정한 학습 방법이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재량 활동은 모든 교육 내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각 초등학교에서는 재량 활동을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내용, 소재, 상황을 선정·계획하고, 이에 중점을 둔 교육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 단위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편성

재량 활동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기초 조사와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중점 사항과 그 실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물론 여러 측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교 나름대로 재량 활동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편성·운영의 기본 원칙의 결정은 각급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재량 활동에서 다룰 내용을 어떤 것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은 학교에 주어져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의사결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적 의사결정이란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학생, 학부모, 교사, 즉,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 내용은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실험이나 관찰, 조사, 수집, 조작, 토론, 견학, 답사, 자유 탐구 활동 등과 같은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단계적이고도 장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습 요소 간 범위(scope)와 위계(sequence)를 적절히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교과 활동

이나 특별 활동에서의 교육 경험을 양적으로 증대하려 하기보다는 질적으로 보강하고 연계하여 심화·보충한다는 관점에서 재량 활동을 편성하여 학습자가 학습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56-57).

3) 탄력적 운영

재량 활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고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필요,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활동을 선정하여 지도함으로써 단위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지역 사회와 학교의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량 활동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그에 부합되는 다양한 편성·운영 방안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제 선정, 집단 편성, 교재 선정, 장소 활용, 교사 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절차

국가 교육과정에는 재량 활동 편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지침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재량 활동의 교육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각 학교의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육의 특성에 알맞게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재량 활동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포함된 교육 과정을 해당 학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절차를 예시하면 [그림 1]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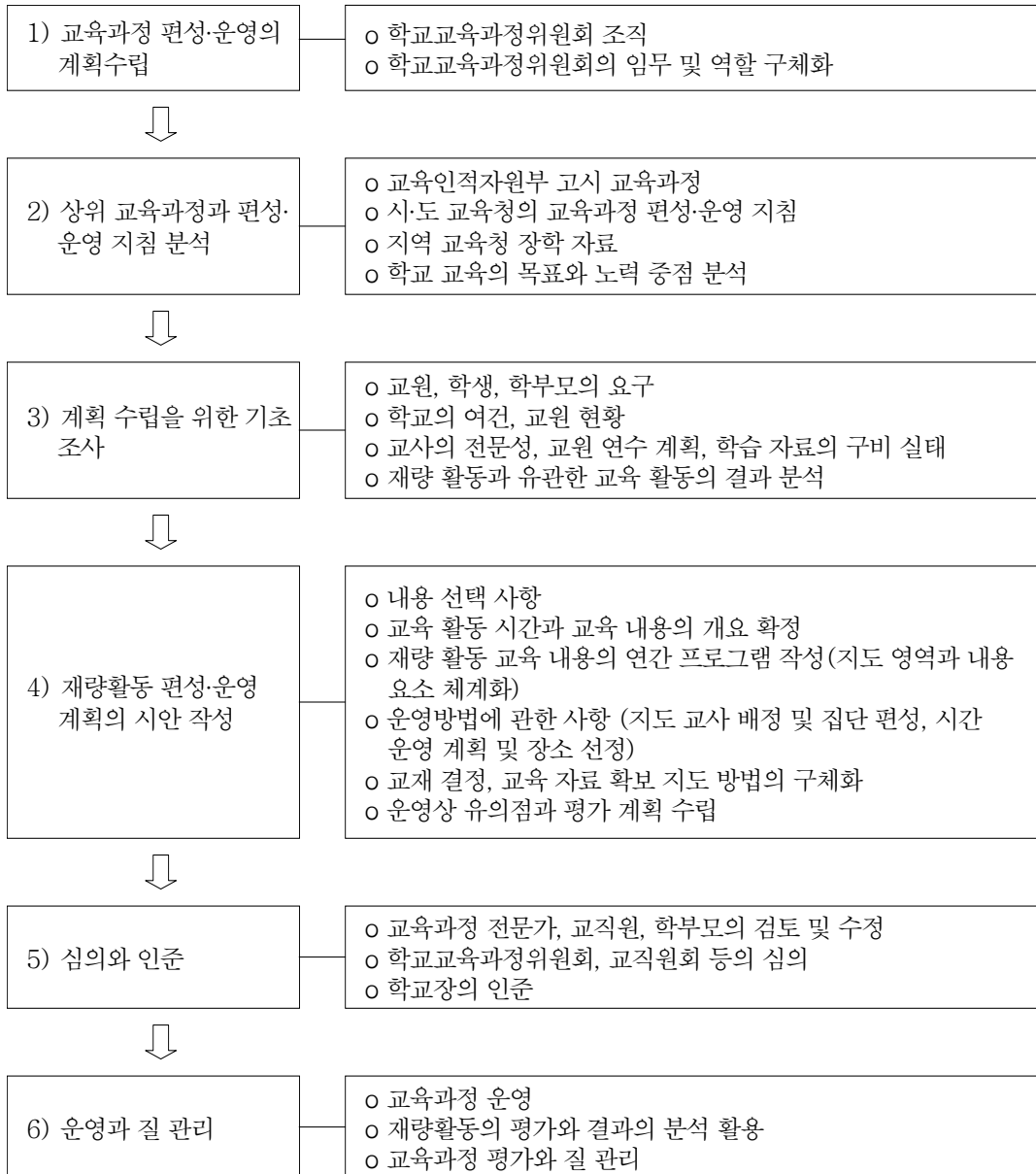
[그림 1]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절차(예시)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IV) -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p. 9.

초등학교에서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지침,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지역 사회 실태, 학교 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량 활동에 반영할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 조사 실시를 위해 학생들의 교과별, 학년별 학력 실태를 분석하거나,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설문 내용은 재량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적 과제를 추출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어떤 교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지, 특색 있는 교육 활동으로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파악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각종 기초 조사와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시사점을 추출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특히 학생들의 교과별 성취 수준이나 특별 활동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당해 학교 재량 활동을 통해 강조할 필요가 있는 중점적 실천 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량 활동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연간 운영 계획,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시안을 작성한 후에는 시안에 대한 심의·분석·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한다.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는 각 학년별 연간 최소 68시간(1학년 60시간)이 제시되어 있으나, 학교 실정에 따라 시간을 증배하거나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주당 시간을 고정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재량 활동 설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고려 사항



1)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관련 제 변인

재량 활동 편성·운영과 관련된 변인들은 편성·운영 절차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재량 활동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그 편성·운영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단위 학교의 재량 활동은 학교급에 따라 다르고, 하위 영역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편성하고 운영하게 된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결정짓는 변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하위 영역 및 주제 설정, 학습 방법, 하위 영역별 시간 배당, 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 조직, 집단 편성 그리고 교재 선정 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변인이 재량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단위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면서도 지역 사회나 학교의 실정에 적합하게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집단 편성, 학습 시기, 학습 장소, 사용 교재, 그리고 지도 교사의 다양성 등을 기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재량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량 활동 관련 변인을 제시하면 다음 <표 1>⁷⁵⁾과 같다.

<표 1> 재량 활동 관련 변인

변 인		하위 변인
상황 변인	여 건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여건
	요 구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요구
내용 변인	창의적 재량 활동	범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 변인	시간 배당	균등 배당, 불균등 배당
	학습 방법	토의, 주제 탐구, 현장 학습, 체험 학습, 신문 학습, 노작 학습 등
	집단 편성	개인, 소집단, 학급, 학년, 학년 통합
	시간 운영	정일, 전일, 격주, 주말, 월 집중, 계절 집중, 방학
	장소 설정	교내, 교외
	사용 교재	학교 자체 제작,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 주관 개발 자료,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기타(교육 방송 프로그램, 각종 기관 발행 자료 등)
	지도 교사	교과 담당 교사, 담임교사, 외부 강사(학부모, 지역 인사 등 명예 교사, 특기 자격증 소지자 등)
	학생 선택권	완전 선택(비 필수), 부분 선택, 비 선택(필수)

2)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75) 교육부(2000), 특별 활동·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p. 106을 재구성한 것임

재량 활동의 편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25-31).

가) 융통성 있는 편성·운영

각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재량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교육부, 1999: 201-202).

<표 2> 재량 활동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한 검토 사항

검토 사항	세부 검토 사항
○ 시간 운영의 융통성	시간, 시간 분량, 연속성, 기간(월, 학기, 연간) 등
○ 교사 조직의 융통성	지도 교사 배정, 활동 영역 및 주제에 적합한 교사 배정 등
○ 장소 활용의 융통성	교실 운영, 지역 사회 기관 및 시설 활용 등
○ 주제 선정의 융통성	학생 중심의 주제 선정, 교사의 교육적 의도 반영, 학생의 선택 권장 등
○ 집단 편성의 융통성	학급, 학년, 전교 단위, 능력별 활동, 주제별 활동 등
○ 교재 선정의 다양성	자체 구성, 인정 도서 활용, 학급, 학년 단위 프로그램 마련 등
○ 교과 및 특별 활동과의 연계성	교과 및 특별 활동과의 상호 보완

고정적인 일과표의 운영이나 시간 배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정 운영, 연속 운영, 집중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지도 내용을 고려하여 알맞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학교에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재량 활동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교사 조직과 장소 활용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 지도 교사는 능력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교사 조직에 있어서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재량 활동의 내용에 따라 지역 사회의 자원 인사나 학부모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소 활용에 있어서는 학교를 벗어나 지역 사회의 시설과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들은 주로 재량 활동 편성의 초기 단계에서 파악된 요구 및 실태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량 활동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학교에 주어져 있으며, 활동 영역에 따른 학습 과제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재

량 활동의 교육내용을 선정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재량 활동의 조직 단위는 학급별, 교과별, 학년별 또는 전교 단위,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저·중·고학년 단위로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능력별, 활동 내용별 소집단 편성 등 다양한 조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재량 활동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량 활동 시간에 사용할 교재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재량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는 원칙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법적인 승인 절차를 밟은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량 활동 시간에 사용되는 자료가 단순히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 또는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교육 자료 등인 경우,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범교과 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교과 및 특별 활동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방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재량 활동의 내용 선정

재량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재량 활동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토대로 선정하여 학교 나름의 독특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기초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관점 등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여 재량 활동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재량 활동의 성공적 운영 여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내용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17).

첫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한다.

둘째,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유용하고 학생들의 직접적 체험을 중시하는 내용인지 검토하고, 그러한 내용을 지도할 인적 자원과 시설, 교재의 확보 문제 등에 대해 고려한다.

셋째, 각 학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지를 고려한다.

다) 교육적 필요와 요구의 조정

재량 활동 편성 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사항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조정하여 반영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량 활동은 의사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합의를 도출해 내고 책임을 공유하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편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량 활동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학교장은 교사 및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교교육과정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교육 활동을 결정하고 시행을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16).

라)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재량 활동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문제는 없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교과 교육 내용 적정화는 재량 활동 확대에 따른 전체 교과 수업 시수 감축에 따른 조치인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 활동이 또 다른 형태의 학습 부담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국가 교육과정의 의도와는 상이한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의 재량 활동 편성과 운영에 있어 전 교직원 은 어디까지나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량 활동을 통하여 교과 활동이나 특별 활동에서의 교육 경험을 양적으로 증대하기보다는 질적으로 보강하고 연계하여 심화한다는 관점으로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27).

마) 교수 · 학습 자료의 활용

재량 활동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량 활동 운영을 위한 교재나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본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인정 도서의 인정’에 관한 조항과 제17조 ‘인정 도서의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법적인 인정 절차를 밟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정 도서란 교과서 또는 지도서로 같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혹은 위임된 경우는 각 시 · 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도서를 말한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학교가 어떤 활동 영역을 선정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정 도서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량 활동을 위한 교재는 활동 영역에 따라 개발된 인정 도서를 활용하거나, 적합한 인정 도서가 없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도 자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재량 활동의 활동 내용이 주제 탐구, 답사, 체험 활동 등의 실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량 활동 연구, 시범 학교의 자료나 기타 참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교수·학습 지도안, 지도 프로그램, 학생용 학습장 등을 직접 제작하면 될 것이다. 지도 자료를 직접 개발할 경우는, 그것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교재와 관련이 없는지, 관련되는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와 내용에 어긋남이 없는지, 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어떠한지, 승인·발행·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집필하고 어떻게 편찬할 것인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재량 활동 교수·학습 자료는 필요한 경우,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를 개발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학습지는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안내·조언·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양식은 활동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31).

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재량 활동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지도할 인적 자원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재량 활동 프로그램 지도를 위한 별도의 정규 교원이 양성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단위 학교가 창의적인 재량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할 교원이 없는 경우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량 활동 프로그램 지도를 위한 교원은 학교의 여건 및 교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재량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로 학급 담임이 배치되거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외부 자원 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담당 교사와 자원 인사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한 밀도 높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유형

재량 활동은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재량 활동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모두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이는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과 시간 배당, 활동 주제의 선택, 활동 집단의 구성 등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량 활동의 다양한 편성·운영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 단위 학교에서 재량 활동을 구체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유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재량 활동을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는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 외에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범교과 학습 영역을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전개할 때,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때, 학습 주제는 범교과 학습 영역과 자기 주도적 학습 영역을 연계하여 설정하거나 통합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다음에 제시된 창의적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유형은 하나의 예시이며, 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에 배정된 68 시간을 활용하는 내용 및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107).

<표 3> 창의적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유형(예시)

유형	내용	방법	특성
범교과 중심형	범교과 학습	기타	학생 희망에 따른 범교과 학습 프로그램 개설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형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학생 희망을 고려한 학습자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프로그램 개설
범교과·자기 주도적 학습 통합형	범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범교과 학습 주제를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과 통합하여 선택적으로 운영

IV.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안 예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침에 근거하여 각 영역별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그 하위 영역으로 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범교과 학습이란 학습자의 종합적인 학습 능력의 신장 및 전

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 교육과정에 의한 학습보다는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어느 특정한 학습 방법이나 형태가 아닌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수 있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려면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제 탐구, 자유 연구, 소집단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학습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범교과 학습 중심형

범교과 학습은 학습자의 종합적 학습 능력 신장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 교육과정에 의한 학습보다는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교과 학습 내용 구성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통합 방식은 교육 내용 및 탐구 방법을 여러 학문이나 교과에서 가져오는 다학문적 접근과 학습자의 흥미·관심·필요에 의한 통합, 사회 기능 및 문제에 의한 통합을 강조하는 탈 학문적 접근, 주제를 중심으로 학문과 교과를 통합하는 간학문적 접근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범교과 학습을 위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체제는 범교과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개발을 하거나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32).

범교과 학습은 통합적 접근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내용이 특정 교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 내용이 통합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교과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의 일반적 지침을 준수하여 학습 프로그램이 목표에 타당하고,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며, 내용의 순서가 논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범교과 학습 프로그램 편성·운영 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생 선택형

초등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범교과 학습 주제 중에서 교사 수급, 학생 수요, 학습 활동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적정한 일정 수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학생의 요구 반영,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생 선택의 기회 제공, 운영의 용이성 등이 있으나 지도 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

<표 4> 학생 선택형(예시)⁷⁶⁾

개설 형태	학생 선택	편성 형식	시간 운영	교재	지도자	비고
범교과 영역 중 개설 가능한 영역 개설	자유롭게 선택	학년통합	정시제	인정 도서 자체 개발 자료 (도서)	담임교사 명예교사	학습 활동 난이도를 고려 편성 (34주)

나. 학생 선택 필수 이수 혼합형

범교과 영역에서 학생의 학습 능력 수준, 실천 가능 정도, 교사 수급, 학생 참여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일부 범교과 영역을 제시하고, 학생 관심사인 범교과 영역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학생의 요구와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이 용이하다.

<표 5> 학생 선택 필수 이수 혼합형(예시)⁷⁷⁾

개설 형태	학생 선택	편성 형식	시간 운영	교재	지도자	비고
범교과 영역 중 필수 · 선택 개설 가능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설	필수 선택: 자유롭게 선택	학년별	정시제	인정 도서 자체 개발 자료 (도서)	담임교사 명예교사	학습 활동 기간 고려 편성(34주)

다. 학생 필수 이수형

범교과 학습에 할당된 시간을 학교가 사전에 기초 조사를 통하여 적정 영역을 선정 제시하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이수하게 하는 방안이다. 운영이 용이하나 학생 선택권이 간접적으로 제한된다.

76)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2000),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료, p. 29의 '범교과 제한 선택형' 사례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77)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2000),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료, p. 29의 '범교과 필수 · 선택 혼합형' 사례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표 6> 학생 필수 이수형(예시)⁷⁸⁾

유형	개설 형태	학년	배당 시간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자
			1학기(36시간)		2학기(32시간)				
I	범교과 영역 중 필수 이수 영역을 학교가 선정하여 개설	1-6	00교육(12시간) 00교육(8시간) 00교육(16시간)		00교육(12시간) 00교육(4시간) 00교육(16시간)		학년별	정시제	담당교사 명예교사 초청교사
II	범교과 영역 중 학교가 분기별로 필수 이수 영역을 선정하여 순환 방식으로 개설	1-6	편 성(8학급)				학급별	정시제	담당교사 명예교사 초청교사
			1-2반	3-4반	5-6반	7-8반			
			00교육	00교육	00교육	00교육			

2.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형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생 스스로 학습 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체험 활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요체는 학생의 개별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조성하기 위한 학습 환경과 자원을 마련해주어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자유 연구, 프로젝트 학습, 자연 혹은 현장·체험 학습 등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히 편성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창의적 재량 활동 설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성격상 학생에게 주제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년, 학급, 혹은 편성된 집단별로 큰 주제는 지정하여 주고 그 안에서 작고 구체적인 주제는 학생 스스로 또는 소집단별로

78) 경기도 안양교육청(2004), 창의적 재량 활동 운영 지도 자료, pp. 5-6의 '가. 범교과 학습 중심형 사례'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중심의 활동을 위한 집단을 어떻게 편성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제별 편성형

주제별 편성형은 학생들에게 사전 요구 조사를 통해 탐구 주제별로 활동 반을 재편성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주제의 경험이 가능하며, 학생의 희망을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활동 주제가 교과에 얽매이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표 7> 학습 주제 중심별 편성(예시)⁷⁹⁾

주제 개설 방식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탐구 주제에 대한 요구 조사 및 수요 조사 → 주제별 탐구반 개설 → 탐구 반별 지도 교사 배치	집단	정시제	담당 교사

나. 학급별 편성형

학급을 활동 집단으로 편성하는 형태로서 활동 집단을 재편성할 필요가 없거나 학교 실정, 교사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이미 편성된 학급을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지도 교사는 담임교사나 학급별로 확보한 외부 강사(지역 사회 인사, 학부모 등)일 수도 있지만, 주제를 맡은 교사들이 학기별로 학급을 순환하며 지도할 수 있다. 또한 학급별로 하위 소집단을 편성하여 주제 탐구 활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79)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료(IV), p. 24 의 ‘창의적 재량 활동 - 자기 주도적 학습을 편성하는 방법’ 사례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표 8> 학급별 순환 편성(예시)⁸⁰⁾

배당시간	주제 개설 형태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17	구분	1학기	2학기	학급	정시제	담당 교사
	1-3반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자유 연구, 현장 체험			
	4-6반	현장 체험,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프로젝트			
	7-9반	자유 연구, 현장 체험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표 9> 학급별 소집단 주제 탐구 편성(예시)⁸¹⁾

주제 개설 형태	편성 형식	지도 교사
토요일을 '창의적 재량 활동'일로 지정하고 학급별로 소집단을 구성 후 학급별로 주제를 선택, 소집단별로 활동을 진행하고 담임 교사가 직접 확인 지도	학급	담임 교사 유관 주제 담당 교사

3. 범교과 · 자기 주도적 학습 통합형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 범교과 학습을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으로 전개할 때,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학습 주제는 범교과 학습 영역과 자기 주도적 학습 영역을 통합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학생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동시에 하는 셈이다.

다음 <표 10>은 학년 초에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익히게 하면서, 학생의 관심을 반영한 범교과 학습 영역 및 활동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게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놀이 · 체험 학습, 현장 학습,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자유 연구 등)방법을 활용하여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합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80)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2000),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료, p. 30의 '자기 주도적 학습 학급별 편성형' 사례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81)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료(IV), p. 24의 '(2) 학급별로 편성하는 방법'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표 10>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통합 운영(예시)⁸²⁾

편성 형식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합하여 편성
교육과정 편성	편성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 활동의 성격 명료화 ○ 편성: 편제와 기준 시간 배당, 연간 지도 계획 수립 ○ 운영: 프로그램의 구성·활용, 학습 자료 개발, 협의회 운영 ○ 평가: 평가 방법, 평가 도구, 학습 활동 평가 및 교육과정 평가
	편제와 시간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활동일 지정 후 학급별 융통성 있는 운영 ○ 활동 영역 및 학습 주제에 따라 자기 주도 학습의 흐름을 고려한 프로그램별 시간 확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교과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안전·민속놀이 · 2학년: 질서 생활 · 3학년: 영화 체험 · 4학년: 독서 교육 · 5학년: 역사·문화 탐구 · 6학년: 환경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학년: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한국화 관찰 · 1학년: 놀이 학습 · 2학년: 체험 학습 · 3학년: 현장 학습, 자율적 활동 · 4학년: 소집단 공동 연구, 주제 탐구 · 5학년: 소집단 공동 연구, 주제 탐구 · 6학년: 소집단 공동 연구, 자유 연구
특색 있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생용 매뉴얼 발간 ○ 재량 활동 교사용 프로그램 편성·운영 자료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재량 활동에 대한 이해 · 각론: 자기 주도 학습 차시별 상담 중심 학습 활동안 ○ 학생용 재량 활동 학습장 마련 및 활용
	활동 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소집단, 학년별 운영
평가 및 장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평가 관점별 활동 상황 관찰, 활동 실적 평가, 질문지 평가, 기능 평가,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활용 ○ 진보의 정도, 행동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술 ○ 재량 활동 수업 연구 실시

82) 서울인수초등학교(2007), 재량 활동 시범 학교 운영 보고서, pp. 13-32의 'IV. 운영의 실제'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V. 재량 활동의 평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항에서 재량 활동 평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재량 활동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재량 활동 평가의 기본 방향

재량 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계획, 조직, 실천 등의 여러 과정에 걸쳐 교육 활동을 개선하고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재량 활동 의의에 부합되는 재량 활동 평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9: 202-203).

첫째, 재량 활동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재량 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교육 활동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형화된 평가 틀을 구안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교는 각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활동 계획에 대한 평가’, ‘활동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평가’, ‘집단의 변화·발전에 대한 평가’, ‘학생 개인의 발달에 대한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재량 활동 평가는 성격상 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활동과 관련된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참여도, 태도 등이 평가의 주된 관심사가 되며, 평가 결과는 문장으로 기록한다.

넷째, 학생 평가와 함께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 활동 평가 결과는 환류되어 차후 재량 활동 교육과정 개선점을 추출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2. 학생 평가

가. 학생 평가의 기본 방향

재량 활동은 그 활동의 성격상 교과 활동 평가와 다르다. 그러나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활동 영역별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특정 활동 내용에 대한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실천 태도, 실천 의지 등이 평가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43).

첫째, 전인적 평가이다. 재량 활동은 교과 활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만큼, 교과 활동을 통해서 측정할 수 없는 정의적, 심동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과정 평가이다. 재량 활동은 활동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활동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관심, 실천 의지 등에 평가가 누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문장 기술적 평가이다. 재량 활동은 교과 활동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나 다양한 체험 활동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재량 활동 시간에 행해졌던 각 활동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특성이나 참여 정도를 문장으로 진술하는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평가이다.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후의 재량 활동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 평가뿐만 아니라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에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나. 학생 평가의 유의점 및 방법

초등학교 재량 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교육부, 1999: 203).

- ① 학생 자신에 의한 평가, 학생 상호간의 평가를 고려한다.
- ② 관찰 기록과 질문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③ 활동 기록,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수행 평가의 방법을 활용한다.
- ④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활동 실적 등이 골고루 반영되게 한다.
- ⑤ 자기표현 및 발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상황을 반영한다.
- ⑥ 평소의 활동 상황을 계속적, 누가적으로 기록한다.
- ⑦ 평가의 결과는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록한다.
- ⑧ 학생 개개인의 발달, 변화, 성취를 평가함과 아울러 학급 또는 학교 차원에서 전체 집단의 성장, 발달, 변화 등도 반영하여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⑨ 학생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평가 결과는 후속되는 활동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개선에 활용되도록 한다.

재량 활동의 평가 방법은 각 학교에서 작성된 재량 활동의 목표와 평가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량 활동의 평가 방법 및 요령을 예시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교육부, 1999: 203).

<표 11> 재량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평가 방법(예시)

구 분	평가 방법	평 가 요 령
활동 상황의 관찰	일화 기록	◦ 학생의 활동 상황을 자유롭게 기록(지도록, 카드, 노트 등)
	체크리스트	◦ 활동에의 참가 태도, 실천 상황을 미리 준비된 목록에 의거 점검
	평정 척도	◦ 활동 상황, 발언 내용 등을 일정한 척도에 비추어 기록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의식, 태도 조사	◦ 활동에의 생각, 흥미, 관심, 태도 등을 설문식으로 조사
	자기 평가	◦ 집단 활동에의 참가 태도, 행동의 정착도를 각자 반성 평가
	상호 평가	◦ 집단 활동에의 참가 태도, 실천 과정에서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선택에 의한 평가
학생의 기록, 작품	활동의 기록	◦ 활동의 계획이나 활동의 실제 기록
	개인 기록, 보고서, 리포트 등	◦ 개인의 자유 연구, 소집단 공동 연구, 주제 탐구 활동, 자연 체험 활동 등의 활동 보고서, 기록 결과물, 작품, 사진 등의 자료 분석
	작문, 일지	◦ 활동의 계획, 실시에 대한 의견, 참가 후, 활동 후의 감상
교사의 협의, 의견 교환	동학년 협의, 타학년, 전교단위의 협의	◦ 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 반성 평가

다음 <표 12>⁸³⁾는 재량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83)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초등학교 재량 활동 운영 사례집, p. 51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표 12> 재량 활동 학생 평가의 사례(예시)

구분	자 기 주 도 적 학 습 능 력			
영역	학 습 능 력			학 습 태 도
평가 목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계획 입안력>	선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자기 학습력>	학습한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자기 평가력>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구들과 협동하는 태도를 갖는다.
평가 장면	자기가 정한 탐구 주제에 적합한 탐구 절차를 고안하여 개별 주제 탐구 계획을 세울수 있는가?	탐구 주제 성격에 따라 전문 서적 이용, 관찰지, 질문지, 설문지 작성 등을 바르게 해냈는가?	탐구 결과물을 근거 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통계 내어 발표를 잘 할 수 있는가?	탐구 주제 선정, 계획서 작성, 탐구 활동,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성실과 끈기를 보였는가?
(시기)	(4월 4주)	(5월 4주)	(6월 4주)	(수시)
평점 기준	최상:◎, 상:○ 중:△, 하:×, 최하:▽	최상:◎, 상:○ 중:△, 하:×, 최하:▽	최상:◎, 상:○ 중:△, 하:×, 최하:▽	최상:◎, 상:○ 중:△, 하:×, 최하:▽

다. 재량 활동 평가 결과의 기록

학생들의 재량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재량 활동 상황’란에 입력하는 재량 활동은 활동 주제와 주제별 이수 시간을 입력하되, 활동 주제가 세분화되어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재량 활동의 두 가지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나누어 해당 영역에 대한 연간 이수 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평가는 활동 주제에 대한 특기 사항을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문장으로 간단하게 입력하되,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두 가지 활동 영역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활동 영역에 대한 특기 사항을 문장으로 간략하게 입력할 수 있다. 이 때, 대 영역을 기록한 경우 소 영역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표 13> 창의적 재량 활동 평가(예시)

학년	활동 영역 또는 주제	이수 시간	특 기 사 항
1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성교육	○○시간 ○○시간	전통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함
2	법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 ○○시간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하여 질서 의식이 고양되고 정보 윤리 교육을 통하여 컴퓨터 예절을 익힘 식물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요인을 탐구하여 발표함

3.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가. 재량 활동 교육과정 평가의 기본 방향

재량 활동은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틀을 갖지 않는다. 이는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과 시간 배당, 활동 주제의 선택, 활동 집단의 구성 등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량 활동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50).

첫째, 재량 활동의 편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재량 활동 시간 배당의 적절성, 재량 활동 시간 조직의 효율성, 재량 활동 시기의 융통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재량 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측면에서 활동 목표의 타당성, 내용 선정 조직의 타당성,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성, 교수·학습 자료의 효과성을 고려한다.

셋째, 재량 활동의 평가 측면에서는 평가 방법의 적절성, 평가 도구의 타당도, 평가 기록 및 통지 방법,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창의적 재량 활동의 영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 재량 활동 교육과정 평가의 관점과 방법

재량 활동에 대한 학생의 평가와 별도로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학교의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그 편성·운영 자체를 평가하고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는 크게 종합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한국교원대학교, 1998: 30).

종합 평가는 재량 활동의 운영 목적 및 재량 활동 영역별 편성·운영 목표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 평가는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구성 요소별 주요 활동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재량 활동 및 각 구성 요소의 취지에 맞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항목마다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서는 종합적 평가 방법의 예시로 설문지 혹은 평정 척도를 활용한 평가와 교사의 자기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설문지 혹은 평정 척도표를 활용한 평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의 관점과 설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예시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예시)⁸⁴⁾

구분	평 가 관 점	평 점					평 균	개 선 할 점
		1	2	3	4	5		
(1) 재량 활동 계획	(가) 국가수준의 재량 활동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추출하고 반영하였는가? (나) 재량 활동 목표 구현을 위한 교육 중점이 전 교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설정되었는가? (다) 재량 활동의 주제 지도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는가? (라) 재량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계획되었는가? (마) 교사의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연수가 계획되었는가?							
(2) 기초 조사	(가) 기초 조사의 설문 내용이 체계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나) 기초 조사의 내용 및 통계 처리가 타당한가? (다) 기초 조사 실태 파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V. 재량 활동의 평가

구분	평 가 관 점	평 점					평 균	개선할 점
		1	2	3	4	5		
(3) 연구 지원 체계	(가) 전 교직원의 조직·임무·역할이 구체적인가? (나) 분과별 역할이 구체화 되었는가? (다) 조직된 분과 지원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4) 편성	(가)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설정이 합리적인가? (나) 재량 활동의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가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에 의해 학교 특성을 살려 편성하였는가? (다) 계획된 편제와 시간 배당은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적합한가? (라) 교과 및 특별 활동의 심화·보충과 학교의 교육적인 필요 및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 활 동인가? (마) 학년 목표가 타당하게 설정되고 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라 위계적으로 편성되었는가? (바) 재량 활동의 편성 내용이 지역 사회, 학교, 학생의 개성, 소질에 부합한 내용인가? (사) 재량 활동의 내용이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활동 프로그램이고, 학습의 개별화에 적합한가?							
(5) 운영	(가) 재량 활동 운영, 시간 배당, 수업 일수 이수 계획을 준수하였는가? (나) 위계적인 재량 활동 연간 계획에 따라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에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다) 학생들에게 공동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 활동 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탐구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는가? (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함양시키도록 운영되었는가? (마) 학습 주제와 학생 능력에 따른 학습 기회와 방법을 고안, 학습 지도 시간에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다양 하게 활용하고 정비하여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사) 재량 활동의 운영이 가정과 연계되어 활발하게 이루 어졌는가? (아) 교사 연수 운영 방법이 재량 활동 교수·학습 지도 방법 개선에 기여했는가?							
(6) 평가	(가) 재량 활동의 평가를 위한 학교 평가 계획과 학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확인하고 있는가? (나)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영역별 평가의 준거가 될 평가 척도, 평가 관점을 적용하여 균형							

구분	평 가 관 점	평 점					평균	개선할 점
		1	2	3	4	5		
	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다)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파악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가? (라) 재량 활동 평가의 일반화를 위한 평가 기록장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교사의 자기 평가

재량 활동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교사의 자기 평가가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자기 평가를 통하여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점진적인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자기 평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예시는 다음 <표 15>와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53).

<표 15> 재량 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기 평가(예시)

평가 일시	년 월 일			평가자	교사 :			
활동명	재량 활동	기별	학기	프로그램명				
영역	관점				평가			반성
					상	중	하	
사전 조사	•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찾아 낼 수 있는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프로그램 주제 선정	• 학생 각 개인에게 필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되었는가? • 학생 개인 능력에 따른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주제 선정이 되게 하였는가?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 학년 재량 활동의 목표와 활동 내용에 적합한 프로그램 학습 활동 내용으로 편성되었는가? •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내용이 학년 간에 위계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재량 활동 시간 운영	• 학습 활동 계획이 학생 주도적으로 짜여졌는가? • 학습 활동 시간 배당이 학습 활동 운영에 적절하였는가?							

84) 서울인수초등학교(2007). '재량 활동 운영 자료'에서 발췌하여 제시한 것임

V. 재량 활동의 평가

학습 자료	• 학습 자료가 재량 활동의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었는가?				
재량 활동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방법이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 상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학습 활동에 따른 평가 관점을 수립하고 평가에 임하였는가? 				

참고 문헌

- 경기도 안양교육청(2004). **창의적 재량 활동 운영 지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요’**.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2007. 2. 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IV):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 주식회사 보진재.
- 교육부(2000). **특별 활동·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부 위탁 연구과제 답신 보고.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영민(2002). **창의적 재량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마당 21. 55-58.
- 김만곤 외(2006). **초등학교 재량 활동 지도 자료**.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순경, 소경희, 차우규(1998). **초등학교 재량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부 위탁 연구과제 답신 보고.
- 서울인수초등학교(2007). **재량 활동 시범 학교 운영 보고서**.
- 이경환, 박제윤, 권영민(2002).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2000).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초등학교 재량 활동 운영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재량 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재량·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원대학교(1998).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연구**. 교육부 위탁 연구과제 답신 보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총론, 재량 활동

2008년 4월 1일 발행

저작권자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발 행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인 쇄 : 한 술 사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3
